

334

この韓国語版は、日本語版もあります。

「33年」
」 <http://p.booklog.jp/book/1648>

(J a p a n e s e v e r .)

저자 소개 미셀·마리·프랑스와 오
쿠다 찌카라

나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직계 자손으로서 이 두사람들이 순교하신 땅인 데라사와의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한국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시자로 큰 버섯모양의 구름과 울고 계시는 마리아님을 본 것입니다.

이 「33년」 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데라사와에 순례에 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마리 마드레느라고 하는 환청자이고 또한 신비가인 여성이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도 한국을 위해 목숨을 내 걸고 있습니다.

【연락처】

〒 012-0106

秋田県湯沢市三梨町字清水小屋14

(아키타현 유자와시 미쯔나시정 지시미즈고야14)

ミッシェル・マリー・フランソワ奥田力

(미셀·마리·프랑스와 오쿠다 찌카라)

전화·FAX: 0183-42-2762

이메일:charbeljapan@nifty.ne.jp

[address]

Shimizukoya 14

Aza
Mmitsunashi-cho
Yuzawa - shi
Akita- ken

【헌 사】

시스토와 카타리나 부부, 그리고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 하늘로부터 지원하시고 계시는 리틀·페블 씨에게 몸을 바칩니다.

【서 문】

메시지

2006년6월2일 AM1:36

시스토, 한국 순교자로부터의 로큐손

6월1일 오후, 최 영숙씨가 계시는 곳에 가 상담을 했습니다.“라이프 히스토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므로 시스토와 카타리나 부부 순교자에게 “아무쪼록 라이프 히스토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첫번째 들었을 때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미셀·마리·프랑스와가 로큐손으로서 기원하시고 기다렸으며 나도 빌고 있었는데 “미셀·마리·프랑스와에게 가르칩니다” 라고 한 마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제 들은 시스토의 목소리였습니다.“표시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식별하기 위한 표시”가 있었으므로 사제에 이 사실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니 “식별을 위한 표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 라이프 히스토리를 집필 하는 일을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직계 자손인 나에게 시스토로부터 맡겨 오셨던 것입니다. 참말로 하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메시지

2007년4월6일

마리·마드레네에게 보내 오신 성모 마리아님의 메시지
아키타현 유자와시 “시미즈 교야” 공동체에서

미셀·마리·프랑스와에게는 일이 산척 되어 있습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 부부의 순교를 한국에 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은혜의 중개자, 속죄의 공속죄자”의 상표를 받기 위한 일도 콜베·마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화라고 하는 수단을 나에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나는 영화의 각본을 쓰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2006년6월8일(목요일) (오전0:07-0:57)

성모 마리아님과 한국 순교자 카타리나로부터 보내 오신 공적 메시지
(아키타현 유자와에서)

[성모 마리아님으로부터 리틀·페블 씨에게 전하기시는 메시지]

성모 마리아님:

사랑하는 리틀·페블씨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모가 당신에게 말 드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계십시오. 당신의 일을 전하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일어나 당신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위해서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모는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상영될 려명시에는 한국과 전인류를 구하기 위해, 리틀·페블씨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 주신 각본을 읽어 주십시오.

총주호의 반짝이는 수면. 길게 뻗어난 곳이 보인다. 월악산이 보인다. 기슭에는 마을이 있다. 1592년의 6월이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고 있다. 월악산 광산역인과 통역 그리고 일본의 무사 일단이 와 있다.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모두 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다. 정련의 일로 끌려 가는 스승의 이름이 불린다. 일본에 연행된다고 한다.

나레이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영토욕의 짐승 뿐만 아니었다. 금과 은에 대해서도 집착이 있는 도깨비였다. 이 때 악마는 선진 정련 기술의 기술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스승의 가족들이 매달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바로 옆에 젊은 부부가 서 있다. 아이는 없는 것 같다. 보건대 십대 중년 나이가 되는 아내의 눈으로부터 순식간에 동정의 눈물이 흘러 나온다. 스무 살을 좀 넘을 정도의 젊은 남편은 눈을 감고 무엇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돌연히 눈을 짝 뜨고 얼굴에 결의를 보인다.

남편 “내가 스승의 대신으로 일본에 가겠어요.” 큰 목소리가 확실하게 들린다.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의 얼굴을 응시한다. 눈도 입도 크게 열어.

남편 “우리들은 아직 아이가 없어요” 이 한마디에 아내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였다.

아내 “응.”

통역이 이것을 무사들에게 전한다. 광산 역인이 그는 스승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기술자라고 보증한다. 무사들이 상담한다. 결론은 빨리 나왔다. 기술이 확실하다면 젊은 사람이 좋다고 한다. 이후 오래 동안 일할 수 있고 일본어를 빨리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사의 우두머리 “너들 다 곧 준비해라”

통역이 젊은 부부에게 이 말을 전했다.

남편: “너, 따라 와 주나.”

아내: “응. 나 당신을 믿어.”

단순에 자신을 믿어 주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은 감사를 드린다.

남편: “고맙다.”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남편은 부랴부랴 직장에 가 무엇인가 하나 가져왔다. 은을 제조하기 위한 ‘도가니’다. 무사들은 젊은 부부가 도중에 도망치지 않도록 허리에 줄을 묶는다. 두사람의 얼굴은 새빨개진다. 말뭇 할 모욕감. 태어나 자란 마을 사람들의 눈 앞에서 개와 같이 끌려 가는 것이다. 남편은 이를 악물고 아내의 눈으로부터는 눈물이 떨어진다.

테마 곡이 울려 나온다.

월악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걸으면서 지난 몇일 후. 극도의 피로가 몰려온다. 무거운 몸, 무거운 마음, 무거운 도가니. 부부는 굶주림에 비틀거리는 아이들, 이미 쇠약해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며 운다. 침략자인 무사들로부터 음식을 받아 먹는 부끄러움. 살아 남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눈앞에서... .

테마 곡이 끝난다.

부산이다. 전리품 포로로서의 제1진으로 배에 태워진다. 포로들로 가득찬 배. 조국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본다. 이들 부부에게나, 모두에게나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울부짖는 목소리. “아버지,,, 어머니,,,” 라는 절규가 이쪽 저쪽에서 울린다. 부부도 울고 있다. 아내는 큰 소리 내 울고, 푹 쓰러져 얼굴도 들지 못한다. 육지도 섬도 보이지 않게 되어, 아직도 푹 쓰러져 있는 아내를 껴안고 달래는 남편.

남편: “여봐, 우리들은 마을에 남을 수 있었어. 이길은 절로 고른 것이야. 나는 스승을 대신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바꾸어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소리를 따를 것일가, 마을에 남을가 고를 수 있었어. 그리고 나는 마음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야. 자유롭게 고른 것이야. 너 후회하고 있나?” 아내는 머리를 옆으로 흔들다.

아내: “당신. 당신을 믿고 있어요. 당신에 끌려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나의 마을, 나의 나라를 떠나는 것이 어떻게 괴로울 줄은 몰랐어요.” 조국을 떠남으로서 처음으로 느낀 조국애, 조국에 대한 이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져 간다.

남편: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저희 나라를 결코 잊지 않을래.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있다” 남편은 또 다시 울기 시작한 아내를 가슴에 끌어 안고 자기의 마음껏 울게한다.

그로부터 몇일이나 경과하였다. "육지다" 라는 큰 소리가 들리며 배의 일본인들이 일제히 모두 갑판으로 나간다. 그들의 기뻐하는 얼굴. 부부는 곧 이해 할 수 있었다. 일본에 이제 곧 도착하면 어떻게 하나. 아내의 얼굴이 푸르러진다. 사형수가 처형대를 본 것 같이.

아내 "나, 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싶어."

내일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에 얽매이고 있는 괴로움의 발작이었다.

남편 "너. 그럼 저. 우리들의 나라는 졌지만 우리들은 정신상 싸움에서는 지지 않은 것이야. 이제부터 어떤 싸움이 오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정신상 싸움에서는 이겨야 해." 아직 희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믿음직함을 아내는 느끼게 되었다.

포로들은 이제 곧 배를 내린다. 부부는 남보다 매우 눈에 띄인다. 남편이 업고 있는 도가니가 그 원인의 하나. 또한 아내가 누구보다도 더 울고 있는 것이 다른 하나의 원인이다. 전리품으로서의 포로의 제1진. 항구 중 그리고 읍내 안의 일본인들이 모여와 있다. 큰 소리를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떠들어댄다. 호기심과 사냥을 모르는 눈. 아내는 구경거리로 되는 모욕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해 본다. 불쌍하고 비참한 동물이라도 된 것 같다. 비참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고 드디어 흐느끼기 시작한다. 그 때 한 분의 파도레와 두분의 동숙이 제일 앞줄에서 있는 부부에게 근접해 왔다.

파도레 "오, 불쌍한 사람들이여"

부부는 이 세 분의 기척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돌린다. 파도레는 아내쪽에 더욱 가까이 와 어깨를 꼭 끌어안는다. 그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에 키스하며 위로하기 위해 상냥하게 머리를 쓰다듬는다. 자비에 넘치는 파도레의 얼굴을 아내는 깜짝 놀라 눈물을 대으며 바라본다. 서양인을 처음으로 보는 놀람과 상냥한 위로에 대한 놀람이다.

무사들이 달려와 파도레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축복의 십자와 성령의 힘을 받는다. 무사들은 대단한 존경과 감사를 파도레에게 보인다. 이것을 친 눈으로 본 부부는 또한 깜짝 놀란다. 절망의 어두움에 있었던 아내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울음을 그쳤다.

아내 "이 사람, 스님일까?"

남편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 틀림 없네."

아내 "왜 이런 우리들에게도 상냥히 대해 주네요?"

남편 "말을 묻고 싶네. 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매우 듣고 싶어"

파도레와 무사들의 회화가 계속된다. 두 사람의 동숙이 부부쪽을 본다. 한 사람의 동숙은 남편에게 미소지으면서 눈을 바로본다. 무사들이 이 동숙에도 많이 존경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을 남편은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켜서 "루이스"라고 하고 다른 한 동숙의 어깨에 손을 두어 "파우로"라고 한다.

루이스 "파우로,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파우로 "저이는 루이스라 하고, 나는 파우로라고 합니다."

부부는 고려말이 파우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데 깜짝 놀란다. 파우로가 미소지으며 말한다.

파우로: "나는 일본 출생의 고려인이예요. 통역을 해 드립니다."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본 루이스는 권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얼굴과 언행을 하고 있다. 그 루이스가 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루이스 “그 도가니를 나에게 줘. 들어 주지요. 무겁지 않아. 피곤 하겠지. 배 고프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도가니를 뺏아 집어챘다. 남편은 너무 지나친 루이스의 소탈함과 친절감에 깜짝 놀란다. 루이스 “이 도가니는 뭘 하는 거요. 요리하는 건가?”

남편 “이것은 금이나 은을 광석으로부터 녹여내기 위한 가마요.” 루이스가 보여주시는 친절감에 남편도 친한 어조로 대답한다.

루이스 “오, 그런 기술을 네가 가지고 있나?”

남편 “나는 광산에서 일하는 정련 기술자요. 굉장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남편은 겸손히 대답한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긍지가 지친 얼굴에 빛을 보여준다.

남편 “또한 고려의 정련 기술은 세계 제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일본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끌려 왔습니다.”

고려의 정련 기술이 세계 제일이라는 것은 정말이었다. 중국식보다 대규모 고 능률의 고려식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이후의 한 시기 이시미 은산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제일의 은 생산량을 자랑하게 된 것이 또한 원내 은산이며 남편의 말은 이 후의 사실로서 증명된다.

루이스 “부인님. 그 자루도 나에게 주세요. 들어 드리지요.”

아내 “이건 가볍기 때문에 괜찮아요.”

루이스 “무엇이 들어 있어?”

아내 “마늘이요. 아버지가 이것을 주면서 장수해라 하며 울었어요...” 이 화제는 좋지 않았다. 아내는 또 우는 소리가 되었다. 나를 귀여워해 주시고 좋아하시던 아버지를, 헤어짐을 아낄 새도 없이 한탄만 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상기한 것이다. 한번 울음을 그치고 있었던 아내가 또 울기 시작하였다.

아내 “아버지, 응,,, 응,,, 아버지, 응,,, 응,,,” 흐느낌은 멈추지 않는다. 파도레가 아내쪽을 바라보고 무사들과의 이야기를 끊어 이 쪽으로 가까이 와 아내를 포옹하고 볼에 키스 하고 머리를 어루만진다. 그러나 아내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며

아내 “아버지, 응,,, 응,,, 아버지, 응,,, 응,,,” 라고 되풀이하며 운다. 파도레에 루이스가 말을 건넨다.

루이스 “파도레, 이 두 사람은 광산의 기술자이고 이 도가니는 금이나 은을 정련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세계 제일의 고려의 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끌려 왔다고 합니다.” 파도레는 수긍하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다는 표정을 짓는다. 파도레는 매우 두드러지는 이 젊은 부부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빨리 친해지자고 장난을 낸다.

파도레 “광산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두 사람에게 별명을 드립시다. 광산은 카타콘부와 같은 길고 많은 지하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사람의 별명은 “시스토”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라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이 사람의 별명은 “카타리나”.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이 당신들에게 이름을 선물 했어요.”

루이스와 파우로 “참으로 딱 맞기에 기억하기도 쉬워.” 두 동숙은 파도레의 유머에 매우 기뻐하며 찬성한다.

루이스 “예, 이 이름으로 곧 불러. 네 시스토, 카타리나.” 부부는 인차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별명으로 이제부터 불린다고 하는 것 밖에 몰랐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예언적으로 이제부터의 두 사람의 활약을 암시한 것이다.” 파도레는 하늘로부터의 인스퍼레이션으로 이 이름을 생각해 내 두 사람에게 불

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3 3 - 5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유래

파도레는 “시스토”라는 이름을 시스토2세로부터 지었다. 그이는 아테네 출신의 그리스인이지만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사제가 되어 로마 황제가 크리스트 교도들을 박해 할 때 지하 교회에서 일하시고, 로마 사교 즉 로마 교황이 되시고 카타콘부라고 하는 대 지하 묘지로부터 신자를 지도하였다. 그리고 이 카타콘부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 중 밀고에 의해 황제의 군대들에게 붙잡혀 순교하신 드라마틱한 순교자이다.

그리고 또 파도레는 “카타리나”의 이름을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로부터 지었다. 그녀는 영원한 아버지와의 대화와 “눈물의 영령성”이라고 하는 울면서의 기도와 탄원의 매일을 보낸 것으로 대단히 유니크한 성녀이었다. 그녀는 자선가로서 대 활약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녀에게 찬동하고 그녀의 활동을 도운 사람들은 “카타리나군”이라고 불렸다.

파도레와 두 동숙은 외국에 와서 광산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과 “아버지, 응,,, 응,,, 아버지, 응,,, 응,,,”라고 울고 있는 것 만으로 시스토와 카타리나라는 별명을 붙이고 “딱 맞다”라 하고 있었지만 이 세 사람 역시 시스토가 이제부터 일본 중의 광산을 묶는 지하 교회를 만들어 내고 지도하는 것과 그래서 카타리나가 자선을 행해 기적적인 성과를 올릴 것에 대해서는 아는 수가 없었다.

무사들이 출발을 명령한다. 루이스는 도가니를 업고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 파도레와 파우로는 걷기 시작한 다른 고려 포로들에게도 자애 깊은 위로를 주기 위해 한사람 또 한사람과 잇달아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이야기를 듣는다.

1592년7월, 아리마이다. 무사들은 아리마의 크리스찬 영주 동·푸로타지오 아리마 하루노부 가신이었던 것이다. 포로들의 제1진은 일본에 있어서의 예수회의 본거지인 아리마에 끌려 와 크리스찬 농민들의 집에 분산되어 주거 하게 되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루이스에게 안내 되어 한 농가에 도착하였다. 바다가 가깝다. 아리아케해다. 그리고 곁에 육박하는 운젠이 높은 큰 산. 이 남쪽 땅, 게다가 바다의 바로 옆에 있어면서도 산정에는 겨울이 되면 눈이 덮인다.

여기에서도 또 남편은 시스토, 아내는 카타리나이라고 루이스로부터 집 사람들에게 소개된다. 집 사람들이 두 사람의 발을 가리킨다. 두 사람의 맨발은 발목으로부터 아래가 빨갈고 크게 부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불은 살이 빠지고 시스토의 수영은 자라고 카타리나의 머리는 풀리고 있다. 7월이 되면 이미 더워진 규슈의 길을 맨발로 몇일이나 걸어 온 것이다. 두사람은 집 사람들의 표정과 목소리로부터 대단히 동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루이스 “마리아님과 요제후님을 맡아 두었다고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이 두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많이 보답해 드릴 것입니다.”

집주인 “루이스님, 안심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시중드는 것과 같이 이 두 사람에게 시중 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시스토, 카타리나, 또 오겠습니다.” 루이스가 떠나려로 한다. 두사람은 그것을 보며 당황해한다.

시스토 “고맙습니다 루이스”

카타리나 “고맙어요 루이스” 루이스가 떠난 후 뭐라할 수 없는 불안함. 두사람은 아직 일본어를 모

른다.

카타리나 “여봐요, 도착한 것일까, 여행은 다 끝났을까?”

시스토 “그런것 같네.”

카타리나 “나, 서 있을 수 없어.”

카타리나는 도착했다고 생각하니 피로가 몰려붙기 시작한 것이다. 발이 막대와 같이 굳어져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웅크리자고 하니 뚝 엉덩이가 붙어 버려 그대도 멈추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버린다. 피로로 인하여 전신이 아파난다. 이 이상 더 서 있을 수 없다.

집 부인 “야, 아주 불쌍하네.” 집 사람들의 그리스도교적인 형제 사랑이 폭발해 모두가 일제히 카타리나에 매달려 들어 안아 올리고 시스토와 함께 집에 데리고 간다. 두 사람은 친절의 대 홍수에 빠져 버린다.

아리마의 누구의 집에도 뒤에 뒤를 이어 연행되어 온 고려인이 있었다. 아리마 뿐이 아니었다. 크리스찬 영주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오무라에도 우뭇가사리에도 나가사키에도, 고토와 같이 포로들이 민가에 분속되어 있었다. 예수회는 1566년부터 고려에 대한 선교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럽인은 먼 앞을 보아 용의주도한 준비를 하는 머리를 갖고 있다. 일본의 선교를 위해 1580년에 아리마에 세미나리요를 만들고 열살 전후의 크리스찬의 자제들을 입학시켜 장래의 동숙, 수도사, 사제의 양성을 시작하며 일본 출생의 고려인의 크리스찬의 자제도 입학시켜 고려에 대한 선교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다. 아리마에서는 파우로 이외에 몇 사람인가의 고려인 동숙이 있었으며 그들은 몇 천명 되는 고려인 포로들에게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도처에서 힘내 일하고 있었다. 그 몇 천명의 고려인 포로 중에서도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파도레들, 수도사들, 동숙들 사이의 유명인이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회는 상기의 이유로 고려인들에게 열심히 신앙의 교육을 시작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농가의 일가와 함께 농 작업을 해 보내고 있었으며 일요일에는 고려인들의 대부분은 세미나리요에 갔다. 거기에서 파우로의 통역으로 파도레로부터 또는 파우로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하루..., 파우로가 통역하고 있었다.

파도레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에게는 세개의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와 성령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것을 이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때 파도레의 눈에는 마음에 드는 시스토의 얼굴이 보였다.

파도레 “나의 양 시스토. 아버지와 아이와 성령은 따로 따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시스토는 진지하게 생각한다. 파도레는 잠시 시스토의 대답을 기다린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시스토 “파도레, 잘 모르겠지만 나는 믿고 싶어 믿습니다.”

파도레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파도레는 이 대답에 만족하여 수긍한다.

시스토 “파도레님, 이것은 내가 금과 은과 구리를 하나의 돌로부터 뽑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돌은 별 다를 것 없는 돌로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돌 속에 금과 은과 구리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녹여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파우로가 놀람의 외침을 지른다. 파도레가 파우로에게

파도레 “뭐, 뭐 뭐라고 시스토가 말한 거야.

파우로 “파도레님,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스토의 말을 통역한다. 파도레와 파우로는 얼굴을 마주 보며 잠시동안 입도 벌리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예를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교회 역사상 처음의 “삼위일체의 광석에 대한 비유례” 일지도 모른다. 드디어 파도레가 입을 열었다.

파도레 “시스토, 너은 천재이다.” 파도레는 옆에 있는 카타리나에게도 무엇인가 질문하려고 했다.

파도레 “카타리나, 나의 양.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성체는 빵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형상으로서 주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몰라도 믿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카타리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잠시동안 입을 다문다. 그리고 슬픈 듯한 목소리로 말한다.

카타리나 “파도레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끌려 올 때에 이것으로 장수해라 하며 마늘을 주었어요. 단지 이것이 아버지의 유물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영

원히 장수시키기 위해 자신을 먹게 하는 수 있다면 ... 나도 만약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음식물로 되어 아이들에게 먹히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나는 믿고 싶어요.” 카타리나는 아버지와 헤어짐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다. 파도레는 감동하여 파우로와 얼굴을 맞 본다. 아버지의 마늘과 예수님의 성체를 같이 생각하는 아이다움과 만약 나라면 자기를 음식물로 변해 남들한테 드린다고 하는 사랑 깊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아 냈던 것이다.

파도레 “나의 양들, 당신들 부부는 대단한 부부이다” 파도레에게도 파우로에게도 이 두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었다. 물론 들은 사람들도 감동하였고 식사 때의 화제로 되거나 다음 사람에게 전하거나 하여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만난 적 없는 사람들도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이름과 이 두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33-7 ‘어린애 같이 있으세요’

이 교리의 설명 시간이 끝난 후 시스토는 카타리나의 손을 잡고 파도레에게 말하러 간다.

시스토 “파우로님, 통역해 주십시오.”

파우로 “그렇게 하지요.”

시스토 “파도레님 내가 천재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특별한 부부라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시스토의 얼굴은 진지했으며 진실하게 자기들을 낮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진지함은 바뀌지 않지만 눈은 멀리 한점만을 본다. 그리고는

시스토 “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연구에 있어서는 천재와 같이 깨달음이 빠른 것”은 세계 제일입니다.

파도레는 통역 파우로의 말을 듣고 잠시동안 입 다물고 시스토의 말을 음미한다. 조금 전 파도레는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천진한 이 두사람이 절대로 이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한 의미 깊은 이야기에 대해 이해하려고 진지하게 침묵하고 나름대로 연구하여 깨달음을 보았던 것이다. 이미 3개월 동안이나 고려인 포로들을 가르치고 있는 파도레는 다른 고려 사람들도 시스토의 말과 같이 “연구에 있어서 천재와 같이 깨달음이 빠른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보아왔던 것이다.

파도레 “나의 양 시스토 카타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아이와 같이 천진한 대로 있으세요. 지금과 같이.”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참말로 파도레를 연모하고 있다. 아이가 부모에게 대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열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밈 없게 이야기한다. 파도레는 그러므로 하여 더욱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극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함에 있어서 천재와 같이 깨달음이 빠른 것”이 기술적 분야에서 발휘되어 왔기에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온 것이다. 이제부터 시스토가 일본에 전하는 대규모 또한 고능률의 정련 기술은 철남비가 큰 것에 의한 기술혁신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토가 전함으로 하여 이시미은산과 원내은산을 세계 제일의 은 생산량으로 한 현재에까지 알려진 반사로이다.

아무튼 몇 천명의 세레 준비 중에 있는 고려인 포로들은 진리를 찾고 인정하고 믿기 위해 그들의 민족적 “연구에 있어서 천재와 같이 깨달음이 빠른 것”을 최대한으로 리용해 주위의 스페인인, 포르투갈인, 일본인의 크리스찬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다.

지금 카타리나가 무엇인가 물으려고 한다. 파도레가 눈짓으로 재촉한다.

카타리나 “저, 파도레님 하지만 언제까지도 아이와 같이 천진한 대로 있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는 지금까지 처음 듣는데요.” 이 질문에 파도레의 얼굴은 점점 “아버지”와 같이 상냥해진다.

파도레 “오. 사랑하는 나의 양들. 천국은 겸손한 양들을 받아 들이는 것이요.” 파우로가 통역 하므로 파도레는 한 단락 한 단락 이어 말한다. 카타리나는 이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저도 몰래.

카타리나 “에, 정말” 라고 되묻는 것이 귀엽다. 파도레는 생글생글 미소짓는다.

파도레 “정말이요. 예수님이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십시오.” 파도레가 두사람을 옆 제단, 마리아님의 제단 앞에 데리고 간다. 어린 예수님을 안은 마리아님을 모신 제단이다. 복판에 선 사람의 큰 다리와 같은 높이에는 알파벳의 A와 M의 조합 문자가 되어 있다.

파도레 “누구나 모두 마리아님의 아이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신을 아직 젖 먹는 아이로 생각하고 마리아님을 자신이 친 어머니로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십시오. 그럼으로서 마리아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로서 맞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도레는 시스토도 카타리나가 열중히 마리아님의

성상을 쳐다 보고 있는 것을 옆으로부터 응시한다. 카타리나의 시선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담겨져 있다. 어린 예수님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다.

파도레 “카타리나. 아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마리아님에게 이야기해 보렴. 자, 무엇을 부탁해도 좋은 것이요. 자.”

카타리나 “무엇이든지 좋아요. 파도레님.”

파도레 “좋아. 카타리나.”

카타리나 “마리아님, 아기를 주십시오.”

시스토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파도레가 두사람에게 축복을 드린다.

33-8 '예수님의 맛 있는 오른쪽 앞발'

1592년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다. 미명의 한 밤중 열 두시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미사에는 이 해 아리마에 도착된 고려인 포로들의 대 부분이 와 있다. 아리마의 사람들이 거의 다 와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성당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인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다른 고려인 포로들과 같이 밖에서 미사를 듣고 있는데, 그들의 열심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도 불타고 있었다. 미사가 시작되니 갓난 아기때의 예수님의 성상을 바쳐 든 파도레가 밖에 나와 제일 떨어진 자리로부터 보여 주시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시스토와 카타리나도 성상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카타리나 “귀여워, 귀여워. 예, 여봐요. 예.”

시스토 “응. 귀여워.”

점심이 되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집 사람들과 맛 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집 주인이 먼저 식전의 기도를 올린다. 일본에 와 6개월 가까이 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집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 이야기도 상당히 할 수 있다. 고려 사람들이 일본어를 대단히 빨리 배운다고 사제들, 수도자들, 동숙들은 모두 놀라고 있다. 지금도 일본어로 말하고 있다.

집 부인 “카타리나, 처음으로 되는 크리스마스 심야 미사는 어때.”

카타리나 “갓난 아기 때의 예수님의 성상이 앞으로 지나갈어요. 귀여웠어. 부글부글 연할 것 같이 귀엽고 맛 있는 오른쪽 앞발이(오른쪽 앞발이라는 의미를 일본 말로 틀리게 하여 맛 있는 오른쪽 앞발이 되었음) 매우 인상 깊어요.” 카타리나의 무중에 빠진 말이었지만 집 사람들은 확 요절 복통해 웃어댄다. 오래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카타리나가 말하려는 의미는 갓난 아기 때의 예수님의 교차한 앞쪽으로 나온 오른쪽 다리였다.

밖으로부터 큰 소리가 들린다. 루이스다.

루이스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모두 대단히 기뻐하며 루이스를 마중하고 위로 안내하여 식탁으로 청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이 집에 와서부터 루이스는 여행의 틈 사이에 언제나 방문해 온다.

루이스 “즐거운 것 같네요.”

아이들 “그럼, 카타리나가 예수님의 맛 좋은 앞발이라고 했어요”

카타리나 “야. 그런 일 밝히면 안돼”

이 집 아이들과의 회화가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일본어 숙달을 더욱 빠르게 하였다. 아이들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늘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제일 큰 선생님이다. 루이스는 아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크게 웃었다.

5년전에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고 있다. 사교, 수도사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교회 수도원이 잇달아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이야말로 일본인 동숙들이 전국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에 이전보다 더욱 활약하고 있다. 그리하여 루이스도 아리마에는 대부분 있지 않는다. 루이스는 아리마의 출신으로 크리스찬 무사의 자제다. 우수한 아이였으므로 뽑혀서 세미나리요의 제 1 기생으로서 입학했다. 포르투갈어, 라틴어, 논리학, 철학, 신학을 힘껏 학습한 엘리트로 모든 사제에 시중을 들고 통역으로서 동행하였으며, 유명한 크리스찬 무장들과도 모두 친하게 접하고 있는 대단한 동숙이다. 먼 길도 짧은 시간에 갖다 오며, 길 없는 길도 헤매지 않고 찾아 다닌다. 변장의 달인으로서 이름도 무척 많이 갖고 있다. 마치 난자와 같은 존재이다. 예수회의 근거지인 아리마와 지방의 신자를 묶는 인간이다. 그 루이스가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처음으로부터 무엇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시스토와는 동갑이라고 알고 있다. 두 사람 모두 1570년생이며 카타리나는 1575년생이다. 또한 파도레와 파우로도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으며 젊은 두 부부는 내면적인 훌륭한 면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일가 알고 싶었다. 두 사람에 대한 흥미가 루이스를 이 두 사람과 친근하게 한다.

루이스는 웃고 있는 두 사람을 응시해 어제 금방 얻은 정보를 전한다.

루이스 “시스토, 카타리나. 너희들의 장래가 결정되었어. 이시미 은산이라는 곳이다. 매우 높은 값으로 팔렸다고 해.”

시스토 “우리들이 매우 높은 값으로 팔렸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뻐할 것인지 어쩔지. 무엇인가 가슴속이 뜨끔 해 납니다.” 루이스가 대답을 머무리는 중에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한다.

아이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어디로 가?” “싫어. 어디도 가지말아.” “아니,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가지 않아서 되지.” “부탁해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카타리나 “우리들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아이들 “싫다. 싫다. 왜 말할 수 없어.”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에게 매달려 두 사람을 때리며 울어 보낸다.

아이들 “안 간다고 말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저들이 전리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물건과 같이 매매하는 이 현실을. 카타리나는 아이들과 함께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가까워진 헤어짐을 슬퍼하는 것보다도 물건과 같이 판매된다고 하는 이 현실의 쇼크를 받는데 대해 비참히 생각한 것이다. 집 부인도 울고 있다. 눈물의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집 주인과 부인은 아이들을 시스토와 카타리나로부터 떼어내 다른 방에 데리고 간다. 아이들은 저쪽에서 울고 카타리나는 이쪽에서 울고 있다.

시스토 “루이스.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 들였으면 좋을 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매우 괴로워요. 자유를 잃은 신분이 깨달아진 것이.”

루이스 “시스토, 카타리나. 그 방법은 자신의 괴로움을 모두 예수님의 괴로움과 비교해 보며 예수님과 같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루이스는 실제 예를 들기 위해 잠시간 생각한 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루이스 “예수님은 은화 30장으로 팔렸어요.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화 30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요. 12사도의 한 사람인 유다·이스카리오테가 배신해서 적의 사제장들에게 이 값으로 팔아 버렸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걸렸던 것이요. 자기들이 노예와 같이 판매된 괴로움과 모욕감을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모욕감에 겹쳐 생각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같은 괴로움, 같은 모욕감, 막힘, 같은 운명, 같은 십자가에 걸리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저로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다. 이것을 살펴 보며 루이스는 또 말을 꺼낸다.

루이스 “또한 너희들은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요. 괴로움이나 모욕감은 절대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너희들의 령혼은 자유로운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자유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괴로움과 모욕감을 마지 못해 받아 들일 것인가? 괴로움과 모욕감을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해서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령혼속에는 언제나 남아 있는 것이요. 앓겠어. 십자가의 선 막대는 괴로움. 옆 막대는 모욕감이요.” 루이스는 파도레가 축복할 때와 같이 천천히 손을 세우고 다음으로는 옆으로 움직이며 십자를 그린다. 그리고 양팔을 펼치고 그것을 끌어안는 동작을 하면서

루이스 “이 십자가를 아주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한다.

지금 시스토는 스스로 스승의 대신이 왔던 것을 회상하고 있다.” 그렇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하였던 것이다. 괴로움과 모욕감, 이 십자가의 팬, 령혼의 싸움의 승리, 이것이다. 정말로 이것이다. “마음과 령혼에 큰 도움을 받은 시스토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카타리나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 큰 계시를 받았다. 같은 괴로움, 같은 십자가, 같은 운명을 남편과 서로 나누고 온 행복. 확실히 저로서 그것을 기대해

왔다. 자신에 있어서 더 이상의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 신부가 된 날 그러고 보니 이런 것을 느꼈던 것 일가. 지금 이것을 예수님에게. 신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던지 다 행복으로 바뀌워 진다. 카타리나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 오른다. '눈물의 크리스마스'. 일본에서 처음으로서의 크리스마 스를 두사람은 언제까지라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 날 두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의 빛이라는 위대한 선물이 주어졌으며 두 사람의 생애의 싸움의 방향을 정해 주셨던 것 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깨달음을 말로는 표달 할 수 없었다. 깊은 내적인 깨달음의 경우, 누구나 그 것을 잠시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시스토가 현실적 이야기를 꺼 낸다.

시스토 “우리들이 갈 길은 먼가요.”

루이스 “상당히 멀어요”

카타리나 “언제 가요. 세례는 어찌고.”

루이스 “봄에. 부활제에 세례를 받는 것이요. 파도레들은 고려인들이 세례를 받고서 출발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요.” 집 주인과 부인이 울음을 그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 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식사가 시작되었다.

1593년 봄이 왔다. 카타리나의 배가 부풀어 오른다. 아기를 임신한 것이다. 가슴도 몸 전체도 얼굴도 여자답고 어머니답게 변화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모성애도 자라 난다. 작은 것, 연약한 것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 타고난 성질의 동정심은 이 모성애에 따라 더욱 강해지고 있다.

세미나리오에서는 사순절에 들어서 세례의 준비가 본격화 되었다. 오늘부터 고려인들은 일요일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미사에 가 설교를 듣고 교리의 설명을 받는다. 오늘은 사순절 제일주의 월요일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일요일 외에도 아침 미사에 가는 처음의 날이다. 아리마의 어민과 농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다. 언제나 함께 일하는 집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울렁거리는 심정으로 세미나리오에 왔다. 미사의 복음은 마테오에 의한 성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까지이다. 라틴어로 읽은 후 파우로의 통역을 통해 파도레로부터 내용을 설명한다. “당신들이 나의 형제들 중의 가장 작은 어느 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나 예수에게 베푸는 것과 같다.” “우리 아버지에게 축복을 기도한 어린 양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을 위해 마련해진 나라를 찾으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해 주고, 목이 말랐을 때 마이게해 주고, 려행할 때 머물러 주게 하고, 알몸이 되었을 때 입혀주고, 병 들었을 때 문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보러 와 주었다.”

돌아가는 길에 카타리나는 매우 행복한 것 같다. 시스토의 손을 쥐고 함께 걷는다. 언제보다 전혀 다르다. 꼭 꼭 쥐여주는 움직임에 시스토가 묻는다.

시스토 “너, 무언가 있나. 기뻐하네. 굉장하.”

카타리나 “응, 당신. 나 지금 가슴이 불타고 있는 것 같이 뜨거워.”

시스토 “왜.”

카타리나 “나요. 예수님을 알면 알 수록 이렇게 좋은 하나님, 세계의 어디에 가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해 드리고 싶었지만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어. 저 아까 들었지요.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해 드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나, 드디어 예수님에게 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았어. 이제부터 아주 좋아하는 예수님에게 가득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 기뻐서 날아 갈 것 같아.”

시스토의 주변을 양손을 이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는 카타리나. 이로부터 카타리나의 희망은 바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봄이 되고 바다가 온화해져 고려로부터의 포로의 해상 수송이 다시 시작되어 아리마에도 작년의 저들과 같은 괴로움과 모욕감에 모대기며 희망을 버리고, 지치고 너털너털한 모습을 한 고려인 포로들이 새롭게 도착하기 시작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 사순절 사이 파도레로부터 예수님의 수난, 타계, 난처, 모욕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인 책형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또 루이스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 들려준다. 눈물의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일본의 크리스찬에 대하여 더 심해지고 있는 박해가 화제로 되었다. 그들로부터 가톨릭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월악산에서 부산까지 걸게 된 때는 부산우라와 동래, 상주와 충주에서 방위전이 벌어져서부터 얼마 안지난 때였다. 두 사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시체가 몇천이나 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훌륭한 복장을 한 무장의 시체에는 목이 없었고, 또 다른 목이 있는 시체는 모두 귀와 코가 낮게 깎아져 있었다. 죽은 후에까지도 받은 모욕. 걸으면서 두 사람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일본의 무사들이 자기들의 공훈의 증거로 일본에 보낸 것이다. 하지만 시스토는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용감한 그들을 매우 부럽게 생각하였다

지금, 시스토의 가슴에는 하나의 열망이 울러 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 사랑하는 조국, 고려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다. 동포인 고려인들을 위해 일 할 것을 시스토는 열망하고 있다. 또 새로운 고려인 포로들이 도착한다. 시스토는 가르쳐 드리고 카타리나는 위로해 드린다. 두사람의 자발적인 봉사가 시작되었다.

33-11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제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다른 많은 고려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 집 주인이 시스토의 대리 아버지, 부인은 카타리나의 대리 어머니이다.

파도레: “시스토. 에고. 테. 바푸티조. 인. 노미네. 빠토리스. 엷쯔. 피리. 엷쯔. 스피리토스. 산쿠데이.” 고려인 남성들 몇십명이 세례를 먼저 받는다.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차례이다.

파도레: “카타리나. 에고. 테. 바푸티조. 인. 노미네. 빠토리스. 엷쯔. 피리. 엷쯔. 스피리토스. 산쿠데이.” 여성들도 몇십명이나 된다. 카타리나는 감동끝에 울고 있다. 시스토라고 하는 이름과 카타리나 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두 사람의 정식 이름으로 되었다. 세례를 받기 전부터 성인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남 다른 두 사람이지만 오늘부터 서로를 너 나로 부르지 않고 시스토 카타리나라고 부를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세례의 은혜를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자고 돌이켜 약속했던 것이다. 미사가 끝나서 두 사람이 만난다.

시스토 “카타리나. 축하합니다.”

카타리나 “시스토. 당신도 축하합니다.” 이 때 두 사람은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시스토 “행복하네요, 카타리나.”

카타리나 “시스토 나 행복해서 울어. 하나님 고맙습니다.”

집 주인과 부인,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제가꿈 축하한다고 한다. 서로 기쁨을 나눈다. 그 다음 고려인 동지들간의 축하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많은 세례를 받은 고려인들 모두에게 차례로 인사하며 서로 기뻐한다. 루이스가 한 단락 지은 것을 보아 가까이 온다.

루이스 “시스토 카타리나, 축하합니다.”

시스토 “고맙습니다. 루이스.”

카타리나 “고맙습니다. 루이스.” 루이스는 높아 온 카타리나의 배에 시선을 돌린다.

루이스 “이 배안의 아기의 덕택으로 예정이 변경 된 것이요. 당신들은 이미 일 년간 여기에 있는 것이요. 이시미 은산에 가는 것은 내년의 봄으로 결정되었어요. 잘 됐네요. 모두.” 라고 말하고는 아이들의 머리를 짹짹 쳐 간다.

아이들 “야 좋다. 시스토도 카타리나와 또 같이 놀 수 있어” 복 새기며 아이들이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달라 붙는다. 기쁨에 쌓였다. 그리고 아리마에서의 새로운 일년은 루이스와 시스토 카타리나 부부의 우정을 더 한층 굳게 다지게 되었다.

33-12 '장남 루이스의 탄생'

1593년8월,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 아이다. 시스토와 똑같이 생겼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아이 이름을 지을 일과 대리 아버지를 찾을 일을 생각하고 있다. 가톨릭은 태어나면 곧 세례를 받는다. 그 때 부모의 대신에 갓난 아기를 안아 주는 사람이 대리 아버지 또는 대리 어머니이다. 그리고 대개 이름을 대리 아버지 또는 대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짓는다.

시스토 “카타리나, 루이스를 대리 아버지로 하자. 이 아이의 이름도 루이스로 하는 것이 좋아.”

카타리나 “우리들의 제일 좋은 친구이기에 그렇게 하는게 좋아.”

시스토 “루이스가 이번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 부탁하자.”

카타리나 “응, 그래.”

대리 아버지 또는 대리 어머니는 그 아이의 대리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아이의 가족과도 연을 끊지 못하는 관계가 된다. 루이스는 여행으로부터 곧 돌아왔다.

카타리나 “루이스. 갓난 아기를 안아줘요. 귀여워요.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떠 받쳐 앉으세요.” 루이스가 망설이면서 몹시 서투럽게 안는다.

루이스 “나는 무서운 것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갓난 아기는 상할 것 같아서 무서워, 어떻게 하나.” 정말로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작은 손가락이다. 열살 때부터 집을 떠나 세미나리요에서 남자들만의 단체생활을 해 왔던 루이스는 일반 가정에서 체험하는 일을 대부분 체험하지 못한 남자들만의 사회속에서 신앙과 두뇌와 몸을 단련하였고 지금은 박해를 한창 받으며 신앙의 싸움의 쓸쓸함과 목숨의 위험을 내 걸고 007인가 남자인가 되어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래 결혼할 생각은 없다. 동숙은 사제나 수도사와는 달리 결혼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시스토 “루이스님. 이 아이의 대리 아버지가 되어 주지 않겠어?”

카타리나 “루이스님. 부탁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우리들은 루이스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루이스 “응. 정말, 기쁘네.”

8월15일의 성모 승천 대축일.

아리마의 고려인들 모두로부터 축복받으며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갓난 아기는 대리 아버지인 루이스에게 안겨 세례를 받았다.

파도레 “루이스. 에고·테·바푸티조·인·노미네·빠토리스·엣즈·피리·엣즈·스피리토스·산쿠데이.” 올해에 작년보다 더욱 많은 고려인 포로들에게 시스토는 가르치고 카타리나는 위로해 왔지만, 다만 울고, 젖 빨고, 미소짓는 것 밖에 모르는 갓난 아기가 그들 모두에게 주는 희망은 매우 크다. 단지 한 인간의 존재임에 불구하고지만 고려인 모두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원은 이 갓난 아기인 루이스에게 있었던 것이다.

기쁨에 넘쳐나는 고려인들을 보고 파도레가 루이스에게 말한다.

파도레 “마치도 전도사 일가이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일년간 남아 주어서 정말로 도움을 받았어, 우리들은.”

루이스 “파도레. 나는 이 두사람에게 특별한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사람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두사람이 조국과 동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지는 훌륭하네요.”

파도레 “그리고 이 두사람은 겸손하고 단순하며 소박하고 바로 나가는 성질이네.”

파도레와 루이스는 고려인들의 축하와 기쁨속에 함께 쉴러 들어간다. 파도레가 루이스와 카타리나에 포옹과 키스를 준다. 그리고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파도레와 루이스에게 안내 되어 성대하게 꽃으로 꾸며진 A와 M의 조합 문자의 마리아님의 제단으로 향한다. 카타리나에게는 성수가 뿌려지고 초를 손에 쥐고 걸어 나간다.

카타리나 “정말로, 마리아님 고마워요.”

파도레가 루이스를 시자로서, 산후 어머니와 아이의 축복식을 거행해 주는 것이다. 초를 대 위에 세우고 갓난 아기를 안은 채 제단 앞에 꿇어앉은 카타리나. 시스토도 그 옆에 꿇어앉는다. 고려인들이 모두 뒤에 서 있다.

식이 끝났다. 파도레가 모두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통역은 시스토이다. 어느 때와도 같은 말.

파도레 “누구나 모두 마리아님의 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자신을 아직 젖 먹고 있는 작은 아이와 생각하며 마리아님을 자신의 참의 어머니로서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하여 마리아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로서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33-13 '1593년의 크리스마스 심야 미사'

1593년의 크리스마스의 심야 미사이다. 갓난 아기 루이스를 안은 카타리나를 배려하여 루이스가 시스토도 카타리나를 세미나리요의 성당의 현관 지붕 밑에 데리고 와 있다.

오늘 저녁도 또한 많은 고려인들이 세례를 받는다. 길고긴 미사 세미나리요에는 십 대의 아이들의 노래 소리가 들린다. 열려져 있는 성당의 문틈으로부터 초불이 흔들리는 제단이 보인다. 밖은 겨울의 밤이다. 그리고 빛나는 별. 현관의 처마 밑에서 젊은 부부가 작은 젖 먹는 아이를 안고 있다. 뭐라고 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오두막에 불러진 가난한 양들, 오늘 밤은 고려인 포로들이다. 카타리나가 속삭인다.

카타리나 “시스토, 나 작년의 크리스마스 와 전혀 느낌이 달라. 마리아님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매우 잘 알게 되었어.”

시스토 “그래. 나도 요제후님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매우 잘 알게 되었다.” 두사람은 갓난 아기 루이스를 응시한다.

카타리나 “파도레가 언제까지라도 겸손하고 천진하게 있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 시스토.”

시스토 “겸손하고 천진하게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기가 되어 준 것이네.”

카타리나 “나에게 이렇게 의지해 끝까지 이 아이가 살아 가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에게 끝까지 의지해 살아가고 싶어.”

시스토 “그리고 무엇이든지 끝까지 의지해 조용히 맡겨버리고 싶네, 나도.” 눈물의 크리스마스였던 최초의 크리스마스, 두사람은 괴로움과 욕보기를 신랑과 같은 운명에 맡겨 있는 것을 기뻐하는 신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며 바라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바로 령혼의 싸움의 승리인 것을 하나님과 비추어 생각해 깨달았던 것이다.

두번째의 크리스마스는 괴로움과 욕보기에 의해 겸손하고 천진하게 살어나갈 기초를 주었다. 연행 이래의 나날을 하나님은 “어린 아이노선”으로서 완성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날 강렬한 확신을 얻었으며 천진하고 아이답게 살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후 일생에 있어서도 떳떳하게 계속하게 된다.

기실 이로부터 아리마를 떠나면 시스토는 선생님, 카타리나는 선생님의 부인이라고 불러가는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사람은 이것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속에서도 두사람이 오만하지 않고 도리어 점차 스스로 겸손하게 되도록 훌륭한 배려로서 이 두사람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다.

33-14 '1594년 봄이 왔다'

1594년 봄이 왔다. 이시미 은산으로부터 한 역인이 왔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마중하러 온 것이다. 집 주인은 세미나리요의 파도레한테 알리러 가고 집 부인은 카타리나와 함께 여행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큰 아이가 갓난아기 루이스를 보고 작은 아이는 울고 있다.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울고 있다. 출발은 내일 아침이다. 월악산으로부터 연행되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할 겨를이 있었다. 이별의 저녁 식사를 만들기 위해 부인은 부엌에 내려 가고 카타리나는 발에 간다. “아버지의 마늘”을 파내서 가지고 가려는 것이다. 흠이 붙은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잠시 후 돌아 온 카타리나의 얼굴은 흠탕물로 시커멀게 되었다. 시스토가 슬픈 표정으로 그 얼굴을 보며 상냥하게 미소 짓는다.

시스토 “카타리나. 얼굴이 흠투성이요. 가득 운 것인가.”

카타리나 “응. 가득 울었어. 여기의 여러분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하고 ...”

시스토 “역인이 이시미 은산에는 지금 고려인은 없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로부터 정말 조국과도 동포들과도 헤어져 버리게 되었어.” 미처 오르는 감정 풍부한 정열가인 시스토는 아이와 같이 꾸밈없이 슬픔을 나타낸다. 조국이나 동포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는 것은 언제나 남자쪽이다. 여자에 비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도 낮다. 동포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고 하는 사실에 시스토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린다. 두사람은 마음가는 대로 슬피 운다.

하루밤 지나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세미나리요의 아침 미사에 갔다. 작년과 같이 세례의 준비를 시작한 고려인들이 모두 사순절에 들어서부터 아침 미사에 와 있다. 매주 좋아하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갓난아기 루이스가 오늘 떠난다고 하는 것을 듣고 다른 고려인들도 모두 다 왔다. 파도레의 교리의 설명은 돌연히 갓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제후님과 마리아님이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야기에 바뀌었다. 마리아님과 요제후님이 겪은 괴로움에 저들의 괴로움을 겹쳐 보세요. 마리아님 요제후님과 가깝게 된 것을 기뻐하세요 감사히 생각하세요 라고 파도레는 말한다. 시스토가 속삭인다.

시스토 “그래요. 괴로움과 욕보기. 이 십자가를 나는 매주 좋아해요.”

카타리나 “응. 이 십자가 나도 대단히 좋아해.”

미사후, 동포들과의 슬픈 헤어짐을 마치고 파도레와도 이별한다. 파도레는 힘껏 두사람을 포옹하고 키스 해준다. 그리고 갓난 아기 루이스의 이마에 엄지 손가락으로 십자를 쓰며 안아 올려 키스한다. 파도레 “시스토 카타리나, 지금 루이스는 여행에 가고 있지만 돌아오면 꼭 이시미 은산으로 가게 하지요. 당신들 일가의 신앙의 보살핌을 앞으로도 역시 루이스가 계속하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시스토 “아, 좋아. 루이스와 때때로 만날 수 있다면 안심입니다.”

파도레 “아무튼 루이스는 이 갓난아기의 대리 아버지요. 의무가 있으니깐. 자, 한번 더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파도레의 축복을 받고 일가는 집에 돌아간다. 식사를 하고 있으려니 어제의 역인이 왔다. 말을 끌고 왔다. 말등에 큰 철남비, 아버지의 마늘 자루, 그리고 세 사람의 얼마 안되는 신변 물건들이 태워진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대리 아버지, 대리 어머니 즉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이며 또한 실 생활에서도 부모와 같이 귀여워해 주시던 집 주인과 부인과의 이별, 작은 남동생과 여동생들과의 이별이다. 서로 두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서로 정이 있기에 친 가족과의 헤어짐과 같은 괴로움이다. 루이스와 카타리나는 역인에게 끌려 가고, 이렇게 하여 또 기나긴 여행이 시작되었다.

33-15 '간몬 해협을 건너다'

간몬 해협 앞의 여관이다. 내일은 배를 탄다. 밤이되었다. 아기 루이스가 울기 시작했다. 카타리나가 젓을 먹이기에 일어나고 아이 달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어머니에게서 배운 아이 달래는 노래이다. 카타리나의 목소리는 일본인의 목소리와는 다르고 조금 쉬고 낮은 목소리다. 시스토도 눈을 뜨고 카타리나의 아이 달래는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다. 젓을 먹고 배가 부르니 루이스는 또 잔다.

시스토 “카타리나. 조국이, 그립네.”

카타리나 “응.”

시스토 “돌아가고 싶네.”

카타리나 “응. 나 왼쪽 손에 우리들이 건너온 바다가 있었지. 그 저쪽에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걸으면서 생각한 것 있어.”

시스토 “뭘.”

카타리나 “이 바다가 갈라져서 조국에 걸어서 돌아 갈 수 있었으면 하고.”

시스토 “나도 그래, 바다의 맞은 편에 있는 조국만 생각하며 걷고 있었어. 이 며칠인가 그냥. 내일 배를 타면 그 배가 바람에 불려 고려까지 흘러가 주지 않을까 생각했어. 그러나 고려에는 또 침략군이 있고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 연행되고 있는 것이야. 아직 조국에는 돌아 갈 수 없어.”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침략군에 짓밟혀 있는 조국, 괴로움에 치 떨고 있는 조국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사람은 운다. 잠시 후 카타리나가 입을 벌린다.

카타리나 “시스토, 이 아이는 조국에 돌아 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돌아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조국을 보여 주었으면 싶어.”

시스토 “몰라. 그러나 카타리나, 희망과 꿈을 가지자. 이 아이일지, 이 아이의 아이일지, 어쨌든 우리들의 피를 잡은 아이가 언제인가 조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카타리나 “응. 꼭 그렇게 될거야.”

33-16 이와미 은산의 림 두목과 부인과의 만남

이시미 은산에 도착했다. 역인이 일가를 데리고 간 것은 당인 저택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집이 대단히 좋은데 놀라고 있다. 얼마 안되는 저들의 짐을 그 집에 운반하고 역인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역인 “시스토 선생님, 부인님. 여기에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집 부인을 데리고 올 테니까.”

시스토 “예, 알겠습니다.”

시스토도와 카타리나는 어리둥절 하여 망설이고 있다. 두사람 다 배가 고팠다. 카타리나는 아기 루이스를 달래며 바깥으로 나온다. 부인이 와서 큰 소리를 지른다.

부인 “여봐. 고려로부터 왔다면서.”

카타리나 “예 그래요.”

부인 “멀리에서 왔네. 바다 저쪽에으로부터 잘도 여기까지 견뎌 올 수 있었네, 정말. 아기까지 안고 대단하네. 나에게 맡겨 줘. 바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 이러면서 부인은 큰 손으로 카타리나의 등을 광 친다.

카타리나 “어마나” 카타리나는 아기를 안은 채 앞으로 달려진다.

부인 “그래. 여기에는 불량자, 악당 어떤 놈이든지 있기에 주위의 패거리들로부터 뭔가 있으면 나한테 곧 알려.” 시스토도 바깥에 나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부인 “고려로부터 온 선생님이요. 부인과 함께 왔어. 잠시동안 안착될 때까지 같이 식사를 해. 자 관찮으니까 함께 와.” 두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도 바로 못한 채 루이스를 앓고 부인의 뒤를 따라간다. 부인이 굉장한 큰 소리를 지른다.

부인 “여봐.” 림 주인과 부하들이 점심을 마친 때였다. 주인은 부하들에게 고향치고 있다.

림 주인 “어이 너들, 무얼 우물쭈물하는 거야. 기름 팔라고 했지, 빨리 일터로 돌아가. 빨리” 빨랑거리며 일터에 돌아가는 부하들도 있다. 아직 입에 담뱃대를 물고 있는 부하도 있다. 부인이 그것을 보고 빨리 달려 간다.

부인 “무엇 해 이놈. 담뱃대를 빨리 지워 버려.” 탕하고 그 부하의 머리를 부인이 후려 갈겼기에 담뱃대가 입으로부터 지면에 떨어진다. 저쪽에서는 또 부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림 주인 “너들. 또 그짓이나. 그만 두어.” 부하들은 모두 젊다. 활기에 넘치고 있다. 그리고 림 주인과 부인은 박력에 넘치고 있다. 지금 림 주인과 부인은 함께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향한다.

림 주인 “이 얼굴을 봐. 갓난 아기 데리고 온 것인가.” 돌연히 림 주인은 갓난아기 루이스의 얼굴을 들여다 본다. 루이스가 생글생글 웃는다.

림 주인 “나를 보고 웃어, 귀엽구나. 어이 너, 이 아기가 굉장히 귀엽지 않아?” 부인도 들여다 본다. 루이스가 또 생글생글 웃는다.

부인 “어쩌면. 이런 귀여운 아기 본 적 없네요. 선생님 부인님 조금 안겨 봐 줘.” 인사도 나누기 전에 아기다. 천사와 같이 웃는 미소, 꿈꾸는 것 같은 표정을 누구에게라도 보여 준다. 부인은 아기 루이스를 안고 흐든다.

시스토 “이 아이가 특별히 귀여운 건 없습니다.” 시스토가 매우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므로 림 주인과 부인은 움츠른다.

시스토 “하지만 고려의 아기들은 세계 제일 귀엽습니다.” 일순 침묵 후 림 주인이 큰 소리로 웃어댄다. 림 주인 “하 하 하! 좋아 좋아 참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선생님 나는 사실 중국 사람이요. 하야시 타로에이라고 부르지만 하야시라고 하는 것은 림이요, 림.” 이렇게 되어 순식간에 시스토는 림 주인의 마음에 들어버렸다. 나라가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도 조국에 대한 긍지를 당당하게 말한다. 또한 자기 자량은 하지 않는 이 젊은 부부, 뭐라할 수 없는 령훈의 주인이라고 림 주인은 생각하고 놀란다. 많은 젊

은이들을 돌보아 왔지만 이런 젊은 부부는 처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림 주인 “선생님, 부인님. 광산의 역인들은 별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요. 광산 주인들이라는 것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 관리 하고 있어요. 그 주인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실력이 있는 거요. 그러므로 역인 으로부터 선생님들의 부탁을 받은 것이요.”

림가 부부와 시스토 일가는 같이 림 주인의 집을 향해 걸어 간다.

33-17 '쯔시오야와 호리고'

일본의 광산에는 쯔시오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일본 사회의 야쿠자의 우두머리와 부하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우두머리는 쯔시오야라 하고 부하는 호리고 라고 불렀다. 쯔시오야의 명령은 절대적이다. 그 대신 쯔시오야는 진심으로 대리 부모처럼 호리고들의 일을 돌봐 주어야 되었다. 광산은 치외 법권이다. 망나니, 쓸모 없는 놈, 갈길 없는 놈, 밥줄이 끊어진 놈들이 도망쳐 와 누군가의 쯔시오야 밑에 무릎을 꿇고 빌고 들면 그 쯔시오야의 호리고로서 살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광부인 호리고는 대부분 30세도 안되어 진폐 등으로 죽어 버린다. 호리고는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생애를 마친다. 하지만 처자동반으로 도망쳐 온 사람이나 밥줄이 끊어져 도망쳐 온 자들에게는 처자가 있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림 주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림 주인 “내일 호리고의 장례식이 있는데 가볼래? 시스토 선생님.”

시스토 “갑시다.”

림 부인 “밥줄이 끊어져 도망해 온 사람이었기에 아내와 아이를 남기고 간 것이요.”

카타리나 “참 불쌍하네.” 림 주인과 부인은 한숨을 쉰다.

림 부인 “이렇게 모두 빨리 죽기에 꿈도 희망도 없어요.”

림 주인 “처자를 남기고 죽는 것이 정말 성불이요, 나참.”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다.

33-18 '참말의 신'

다음날 장례식이다. 처자가 매달려 울고 있지만, 그 처자보다도 더욱 울고 있는 것이 카타리나다. 죽은 호리고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다.

카타리나 “영, 영,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어. 영, 영, 부인과 아이는 어떻게 되나.” 카타리나의 가슴은 동정으로 터질것 같다. 감격해 어쩔수 없다. 아무튼 동정심이 풍부한 것이 카타리나의 특징이다. 죽은 젊은 호리고의 얼굴을 보고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 두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강렬한 체험이 플래시백 한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의 몇천이나 되는 얼굴, 귀와 코가 깎아진 얼굴이다. 천진난만한 젊은 얼굴이 많았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슬플 것일까? 자기들과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남겨진 아내들은 어떻게 한탄하고 있을 건가? 아이들은 얼마나 불쌍한 것일까?

눈앞에서 당신, 아버지하며 매달려 우는 처자의 모습에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동정과 비참으로 치가 떨린다. 인간이 가지는 사랑은 여러가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랑은 동정의 사랑이다. 그러나 단지 동정을 느끼는 것 만으로는 아무 것도 될 수 없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실제적인 인간, 행동적인 인간, 생각하면 말하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인간이다. 그 자연적 토대 위에 예수의 가르침이 또한 있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한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는 나 예수에게 베푸는 은혜이다.”라는 가르침이다.

시스토 “카타리나. 요제후님이 먼저 돌아 가서 슬퍼하는 마리아님과 예수에 대한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해 드리자. 역인에게서 받은 당면의 생활비가 있는 걸 쓰자.” 카타리나가 시스토의 손을 꼭 쥐다.

카타리나 “응. 시스토 고마워요. 나에게 맡기세요.”

이튿날 야채 장사가 오니 카타리나는 야채를 가득 샀다. 절반은 그 집 어머니와 아이 때문에 쓴 것이다. 그것을 안고 곧 그 어머니와 아이를 위로하러 출발한다. 우선 향하는 것은 림 주인의 집이다. 갓난 아기 루이스를 업고 양팔 가득 야채를 안고 기쁠 듯이 걸어간다.

카타리나 “안녕하십니까?”

림 주인 “올라와. 여봐. 선생님의 부인님이야.” 림 주인은 집에 있었다. 부인도 안 쪽으로부터 나온다.

림 부인 “자. 선생님의 부인님. 야채 많이 샀네요. 왜 이렇게.”

카타리나 “어제 본 어머니와 아이 집에 가져 가려고요. 주인님이 많이 보살펴 드리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나도 무엇인가 해 드릴려고.”

림 주인 “그건 참으로 기쁘지만... 선생님께서 현재 여기 누구네보다도 구차해. 아무 것도 가져 온 것 없이? 지금부터 이런 저런 가추지 않으면 안되실 건데. 정말”

카타리나 “시스토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림 주인 “잠간, 거기에 야채를 놓고 올라와. 이야기를 들어 보고 어찌자.”

카타리나는 말대로 위로 올라와 주인과 마주 향해 앉는다.

림 부인 “차를 드릴터니 아기를 방석 위에 내려 놓아요.” 부인은 차 준비를 시작한다.

림 주인 “금방 오셨지, 어제 처음으로 만난 어머니와 자식이 아닐가. 게다가 자기들은 가재를 조금도 가진 것 없이. 젓 먹는 아이에게도 인제부터 대단히 지출이 들건데. 왜 이렇게까지. 앓해도 돼.”

림 주인은 매우 성실히 따져 묻는다. 카타리나는 여자애와 같이 천진하게 대답한다.

카타리나 “나의 하나님은 제가 사람들로 부터 해 가졌으면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해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림 주인 “오. 사람들에게 해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당하기 싫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네.”

카타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림 주인 “오.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인가.”

카타리나 “그래요. 때문에 시스토와 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 주고 싶어요.”

림 주인 “정말 그래. 하지만 선생님의 부인님. 혹시 잊지나 않으셨나. 그 어머니와 자식은 일본인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나라를 해한 나라의 인간이요. 그래도 좋은 것인가.”

림 주인은 카타리나를 시도하고 카타리나의 하나님을 시도하기 위한 질문을 부딪쳐 왔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전혀 꾸밈없이 천진하게 대답한다.

카타리나 “나의 하나님은 저의 적을 사랑하세요. 박해를 해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원하고, 축복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이상 림 주인은 카타리나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돌연히 림 주인이 림 부인을 향해 말한다.

림 주인 “어이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인의 하나님이야 말로 참말의 신이다. 나는 이제 금방 신을 바꾼다. 너도 바꿔.”

이렇게 되니 카타리나도 아연해 졌다. 림 부인도 눈을 둥글게 뜨고 놀라한다.

림 주인 “나는 지금 호리고 애들한테 갖다 와. 그 애들도 신을 바꾸게끔 한다 바뚜게 해.”

림 주인은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남겨 놓고 나가 버린다. 카타리나는 멍해 졌다.. 림 부인은 카타리나 앞에 차를 부으며 말한다.

림 부인 “쯔이오야들은 네, 귀여워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30도 못되어 사망해 가기에 곳없이 장례식만 하고 있는 것이요. 정말로 구해 주는 신이 있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요.”

33-19 '시스토 학원'

카타리나 “저. 그럼, 나. 이 야채를 그 어머니와 아이에게 가져 다 줘도 좋을가요.”

림 부인 “물론이요. 고맙네요. 선생님 부인.”

림 주인은 정말로 림 주인 일가 모두에게 신을 바꿀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어떤 신인가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한다. 정련 부문에서 높은 화로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시스토한테 림 주인이 찾아 왔다. 시스토에게 말을 건다.

림 주인 “시스토 선생님. 일중에 미안하지만 조금 상담이 있어서 왔는데.”

시스토 “에, 림 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림 주인 “우리들, 림 일가는 모두 부처를 시스토 선생님과 선생님의 부인이 믿는 신으로 바꾸기로 정했수다. 그래서 시스토 선생님께서 신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을까요?”

시스토 “에, 정말입니까.” 시스토는 놀라한다. 무슨 일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림 주인이 카타리나와 나눈 이야기를 듣고 알아 차렸다.

시스토 “알겠습니다. 림 주인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력을 다해 모두 가르쳐 드리지요. 또한 이제 곧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방문해 오실 것입니다. 그이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이가 왔을 때 무엇이든지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세례도 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에 그가 오실때 모두가 세례를 받게끔 하지요. 오늘부터 매일 저녁 가르칩시다. 괜찮을까요?”

림 주인은 아직 세례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참으로의 신에 대해 진지하게 듣고 싶어 한다.

림 주인 “세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매일 저녁 술 마시러 가지 말고, 여자 사러 가지 말고, 도박 하러 가지 말고 시스토 선생님의 학원으로 가라고 알려 놓겠습니다.”

이리 하여 루이스가 오면 세례를 받자고 림 주인 일가 모두가 욱스럽게 시스토 선생님을 따라 배우려고 그 날로부터 “림 주인 일가의 시스토 학원”을 시작하였다.

33-20 '당인 저택에서 루이스와 재회'

당인저택에 루이스가 왔다. 상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카타리나는 매우 기뻐한다. 열심히 말하고 있다. 루이스와 최후로 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하고 오늘 저녁에도 있었던 "림 주인 일가의 시스토 학원"의 일까지 루이스가 말할 틈도 없이 단숨에 말한다.

루이스는 가만히 듣고 있다. 머리를 두 분할해 듣고 있다. 절반은 카타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절반은.... 이 당인 저택으로 올라 올때 본 일을 회상한다. 대낮부터 붐비고 있는 기슭의 마을. 유녀와 자는 가게, 도박을 노는 장소, 술집, 구경거리 오두막집, 극장들, 이런 것들이 처마를 늘어서 어디나 대 성황이다. 놀고 있는 젊은이들은 망나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림 주인 일가 역시 휴일에는 모두 이렇게 여자를 사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노는 패거리임이 틀림 없다. 이 승리는 참으로 크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 사람의 작은 애와 같은 녀성이 간단히 떨어뜨린 것이다. 오, 하나님이요. 그대는 도대체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까? 이와같이 치 떨리는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카타리나 "루이스님. 나는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매우 좋아 합니다."

그날 밤, 드디어 시스토와 루이스 그리고 림 주인 세 남자가 모였다. 31년 후 함께 목 잘려 순교하는 세 남자이다. '림 일가의 시스토 학원'의 선생님이 된 루이스가 생각한 대로 림 일가는 이런 저런 망나니들이 빠짐없이 모인 패거리였다. 학습이 끝나고 호리고들이 돌아간 뒤 림 부인은 술 준비를 하고 있다. 카타리나도 돕고 있다. 아기 루이스는 카타리나의 등에서 귀엽게 자고 있다.

림 주인 "루이스씨는 상인입니까?"

루이스 "아닙니다. 나는 동숙입니다. 파도레나 수도사들을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림 주인 "에. 그럼,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 가요?"

루이스 "달라요. 무사 집 태생입니다."

림 주인 "오. 잘 변장하는 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 힘든 가요?"

루이스 "그렇습니다."

림 주인 "오, 방문 온 것인가. 무사의 집 태생이라면 원래 이름이 있을 것인데.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물론 세상에 밝히면 안될 이름 일 것이지만."

루이스 "오마치 로구사에몬입니다." 옆에서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깜짝 놀라 듣고 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 본다. 두 사람의 입술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발성은 하지 않았지만 "오마치 로구사에몬"라고 외운다. 처음으로 루이스가 루이스 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안 것이다.

림 주인 "정말이네. 오마치 로구사에몬인가. 루이스씨. 다음번 여기로 오실 때에는 상인의 변장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나의 호리고라고 증명을 낼 테니깐. 이것만 있으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요. 류규에나 마쯔마에에나 어디까지라도 갈 수 있지요. 관공서에도 일 없이 다녀 올 수 있는 거야. 오마치 로구사에몬이라고 하면 안돼. 그러나 근심할 것 없어. 우리 집 호리고들도 세상에 나가면 붙잡히는 놈들 뿐이야. 내가 이런 저런 많은 이름을 만들어 증명을 써 내는 거요. 나는 가명을 생각하는 천재요. 하 하 하! 재미있는 이야기지요? 좋아! 오마치 로구사에몬이 아니고 마노이 로구사에몬이라고 해, 멋진 이름이지. 하 하 하!"

림 주인은 대륙 사람이다. 섬 나라인 일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호쾌하고 너그럽다. 그리고 외교적 재능이 뛰어나 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대단한 재능을 보이고 있으며 무슨 일이나 잘 해 낸다.

흥정 거래는 나에게 말기라고 하는 사람이다.

림 주인 "그래. 시스토 선생님에게도 선생님과 잘 어울리는 이름을 만들어 드릴가요. 경사로운 이름을 붙혀 드리지요. 경사로운 글자인 요시사에몬 선생님. 좋은 이름이지요."

33-22 ‘로구사에몬’

기뻐하고 있는 림 주인. 림 부인과 카타리나도 매우 기뻐한다. 새 이름보다도 카타리나는 ‘로구사에몬’이라는 이름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카타리나 “이찌, 니, 산, 시, 고, 로구라고 하는 로구사에몬이지요.”

루이스 “그래요. 이찌, 니, 산, 시, 고, 로구라고 하는 로구사에몬이요.”

카타리나 “아 재미있어. 저, 이제부터 나 루이스님을 로구사에몬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루이스 “그럼, 좋고 말고. 그렇게 하시지요. 로구사에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카타리나 “그래요. 무언가, 입 속에서 사이고로가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애.”

모두 “에!” 모두 입 딱 벌리고 말 못 한다. 그리고는 폭소한다.

로구사에몬 “사이고로의 로구사에몬인가? 괜찮아. 여기에서는 나는 로구사에몬이다. 림가 일가의 호리고들의 로구사에몬. 더 부르면 사이고로의 로구사에몬이다.”

33-23 '시스토의 커다란 구상'

당인 저택에 돌아 왔다. 초롱을 끄고 카타리나는 아기 루이스를 잠 달란다.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은 이미 술이 깨기 시작하였다. 시스토가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다.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앉아 주시겠습니까?” 로구사에몬은 시스토와 마주 앉는다.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구사에몬 “응. 망나니들 같은 림가 일가가 집단으로 개심하다니, 상상도 못하겠네. 이게 정말이라면 이야말로 기적이네. 하나님의 대승리이다. 너희들은 대단해.”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그런 것은 아니요. 또한 우리들은 별 다를 것도 없지요. 우리들은 아무도 한 것이 없어요. 모두 하남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로구사에몬 “그런 것이 아니라... . 저 생기 팔팔한 젊은 망나니들이 유녀와 같이 자는 것을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정말 걱정이요.”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그런 일이 아니요. 게다가 유녀와 자는 것을 그만 둘 수 있을지 말지를 걱정하시는 것보다 독신인 호리고들에게 림 주인과 같이 결혼해 아내를 가지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로구사에몬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자신은 생애 끝까지 독신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일체 성욕을 금지 하고 싸우고 있지만, 림가 일가의 호리고들이 이런 힘든 내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겠는가 걱정하였지만 시스토의 답변은 이렇게도 자연스럽고 명쾌한 것이다.

로구사에몬 “에, 시스토. 당신은 정말로 곧장 단순히 생각하는 성질이네. 그래, 정말이야. 성인인 파우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음, 그렇지 않다고 하는건 림 주인이 써 낸 증명서 뿐일가. 매우 도움이 되네. 참말로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요.”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구사에몬님은 내 이름이 시스토이기 때문에 시스토2세의 이야기를 들려 주시고, 지금 크리스찬에 대해 날마다 더 해 지는 박해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 주셨어요. 나는 카타콘부를 일본의 광산에 만들 수 있지 아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시스토의 얼굴은 점점 더 진지해진다. 로구사에몬은 순식간에 이 말에 반응하여 몸을 앞으로 가는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

로구사에몬 “월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시스토 “그래요, 림가 일가의 호리고들은 모두 여기에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안전해요. 역인은 여기까지 쫓아 올 수 없어요.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만약 쫓길 때에는 여기로 도망쳐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녁 로구사에몬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림 주인이 내준 손장을 가지고 어디에나 다 갈 수 있다면 파도레나 수도사나 다른 동숙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는 나라 안의 광산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요사이 광산 우두머리가 사망한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호리고들이 나라 안의 전체 광산에 서로 알려 북쪽 한 끝과 남쪽 한 끝으로부터도 다 모여 와 큰 장례식을 올린 것이요. 그리고 또 최근 큰 사고가 일어난 광산에서는 살아 남은 가족들에게 의연금을 모집하기에 그 집 우두머리의 호리고가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여기 모두들도 협력했지요. 게다가, 어디에서 새로운 광산이 열린다든가, 어디의 광산에서 새로 광맥이 발견되었다든가, 어디의 광산은 지금 한창이다든가, 이미 약해진다든가, 자세한 정보를 모두 전해 오는 것이요. 그리고 광산으로부터 광산에 옮겨지는 것도 자유스럽고 약해진 광산으로부터 한창인 광산에 잘 이동 해 가는 것이요. 로구사에몬님, 이 시스템이 크리스찬에게도 이용 될 수 없을 가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시스토는 열겹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에 타 오르고 있다. 로구사에몬은 크게 수긍

하면서 듣고 있다.

시스토 “로구사에몬님, 이 시스템을 크리스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광산에 크리스찬의 우두머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요.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일본중의 모든 광산에 한 사람씩이라도 크리스찬 우두머리가 있으면 일본중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지하 교회가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시스토의 거대한 구상을 들으며 로구사에몬은 머리가 핑크가 된다. 광산의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아 듣지 못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시스토 “그 다음으로 어떨하면 일본중의 광산에 크리스찬 우두머리를 생기게 하는가 하는 것이요. 이걸 내 생각인데, 이와미 은산은 일본 중 제일 좋은 광산이고 하는 일도 제일 선단적인거요. 거기에 가장 중심적 우두머리인 림 주인이 호리고와 함께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요. 호리고들은 기술과 지식 상에서는 훌륭해요. 그러므로 림 주인에게 호리고들을 우두머리로 길러 내게 하는 것이요. 되는 사람 부터 잇달아 우두머리로 임명하여 다른 광산에 보내는 것이요. 이 크리스찬 우두머리는 또 거기에서 호리고들을 크리스찬에 개심시켜 그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배워 주고 배양 해 내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 기하 급수적으로 크리스찬 우두머리가 늘어나지 않을가요. 어때요 로구사에몬님?”

로구사에몬 “응. 대단해. 림 주인으로부터 더욱 상세하게 광산의 일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지요.” 로구사에몬은 감격하여 겨우 이렇게 말한다.

33-24 '예수라고 하시는 주인님'

그 다음날 로구사에몬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는 이틀채이다. 시스토의 강습이 끝나고 어제와 같이 또 술이 나오니 로구사에몬은 림가 주인에게 광산의 제도, 우두머리 제도, 그리고 다른 광산과의 연결 방법 등 많은 질문을 했다. 시스토가 말한 대로였다. 정말로 림가 일가에게 세례를 하사해 협력하게 하고 시간만 길게 되면 일본중의 광산을 네트워크하는 지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림 주인님에게 어제 이야기를 해 드리지 않을까?”

시스토 “그러지요. 림 주인님 나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림 주인 “무슨 일입니까. 거리낌 없이 이야기 하십시오.”

시스토는 어제도 이야기 하였고 또한 오늘 저녁 림 주인으로부터 더욱 자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열정에 차서 자신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다. 그 열정적인 이야기에 림 부인도 카타리나도 끌려 들어가 술을 붓는 것도 물고기를 내는 것도 잃어 버리고 함께 듣는다.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림 주인은 손을 눈턱으로 가져 간다. 모두 놀랍게 림 주인을 바라 본다. 림 주인이 운다. 왜 우는 것일까, 모두들 모르고 잠시동안 침묵이 흐른다. 드디어 림 주인이 입을 떼는다.

림 주인 “나는 기뻐서 우는 것이요. 고마워. 나에게 있어서 괴로운 일은 그 호리고들이요. 이 애들이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로 하나 하나 죽어 가는 것이요. 그 애들이 그냥 갱도에 들어가면 그런 젊은 나이에 한 십년 살다가 죽어 버리지. 우두머리가 되면 갱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 더 살 수 있어. 결혼하면 제 아이들도 기를 수 있지. 그 애들은 이 세상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호리고가 되면 그냥 몇년 하다가 죽어 버리지. 돈을 벌어서 놓아도 남겨 줄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기생들과 같이 놀고 술과 도박을 해. 극락 왕생의 희망 또 네. 시스토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넣어 주신다고 하지요. 이래 저래 그 애들에게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거요.”

림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림 부인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한다. 카타리나도 따라서 울고 있다.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은 림 주인이 이럴 정도로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해 감동하여 눈 시울이 뜨거워 진다. 얼마나 좋은 주인인가. 그 다음날, 로구사에몬의 교리 설명의 세번째 날이다. 림가 일가 전체에 시스토의 계획이 전해졌다. 호리고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뒤를 이어 림 주인이 대 연설을 한다.

림 주인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 하나님은 제자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고 책형되어 주시는 주인이야 그렇지 않아. 이런 좋은 주인에게 더욱 시중 드려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게다가 이 주인은 자신에게 시중 든 제자들을 천국에 넣어 주신다고 하는 거야. 주인님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것이야. 이런 주인님을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뻐서 목숨을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닐까. 모두 알겠나?” 림가 일가 전체가 일어난다. 아주 큰 소리를 내 지른다. 림가 일가 전체 “야..., 야..., 야...! 해봐..., 해봐..., 해봐...!”

로구사에몬도 시스토도 멍해 보고 있다. 그들은 확실히 대단히 기뻐하고 정열에 타 있다. 자신들의 공허한 인생이 돌연 값 있는 인생으로 바뀌워 질듯 하게 된 것이다. 젊은 바이탈리티로 이 길을 돌진하자고 분발한 호리고들의 외침에 드디어 위대한 기적이 시작된 것이라고 시스토도 로구사에몬도 느꼈다. 로구사에몬이 시스토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인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기실 로마 시대의 박해 때에도 세례 준비중의 사람들과 세례를 받은 직후의 사람들이 제일 훌륭하게 일한 것이요. 당신과 카타리나는 세례를 받아 얼마 안되고 또한 림가 일가는 세례 준비중의 사람들이요. 역사가 중복되는 것이요.”

33-25 '굳은 술잔'

역사는 확실히 반복되고 있었다. 예수가 복음을 선교한 30몇년 후 크리스트 교도는 로마 황제 네로의 큰 박해를 받았다. 얼마 안 되는 남녀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단지 30몇년으로서 로마 황제를 겁 떨어 할 만한 많은 신도로 발전 되었던 것이다. 같은 일이 일본 중의 광산에서 망나니들의 세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단지 30년후 제3대의 장군으로서 새로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일본 중의 광산에 박해를 처음 할 때 각 번은 광산 우두머리나 산 스승들 그리고 많은 인수의 호리고들이 모두 크리스찬이 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우두머리나 산 스승들은 몇년 되는 오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광산 우두머리는 광산에서의 모든 부문의 일을 잘 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제자인 호리고들을 돌보아 주고 통합시키는 역량과 인격도 필요하다. 급시에는 절대 되지 못한다. 이런 그들 중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을 때 박해자들은 무엇이 원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프로중의 프로인 우두머리나 산 스승들이 없이는 광산이 성립되지 못한다. 원내은산도 그때 국가노가 에도가에게 “원내은산의 크리스찬을 남김 없이 붙잡으면 산이 패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후의 전대 미문의 사실도 있었다.

일본의 광산은 치외 법권이다. 누가 나라를 지배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법률을 정하던지 광산과는 관계 없다. 자기들의 규칙에 의해 자기로서 지배하고 있는것이다. 광산 역인들 혹은 지배하는 번이 바뀌움에 따라 아래 사람을 바꾸는 일도 있다는 그 정도일 뿐이었다. 그 이상의 영향은 없다. 즉 일본 국내에 또 하나 다른 나라가 있는 것과 같다. 단지 그 나라는 망나니들이 만든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 망나니들 중에 30년도 안 되는 동안에 폭발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한 참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대 미문의 일이다. 또한 그 망나니들이었던 크리스찬들이 후년 품행이 단정한 크리스찬들로 되어 박해를 받아 도망한 크리스찬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를 갖추어 주었던 것, 이 역시 전대 미문의 일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로부터 달려진 불이 왜 망나니들이었던 그들속에서 간단히 점화해 그리고 급속히 펼쳐졌는가 하는 사실은 림 주인과 모든 광산 우두머리들의 생각에 따라 그 원인이 밝혀진다. 그들의 생각은 또한 모든 우두머리와 호리고들의 공통의 생각인 것이다. 즉 예수는 그들에 있어 찬양할만한 신이고 주인이며 예수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 세상 그리고 저 세상에 있어서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망나니들을 이렇게 까지 받들어 중요한 사명을 주신 일 역시 역사상 처음인 것이었다.

드디어 오늘은 림가 일가 전체가 로구사에몬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날이다. 사제가 아닌 로구사에몬이 하는 세례는 물을 이마에 세번 뿌리면시 “우리 아버지와 아이와 성령에만 따라 난을 씻으라.”고 하는 것 뿐이었다. 남성에게는 시스토가 대리 아버지 여성에게는 카타리나가 대리 어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 전체에게 세례명이 필요하였다. 로구사에몬은 남녀의 인수 분 종이 한장씩에 달리 달리 이름을 써서 게임 카드 뽑기 식으로 모두에게 뽑게 했다. 그러니 림 주인에게는 “요아킴”, 림 부인에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모두의 세례명이 결정되어 드디어 세례식이 시작된다. 림 주인이 이것으로 하자고 가져 온 것이 호리고들이 주인에게 죠신을 해 왔을 때 집 주인과 주고 받는 “굳은 술잔”으로 쓰는 술잔이다. 이것으로 호리고들은 림 주인과 장래의 약속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큰 조롱박에는 물이 가득 차 있다. 이 조롱박으로 물을 술잔에 쏟고 그것으로 세례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웃을 일은 아니다. 림 주인은 생애에 가장 참한 심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진지하고 위엄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아마 무사가 배를 가를 때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림 주인을 응시하면서 로구사에몬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로구사에몬 또한 같은 얼굴을 하고 그 술잔과 조롱박을 받아 든다. 림 주인이 림가 일가의 전체에 향해 큰 소리를 지른다.

림 주인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받는 세례를 예수님과의 ‘굳은 술잔’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내 바칠

각오로서 받아라. 알았어”

모두 “예...!”

이렇게 하여 그들 모두는 참된 결의와 진지심을 갖고 세례를 받았다. 림 주인의 훌륭한 착상, 즉 우두머리와 제자의 ‘굳은 술잔’과 물을 넣은 조롱박을 이용하는 이 세례식은 이후 광산에서 우두머리와 호리고들이 일가 모두가 개심 세례를 받을 때, 로구사에몬이 항상 이용하는 방식이 되었다. 림 주인이 숙련된 우수한 호리고들을 특별 훈련 시켜 일년에 한사람씩 우두머리로 하여 습명 하고, 연수를 곱하면 큰 일을 성사한다고 하는 계산은 이와미 은산 안과 밖에서 많은 차가 생겼으며 게다가 기뻐 할만한 오산으로 바뀌워 버린다.

33-26 '스케일업'

이와미 은산 중에 중심적 우두머리인 린타로 우에몬와 그 일가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널리 알려져 특히 우두머리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어디로 가도 이 이야기이다. 린가 일가 모두가 역시 자신들의 새로운 기쁨과 희망 사는 보람에 대해 침묵 할수 없었다. 진리나 구원을 원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이야기에 기뻐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와미 은산 전체가 크리스찬에 대한 개심의 물결에 끌려 들어갔다. 세상에는 금교령을 내려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 없었다. 게다가 세상에는 불교 또는 신도의 친척들 혹은 부모 형제가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의 망나니들은 그러한 속박을 여기로 들어 오기전부터 전혀 끊어 버린 자들이다. 누구에게도 체면 없는 자들이다. 악한 일을 할 때와 같이 선한 일을 할 때도 체면을 모른다. 또한 그들 일에 간섭하는 자들도 없다. 우두머리들도 그들이 크리스찬이 되던 안되던 강박하지 않고 또한 우두머리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 경우에는 호리고 전체에 크리스찬이 되도록 명한다. 이렇게 하여 일가 모두가 개심이 되고 다른 우두머리들에게도 연쇄반응이 되어 다음 다음으로 이어 나간다. 시스토는 지금이야말로 대장과 같은 커다란 존재가 되었다. 다른 일가에게도 린가 일가와 같이 가르치고 크리스찬 지하 교회를 나라 안의 광산에 펼치는 전략을 하사하고 실행시키는 지휘관이 되었다. 로구사에몬도 빈번히 이시미 은산을 방문하여 가르치고 세례를 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린가 일가만으로서 스타트한 시나리오는 많은 우두머리와 그 일가가 모두 개심하는 것으로 발전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의 우두머리가 계획보다 몇 십배나 빠른 스피드로 탄생해 나가게 된 것이다. 또한 산 스승들로부터도 많은 크리스찬이 나오게 되었다.

33-27 '조국을 위해'

이시미 은산의 밖에서 되어진 기쁜 오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토가 만든 고려식 화로의 대 성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련 부문의 사람들은 “훌륭하다.”하며 칭찬을 멈추지 못한다. 그리고 훌륭하다는 소문은 광산중에 순식간에 널리 퍼졌다. 모리씨의 역인이 그 훌륭함에 매우 기뻐한다. 그리고 시스토를 다른 광산에도 고려식 화로를 만들게끔 지도하기 위해 모리씨가 지배하는 광산에 파견하기로 정했다. 물론 대규모인 화로의 건설에는 장기의 체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움을 위한 정련 부문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시스토는 파견 될 때마다 제자들이나 동숙이나 전도사들을 불러서 같이 다닌다. 마치 크리스찬의 교리의 집중 강의로 가는 것과 같다.

낮에는 화로를 만드는 일을 지도하고 밤에는 예와 같이 '시스토 학원'이 시작된다. 시스토의 대차륜의 활약이 계속되어 고려식 화로도 크리스찬의 가르침도 모리씨가 지배하는 다른 광산으로 널리 퍼져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일본 나라중의 광산을 네트워크하는 지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이 새로 임명된 크리스찬 우두머리나 산 스승, 그리고 호리고들에게 전해졌다. 시스토의 최초의 계획은 소규모로서 긴 시간을 걸쳐 지하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마치도 능력이 높은 고려식 화로와 같이 대규모 또한 높은 능률로 지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되어 지는 것이었다.

시스토는 젊다. 1594년 24세로 일본의 광산에서 지하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그는 25세, 26세로 계속해, 낮에는 정련 그리고 밤에는 크리스찬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체력의 한계를 넘어 하는 일은 그의 강한 의지에 의해 지속되고 있었다. 그의 의지력의 유지는 로구사에몬이 오는 때마다 전해 주는 조국의 고려에 대한 정보였다. 로구사에몬은 크리스찬 무사들과 연행되어 오는 포로들 양쪽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와 스토와 카타리나에 알려 주었던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국이 살아 있었다. 유린되어 있는 조국과 함께 두사람은 언제나 괴로워지는 것이었다. 로구사에몬이 알려 주는 내용에는 고려 서민이나 농민이 의병이 되어 히데요시의 침략군을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토는 “그래, 내 조국아. 아, 나의 고려야. 계속 싸우고 있구나. 계속 싸워 줘. 이겨 줘.”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가슴이 조려지고 또한 괴로워진다.

듣는 때마다 그렇다. 그리고는 '나도 계속해 싸우자' 라고 하는 조국의 적, 하나님의 나라의 적인 히데요시와 조국과 함께 조국의 의병과 함께 싸울 의식이 강화되고 몸에 채찍질하며 내일부터 더욱 많이 일하자고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이었다.

33-28 “26명의 성인”

1597 년이 되었다. 로구사에몬이 왔다. 언제와 모양이 다르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정련 부문에서 지도중에 있는 시스토한테로 찾아 와 시스토를 부른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큰 일이 생겼다. 파레도 수도사 그리고 신자 24명이 붙잡혀 나가사키로 끌려가 책형이 된다고 한다. 지금 세토나이카이에 따라 걸고 있다. 너의 나라 사람도 세 명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뒤에 따라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온 사람들이야. 지금부터 오노미치를 향해 마중 가면 그들과 만날 수 있어. 카타리나는 림 주인 집에 가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곧 가지요. 24명 중에는 중국인인 아버지와 남자아이 하나 있다고 하오.” 시스토는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꺼꾸로 오르는 것 같다. 동포가, 또한 같이 연행되어 온 크리스찬이 순교되는 것이다. 인차 제자들에게 뒷 일을 맡기고 로구사에몬과 함께 림 주인의 집으로 향했다. 림 주인은 림 부인을 부르러 가고 있다. 주인의 집에 도착하니 세살 된 루이스를 안은 카타리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카타리나는 시스토를 보자 울기 시작했다. 로구사에몬이 인차 루이스를 받아 안고 시스토는 아무 말 없이 카타리나를 포옹한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른다.

시스토 “괜찮어.”

카타리나 “시스토. 시스토. 시스토.... 지독해요 지독해...”

시스토 “지독하다. 그래 정말 지독하다.”

두사람에게는 같은 연행의 체험이 있다. 가족도 벗도 조국도 빼앗긴 슬픔이 되살아난다. 혹시 지금 죽음을 당하려 하고 있는 세 사람은 조국에 있는 가족이나 벗도 죽었을지 모른다. 그들도 죽음의 공포를 맛 보았을 것이다. 황폐한 조국과 많은 동포들이 죽음에 직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진 모욕과 연행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이국의 땅에까지 끌려 다니며 책형에 처하고 목을 베어 버린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순교자들과는 전혀 다른 5년간을 보내 왔다는 것을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하므로 더욱 만나고 싶다. 만나서 단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들려 주고 싶다. 조국의 고려의 말로. 림 주인과 부인이 왔다. 주인은 루이스의 아기를 안고 있는 로구사에몬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림 두목 “중국인도 있는 것인가? 남자아이인가? “루이스의 아기가 놀라 울어 대기에 림 부인이 로구사에몬으로부터 아기를 받아 안는다.

로구사에몬 “그래요. 남자 아이가 세 명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요. 다른 한 아이는 고려인이고, 나머지 한 아이는 일본인이요.” 카타리나가 비명을 올린다.

카타리나 “어마나. 고려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아이인가요.”

로구사에몬 “그래요. 세 사람 중, 제일 어린 아이가 고려인이라고 해요.”

림 두목 “너, 인차 준비해. 겨울에 산을 넘는 준비다. 나는 말을 준비하니깐.”모두 황당히 여행 준비를 시작한다. 시간이 박해 온다.

33-29 '루도비코 이바라키와 만나다'

시스토티와 카타리나와 루이스, 그리고 로구사예문과 림 주인과 림 부인은 시간 맞게 목적지에 도착 되었다. 1월19일 그들은 오노미치에서 순교자들과 만날 수 있었다. 한 겨울인데도 한겹의 옷 그리고 맨 발이다. 발은 부어 올라 출혈하고 있다. 옷은 피에 많이 젖어 있다. 왼쪽 귀가 베어져 흐르는 피다. 로구사예문은 예수회의 세 동료에게 달려 간다. 파울로 미키, 요하네 고토, 디에고기사이다. 아이들 셋이 함께 걷고 있다. 제일 작은 아이에게 시스토티와 카타리나가 고려 말로 말을 건다. 루도비코 이바라키다. 루도비코가 기쁠 듯이 부른다.

루도비코 "아버지, 아저씨, 고려 사람들이예요."

림 주인은 중국인의 남자 아이인 안토니오가 중국 말로 대답하기에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시간에는 역인의 우두머리가 이야기 하는 것을 눈 감아 주고 있었다. 루도비코의 소리에 그 애의 아버지인 파울로 이바라키와 백부인 레오 가라스마가 고려 말로 대답한다. 그러나 멈춰 설 수는 없다.

33-30 며 시스토가 말을 짜낸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신음하기 시작하였다. 카타리나는 북받쳐 오르는 울먹임에 한쪽 손을 입에 댄다. 위안의 말도 격려의 말도 아무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흐느끼 시스토 “우리들도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온 것이요. 우리들도 크리스찬이요.” 카타리나는 울음에 쓰러질 것 같다.

카타리나 “하나님 맏시사” 루도비코가 순진하고 쾌활하게 대답한다.

루도비코 “아저씨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은 십자가에 붙여지고 양쪽으로 창으로 찢어져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해 죽기로 결심하고 있어요.”

파우로 이바라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 부친답게 파우로 이바라키가 보충한다.

루도비코 “응. 하나님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되풀이하면서.”

파우로 이바라키 “그래. 하나님에게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창을 받는다.” 파우로 이바라키는 만면에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이야기한다. 아들은 생글생글 웃으며 귀여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루도비코 “괜찮아요 아버님. 난 정말 머리속으로 몇번이나 많이 연습하고 있는거요.”

3 3 - 3 1 “일본인처럼 불쌍한 국민은 없다”

파우로 이바라키 “사랑하는 형제여.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왔다면 지독한 일도 많이 보셨을 것이요. 괴로움도 많이 보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유감이 아니고 용서입니다. 분노가 아니고 온화입니다.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고 축복과 기도입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수궁하면서 듣고 있었다. 그의 말을 머리와 마음에 새겨 두자고 필사적으로 그 사람의 모습과 얼굴을 눈과 뇌리에 새기며 응시하고 있다. 넘쳐 오르는 눈물에 방해되면서. 인간은 부조리하고 잔혹한 강렬한 체험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무리하게 어느쪽인가 선택된다고도 할수 있다.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화낼 것인가, 유화히 대할 것인가, 재판하고 저주할 것인가, 축복하고 기원할 것인가, 중간은 없이 양극으로 갈라져 가는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 림 주인과 부인 그리고 로구사에몬에 향해 정말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의 질문이 향해지고 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모습은 그 말보다도 훨씬 강하게 사랑과 용서, 유화와 축복 그리고 기도를 선택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파우로 이바라키의 남동생인 레온 가라스마는 일본인의 한센병자의 보살핌에 몸을 바쳐 온 설교사다. 지금 그는 고려 말로서의 최후의 설교를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들려 드리려 한다.

레온 가라스마 “사랑하는 형제여. 같은 조국을 사랑하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과의 일치로 목표로 하세요. 그것은 불쌍한 인간일수록 더욱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에스파니아의 파도레나 수도사와 함께 그 나라의 한센병자들을 돌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인처럼 령혼이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는 불쌍한 국민은 없다는 것을. 일본인은 모두가 하기 때문에 하며 또한 모두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삶의 바줄에 얽매어져 있습니다. 눈앞에서 불쌍한 한센병자가 매우 고생하고 있어도 모두가 내버려두기 때문에 내버려두고, 모두가 피해 도망하기 때문에 도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상의 가책도 없는 불쌍한 국민입니다. 옳은 것을 옳기 때문에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 만약 일본 국민들에게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조국을 침략할 일도 없고 제 나라의 국민이 한센병자라고 내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불쌍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장 불쌍한 이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여, 이것이 우리들 세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드디어 카타리나가 쓰러져 울어버렸다. 주저앉은 어머니가 전신을 떨며 울기에 루이스도 멍멍 울기 시작한다. 시스토는 한쪽 손으로 루이스를 안아 올리고 다른 한쪽 손으로 카타리나의 등을 어루만진다. 로구사에몬, 림주인과 부인이 시스토들을 찾아왔을 때는 전원이 몹시 울어 눈이 부어 있었다. 로구사에몬은 순교자들의 최후를 끝까지 보려고 나가사키에 향하고 그외 모두는 이와미은산을 향해 귀도에 올랐다.

3 3 - 3 2 “감사의 설교”

이와미은산에 돌아와서도 모두의 생각은 강렬히 순교자들한테 끌려 있었던 것이다. 은산중에는 시스토와 카타리나 그리고 림주인과 부인이 순교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참으로서의 참의 존재, 하나님 다음으로서의 가장 숭고한 존재와 만나 받은 충격으로부터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로 시스토와 모두는 본대로 이야기하고 상기하며 울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개심한지 얼마 안되는 광산 우두머리들, 호리고들 그리고 산스승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열심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끼쳤다.

세명의 사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들의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최후를 마친 것일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로구사에몬이 드디어 소식을 알려 왔다. 12살의 루도비코 이바라키와 13세의 안토니오는 함께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며 창을 가슴에 받았다. 파우로 미키는 “나는 가장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죽게 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라고 최후의 감사의 설교를 십자가우에서 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참말로 감사의 마음과 찬미의 마음으로서 매우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로구사에몬으로부터 들었을 때 시스토와 카타리나, 림 주인과 부인은 전혀 이상한 체험을 받았다. 어쩌면 돌연히 찬미와 감사의 심정이 맹렬히 솟아오르는 것 같은 것이었다.

3 3 - 3 3 “하나님, 그대는 좋은 분이십니다.”

약자, 작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와같이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 그대는 좋은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찬미와 감사이다.

카타리나 “나는 그 세 아이들을 영원히 잊을수 없어. 그 아이들처럼 어린대로 있고 어떤 때에라도 죽음을 당할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대는 참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시스토 “나도 그래. 제일 작은 루도비코가 자기를 위해 만든 제일 작은 십자가에 달려 붙어 그 나무를 끌어안았다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이 십자가 아주 좋아. 괴로움이나 욕보거나 죽을때까지 안아보기 싶어.” 12살되는 고려의 남자아이 루도비코 이바라키의 인상이 가장 강렬히 두 사람의 기억에 남은 것이었다. 또한 파울로스 이바라키의 말과 레온 가라스마로부터의 설교는 두 사람을 지금 만일 어떠한 습격을 당하더라도 구원될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배려한 것이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두 사람은 그들의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후 위험에 당했을 때 그 말로서 자신을 보호할수 있었던 것이다.

1597년의 4월, 전번 방문때에 순교자들의 최후를 알려 준 로구사에몬이 가지고 온 알림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로구사에몬 자신은 잘 알고 있었다. 우정은 그들의 마음과 로구사에몬의 마음을 깊게 서로 맺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괴로운 것인가, 로구사에몬에게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더욱 숨길 수도 없다. 로구사에몬은 오늘 저녁 중요한 일을 전한다고 한다. 곧바로 말하지 않고 림 주인과 부인을 당인저택에 오시라고 한다. 해가 저 림 주인과 부인이 왔다. 로구사에몬은 드디어 전한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카타리나. 너희들 조국에 최악의 사태이다. 히데요시는 또 다시 14만명 이상의 대군으로 고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의병을 몰살하고 고려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토 “그거... .”

카타리나 “정말... .”

카타리나가 시스토에게 손을 내민다. 카타리나의 손이 점점 식어 가는 것을 시스토는 느낀다. 쇼크가 지나치게 컸던 것이다. 시스토는 북받쳐 오르는 분노의 감정에 압도되어 카타리나의 손을 왼 손을 댄다. 시스토가 분노의 소리를 지른다.

시스토 “놈들에게 고려인들을 살육할 권리는 없다. 고려를 정복할 권리도 없다. 고려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 싸우는 것만이 바른 권리다.” 최후에는 큰 소리로 되었다. 카타리나도 울먹이며 분노의 항의를 한다.

카타리나 “왜 일본사람들은 누구도 히데요시를 반대하지 않는건가요. 왜 이런 나쁜 놈을 모두 찬성해. 왜요?”

림 주인 “짐승같은 것들. 원놈이다 히데요시와, 썩어져 버려.”

림가 부인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왜 남의 나라를 빼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림 주인과 부인도 격분하고 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의분에 마음속으로부터 동조해 주고 같이 의분해 주는 림 주인과 부인이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분노할때 동조해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가.

시스토 “놈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림 주인 “나도 그래.”

시스토 “나는 놈들이 미워 죽겠다.” 시스토의 목소리는 분노로부터 점차 신음으로 변해 간다.

시스토 “조국의 동포들이 이런일을 당하기보다 내가 한번 죽는편이 낫아.”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독한 일에 당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독한 일에 당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어느쪽이 더 쉬울 것인가. 당연히 전자가 쉽고 후자가 어려운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터내는 것 역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금 이 시간에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하나님에게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죽음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틀림 없이 할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더욱 괴롭히고 살아 남은 동포들을 더욱 살육하려고 하는 히데요시에 대해 하나님에게 찬미와 감사를 바칠 수는 없었다. 지금 히데요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두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연행되어서부터 하루 하루 조국애가 더욱해 가고 있는 때였다. 특히 의병들의 저항을 전해 들은 두사람은 일층 격렬하게 조국애에 불타 지금은 조국과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한번의 죽음도 바라는 때이다. 그 조국이 멸망되며 국민이, 특히 의병들이 살해되는 것이다. 명령이 내리고 준비가 일본중에 시작되고 있다. 의병의 저항에 의해 이 침략이 좌절되고 병사들이 후퇴되어 조국이 해방되리라는 희망은 시스토와 카타리나 그리고 일본에 있는 고려인들의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의 불이 지금 꺼져버린다. 지금 하나님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루도비코 이바라키, 파울로스 이바라키와 레온 가라스마처럼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화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원하고 축복하도록 요구한다. 이 점으로부터 보면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은 그 세명의 고려 순교자들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시련을 1년 9개월을 걸쳐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주시고 있었던 것이다.

1599년1월, 고려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 날까지 하루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이 과제를 주시고 요구하시고 시험에 시험을 계속하셨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최대의 시험으로 되는 1년 9개월이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두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 두사

람을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불순한 동기는 일절 없고 단지 순수한 사랑의 동기만으로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어떠한 긴 시일을 걸치더라도 희망과 신뢰로서 참아낼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시스토가 신음한다.

시스토 “고려를 구하고 싶어요 로구사에몬. 고려들 구하기 위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미칠듯한 분노에 슬픔이 섞여 간다. 시스토는 사내 울음을 시작했다. 림 주인은 시스토의 어깨를 껴안으려 하고, 저쪽에서는 림가 부인이 카타리나의 옆에 붙어 앉는다. 카타리나는 양손을 림가 부인에게 돌려 안고 운다. 로구사에몬은 시스토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사내답게 슬픈 얼굴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로구사에몬이 천천히 그리고 한 마디씩 새겨 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카타리나. 당신들은 자신을 한번 죽여 고려를 구할수 있는 것이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로구사에몬을 멍하니 바라 본다.

로구사에몬 “자신을 죽이는 것을 한번, 또한 그 이상 행하면 당신들이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 낼수 있어. 꼭 그렇게 돼.”

시스토 “자신을 죽인다는 건 뭔데.”

로구사에몬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희망이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이요. 자신의 애호나 희망이나 계획이 아니고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애호나 희망이나 계획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요.”

시스토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로구사에몬 “요전 당신들이 파올로스 이바라키와 레온 가라스마로부터 받은 유언을 실행하는 것이요.”

시스토 “량심이 전혀 없는 놈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진주성에서 놈들은 갓난아기까지 포함한 몇만명의 고려인들을 죽였던 것이 아닌가?” 시스토는 이렇게 항의한다.

카타리나 “왜 히데요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수있는 가요.” 카타리나도 항의한다.

로구사에몬 “당신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리해하고 있다. 같은 립장이라면 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그 세 사람의 성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요. 그들은 잘 해내지 않았던가?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 주실거요. 그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련한 침략자인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가련히 여기고 조국을 위해 은덕을 다해 목숨을 바친 것이요. 2월5일까지 그들이 해준 것을 오늘부터 당신들이 이어받는 것이요, 앓았어. 하나님은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침략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될 수 있는 것이요. 단지 그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사랑과 용서와 애처로움을 실행하는 희생물이 되는 인간이 필요한 것이요. 이에즈스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기원했던 것이요. 은덕을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요.”

카타리나 “고려를 구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될수있는 가요.”

로구사에몬 “하나님은 무어나 지배하시고 있는 것이요. 때문에 고려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게 비는 것이요.”

시스토 “이 방법밖에 정말 없는 건가요?”

로구사에몬 “히데요시와 일본인은 확실히 악마로 되어 있다. 그 악마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겸손밖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악마에게는 사랑과 겸손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요. 사랑과 겸손을 아는 인간과 싸울때 그들은 혼란에 빠져버리는 것이요. 이 방법을 선택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자들이

자기의 약점과 약한면을 보아내도록 하게 되는 것이요. 그 때가 되면 그들도 겸손해져 자신의 약점과 나뻐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천사들에게 성인들에게 특히 그 세명의 순교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점차 겸손해지는 것이요. 히데요시와 침략군을 악마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 보렴. 그러나 악마보다 더 강한 쪽에 비는 수 밖에 없지 않을가. 하나님에게 소원을 부탁드리려면 먼저 당신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맞춰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가.”

시스토투와 카타리나는 지금 이미 강력한 도움을 성스러운 세 순교자로부터 받기 시작되었다. 시스토투와 카타리나에게는 그들의 모습과 말들이 똑똑히 뇌리에 되살아난다. 로구사에몬의 말만으로는 시련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틀림 없다. 하지만 이 두사람은 천눈으로 본 모범을 가지고 있었다. 천국으로부터 보내오는 도움의 생생한 모범이다. 그들은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림 주인과 부인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 13살의 안토니오의 모범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물론 그 아이로부터 보내오는 천국으로부터의 도움도 있었다.

로구사에몬 “사실 이번의 26명의 순교자들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것이 아니요. 예수회의 파도레가 과거 몇명 불교도의 승려에게 독살되었던 것이요. 우리들 예수회의 관계자들은 그래도 일본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기원하고 있는거요. 나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은사들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니아의 회원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 몇명도 계속 암살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소중한 희생과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과 애처로움을 모두 하나님에게 바치고 일본을 구하는 것이요.”

림 주인 “그래도 히데요시를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 건가. 나는 그런 놈 아주 밉다.”

림가 부인 “나도 그래. 좋아하려고 해도 할수없는 일이지 그까짓 놈.”

로구사에몬 “사랑이란 싫고 좋음에 좌우되지 않는 거이요. 상대의 선을 기원해 사랑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히데요시가 구제되기를 하나님에게 비는 것은 싫더라도 사랑으로 되는 것이요.”

시스토투가 중얼거린다.

시스토투 “자신을 죽이고 희생물로서의 사랑에 산다... .” 시스토투가 또 중얼거린다.

시스토투 “아버지,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히데요시와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시스토투의 혼잣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스토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와... .” 카타리나가 몇번이나 수궁하며 괴로움에 손을 가슴에 댄다.

시스토투 “그래도 고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들은 하자.” 시스토투는 카타리나를 보고 카타리나는 대답한다.

카타리나 “응. 그래”

림가 부인 “우리들도 함께 해.”

림 주인 “그래, 그래. 시스토투 선생님과 부인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해 그렇지, 로구사에몬.”

로구사에몬 “물론 그래.”

시스토투 “지금 이 말을 해 보니 전혀 용서를 모르는, 사랑을 모르는,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자신이 분명히 보여왔습니다. 나는 최저최악의 사람이요. 세 명의 순교자와 비하면 더욱 자신이 저주롭게 생각돼요.”

카타리나 “로구사에몬. 그러나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구해 드리세요 하고 빌면 그것도 고려를 구할 수 있는 것이요 네. 마음의 반대로 빌면. 그럴지요.”

로구사에몬 “그래요. 오히려 감정이 반발해 말하기가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자신을 죽이고 희생물의 사랑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잘 되어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리나 “좋아... . 지금 나는 마음속으로부터는 말할 수 없기에.”

시스토투와 카타리나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속의 “죽음”이다. 미리 확실하게 죽음이 에

고된 사람이 더듬어 가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받아들일 수 없어 처음에는 분노하며 미친 듯이 날뛴다. “왜 나만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운명은, 잔혹하다.” 라고. 그리고 슬픔에 우울해져 간다. 그리고 고독감에 빠진다. 그리고 단념이 생겨 난다. 그리고 조금씩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마음에 조금씩 평화가 돌아 온다. 그리고 죽음을 좋은 일로서 리해하려고 한다. 정도에 따라 기뻐하기까지 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육체상의 죽음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걷는 프로세스와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분노와 슬픔이 강해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전혀 될수 없다. 이해하고 함께 괴로워해 주는 벗 로구사예몬 림 주인과 부인의 존재가 지상의 믿음이며 도움이다. 그리고 참말로 천국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에서도 찬미와 감사를 바치도록 두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상의 벗만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루도비코 이바라키, 파울로스 이바라키, 레온 가라스마와 꼭 맺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려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참으로 그들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었다.

1597년9월이다. 고려 남쪽은 정복되고 고려 수군이 괴멸하였으며 두사람의 조국이 잔학하게 짓밟힌다는 알림이 왔다. 두 사람의 마음속의 “죽음”은 더욱 깊어 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으로까지 느낄 정도이다. 그러나 두사람은 사랑하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 “죽음”을 몇만번이라도 바치자고 하며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들을 구해 드리십시오.”라고 인내성 있게 계속 빌고 있다. 네 살되는 루이스의 귀여움은 두 사람에게 마음상의 괴로움을 많이 풀어 준다. 영화 “더럽혀질줄 모르는 못된 장난”의 말세리노 아기가 다섯살이었으므로 그 애의 모습을 생각하면 루이스 아기의 귀여운 모습을 상상할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씩씩하고 부지런히 마음상의 “죽음”을 계속하며 봉사하고 있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특별한 격려를 주신 것이다. 두번째의 아이가 임신된 것이다. 루이스는 남동생인가 여동생인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한다. “어머니가 무얼 먹었기에 배안에 생겼을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실로 귀엽다. 못된 장난도 하고 시스토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흉내내는 루이스는 천진하고 귀여울 뿐만아니다. 미움도 원망도 복수도 재판하는 것도, 저주도 모르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통해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가르쳐 주는 하늘로부터의 교재이었다. 이렇게 하여 두사람은 어린 아이노선에 이끌려 영혼의 독인 미움, 원망, 복수의 마음, 재판, 그리고 저주로움을 점차로 완전히 잊게 되고 있었다.

1598년2월. 두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아이다. 아이의 대리 아버지는 림 주인이고 "요아킴" 라는 이름을 받았다. 로구사에몬가 예의 "엄숙한 술잔을 위한 표극박"으로 세례를 하사해 주었다. 요아킴 아기는 누가 보아도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기질도 역시 카타리나인 것 같다. 카타리나의 기질의 특점은 풍부한 동정심이다. 시스토의 기질은 강한 정의감이다. 옳다고 믿는 일은 어디까지라도 해내는 것, 자신의 말한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계속해 가는 그 행동이 이 점을 설명한다. 시스토는 "조국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번이라도 죽고 싶다"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로구사에몬에게서 배운 방법이 정확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확신했다. 드디어 침략은 7년간 계속되고 전투의 치열함과 조국의 황폐와 비참이 들려 오지만 그는 아내를 격려하고 몇만번이 아니라 몇십만번이나 불쌍히 여길 것을 비는 슈트 연습을 되풀이한다. 한국의 축구 선수와 같이 점점 강하게, 다채롭게, 멀리, 정확하게 찰 수 있게, 포기할 일 없이 도전을 되풀이한다.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것이 마음속으로부터의 기도와 축복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찬미와 감사를 본심으로부터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내적 싸움의 곤란을 방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마리아님을 통해 카타리나에게 풍부한 동정심을 제시해 주셨다.

어느 날, 카타리나는 루이스, 요아킴아기 셋이 같이 있을 때 돌연히 마리아님으로부터 인스퍼레이션 받은 것이다. 그것은 마리아님이 히데요시의 어머니이며, 침략군 한사람 한사람의 어머니이며, 전 일본인 한사람 한사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마리아님은 그들을 실제 어머니보다 몇억 배도 사랑하고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당하며 몇만번이라도 죽음을 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히데요시의 어머니이며 또한 일본인 한사람 한사람의 어머니인 마리아님의 심정을 두 아이를 가져서 안다. 마리아님의 몸이 되면 기실 히데요시와 일본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사람 한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해 보면 정말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 조국의 사람들과 아무런 차별도 없이 마리아 어머니가 전인류의 어머니이며 불쌍히 여기기를 비는 마리아님과 자신이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카타리나의 마음은 완전히 죽어 버렸다. 즉, 진실히 마음속으로부터 적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기원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순간적인 마음속의 격렬한 변화는 카타리나 자신도 크게 놀라며 뛰어 오르고 외치게 하였다.

카타리나 "되었다, 되었다. 마리아님 고마워요. 마리아님은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찬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다시 놀람에 뛰어 오른다.

카타리나 "찬미와 감사라고. 나 찬미하고 감사하고 있다." 카타리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베품과 자신의 마음속에 수립된 사랑의 덕택이 돌연히 마리아님의 활동으로서 순 하나님으로부터의 내적인 세계만을 보아가며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이다. 외면적인 상황은 일체 관계 없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스토에게 카타리나는 식사 준비도 내버리고 달려 붙어 마리아님에게서 받은 인스퍼레이션과 마음의 변화와 은혜를 열심히 이야기한다. 두사람은 선 채로 있다. 들고 있는 시스토의 눈으로부터 눈물이 쏟아지고 불을 타 굴러 떨어진다. 카타리나도 눈물을 흘린다. 시스토는 조용히 카타리나의 우는 상을 우러러 본다.

시스토 "마리아님이 나를 지금 구해 주셨어요. 아... . 괴로웠어."

카타리나 "시스토, 시스토도 될 수 있지요."

시스토 “응, 나도 지금 될수 있다고 봐.”

카타리나 “그리고 마음을 바꿀수 있게 되겠지.”

시스토 “응. 나는 지금 처음으로 마리아님을 만났어. 머리로서의 판단을 그만두고 단지 마음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지금 내 심중에 일어난 것이요.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체험했어. 마리아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아. 이런 비참하고 약하고, 나쁘고, 최저최악의 나한테 까지 마리아님이 찾아오신 거야... .” 시스토는 조용히 말하며 조용히 운다.

시스토 “마리아님, 당신의 불쌍히 여겨야한다는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합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대한 요구는 지극히 높고 엄격하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큰 조국애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을 미리 길러 주시고 계시고 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근절하자고 하는 네로 황제와 그 부하들, 또한 하나의 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한 히틀러와 그 부하들을 합친 것과 같은 존재인 히데요시와 그 부하들, 그 국민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원하라고 하는 과제를 주신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어떤 고려인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 많음을 생각해 알려지고 있었다. 약함, 나쁨으로 인하여 자신으로는 한발도 전진할 수 없는, 최저최악의 령훈의 주인이라고 통감시켜지고 있었다. 기도도 아무 것도 들어 주시지 않는 것 같음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듯이 느끼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오늘, 마리아님이 일방적으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 기적을 이르키기 위해 두 사람을 도와 변화를 주셨다.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 마리아님적인 령훈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어떤 고려인보다도 마리아님적인 인간이 되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치외 법권의 광산의 세계에는 망나니들의 나라가 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죄에 빠져난 농들의 카톨릭교회의 대장과 여자대장, 두 사람의 지휘관을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님을 통해 마리아님적으로 변모시켰다. 그것은 망나니들 나라의 카톨릭교회가 앞으로 완전히 마리아님적인 카톨릭교회로서 발전되고, 15년후에는 박해에 의해 크리스찬을 그만둔다고 선언한 수많은 사람들을 커다란 배 안에 넣어주어 지키고 천국에 나른다고 하는 역할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어떤 나쁜 아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아이든지 예외없다. 그것을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령도하는 지하교회가 실행하는 것이다. 지금 이 모든것이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미래의 일로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단지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마리아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고려인보다 더 강해져 어머니와 같은 마리아님의 마음을 다른 고려인보다도 더 완전히 이해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다.

1598년9월16일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마리아님에 따른 완전한 사랑과 용서와 동정과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은 드디어 받아주셨다. 드디어 하나님의 의사가 하달되었다. 히데요시가 죽었던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물론 이것을 모르고 계속 기원하고 있었다. 11월이 되어 침략군의 총퇴거가 시작되고 고려는 구원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모두가 비밀로 되고 있었다. 로구사에몬은 나가사키 예수회의 정보로서 침략군의 총퇴거를 명하는 사자가 비밀리에 출발되었다는 것을 10월초에 먼저 알고 있었다.

1598년11월, 로구사에몬이 이시미에 왔다. 물론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카타리나는 루이스와 요아킴 아기를 데리고 산보에 가고 집에 없었으므로 시스토의 직장을 향해 걷고 있는중 우연히 림씨 주인과 부인을 만났다.

림씨 주인 “로구사에몬, 오래간만이구만.”

림씨 부인 “무얼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세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가요.”

로구사에몬 “예. 오래간만입니다.”로구사에몬은 림씨주인과 부인에게 히데요시의 병사와 그에 따른 침략군의 총퇴거 명령, 그리고 총퇴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일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림씨 주인 “정말,,, 그것 참,,,”

림씨 부인 “아니. 그 두분은 매우 기뻐할거요.”

림씨 주인 “로구사에몬, 시스토 부부한테는 아직 알리지 않았지요. 좋아, 로구사에몬, 한 열흘간 그 두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시요.”

로구사에몬과 림씨 부인은 “에,,,”라고 깜짝놀라 소리 지른다.

림씨 주인 “그 두분은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히데요시와 침략군 그리고 일본인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요. 나의 조국이 같은 처지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되겠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행동이요. 그리고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을 감동시킨것이요.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들 이런 참한 두사람의 소원은 들어 주지 않을수 없을거요. 그들 자신이 자신의 조국을 구한 것이요.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이에즈스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실현한 것이요. 아주 축하할만한 일이요.”로구사에몬과 림씨 부인은 그렇다고 크게 수긍하고 있다.

림씨 주인 “나에게 말겨. 아주 큰 축하의 장소를 마련할테니깐.”

로구사에몬은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만나면 반드시 고려의 정황을 질문하리라고 예측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10일간 다른 곳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이시미 은산을 떠나버렸다. 림씨 주인은 부하들에게 전령하고 크리스찬 두목들 전원에게 모이라는 집합령을 전했다. 부하들은 지하교회가 있는 광산으로 소식을 전하러 재빨리 떠났다. 림씨 부인은 오모리 마을에서 제일 좋은 가게의 제일 좋은 방에 큰 연회를 예약해 놓았다.

날이 지남에 따라 카타리나는 그전의 림씨 일가 사람들의 익숙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다. 저녁 밥을 먹으면서 카타리나가 시스토에게 말한다.

카타리나 “여보세요, 시스토. 요즈음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을 자주 보게 되네요. 크리스찬이 되어 다른 광산에 두목으로 간 사람들이예요. 이상해요.”

시스토 “에 무슨일이 있나봐. 나한테 오늘 림씨주인이 와서 모레는 일을 그만두라고 해. 우리 가족에게 오모리의 마을에서 음식을 대접한다나.”

루이스 아이 “야 좋아. 오모리의 마을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좋아, 좋아”

시스토 “누군가 두목의 습명식을 하는 것인가고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 괜찮으니깐 배만 즐기고 오라고 해, 맛있는 음식이 가득 나올테니깐이라고” 루이스 아이가 배를 탕탕 치며 좋아한다.

루이스 아이 “나 지금부터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배를 즐깁니다.” 화제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올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당일이 왔다. 림씨 주인과 부인이 시스토 일가를 맞이하러 왔다. 또한 어디로부터인지 로구사에몬도 왔으므로 시스토일가는 깜짝 놀란다.

카타리나 “로구사에몬. 언제 왔습니까. 어찌다.”

로구사에몬 “연회장소에 도착할때까지 비밀이요.” 로구사에몬은 못된 장난을 하는 애처럼 대답하고는 달려오는 루이스를 높게 안아 올린다. 정심경에 오모리 마을의 제일 큰 요리점에 도착하여 안쪽으로 안내되었다. 우선 먼저 방에 가득차 있는 사람들에게 놀란다. 100명도 넘어 보인다. 여기저기에서 시스토학원을 열었던 시스토에게는 기억되는 얼굴도 많았지만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도 있었다.

림씨 주인과 부인이 시스토일가를 뒷자리로부터 뒷자리에 손을 이끌고 가므로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림씨 부인 “체면하지 말고, 자 이쪽이요.” 드디어 제일 뒷자리인 주빈석에 안내되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뭐가 무언지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다. 모인사람들 전체는 시스토일가를 보고 있으며 어떤 축사스러운 일이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깜짝 놀라게하는 파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모두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림씨 주인이 전원에 일어서라고 손으로 신호하고 시스토일가는 앉은채로 있으라고 한다. 잔을 맞추자고 하는 잡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는 것일까? 루이스 아이는 모두와 함께 저도 몰래 서 버렸다.

림씨 주인 “로구사에몬 시작하지요.”

로구사에몬 “모두들, 잘 들어라.”

전원 “예,,,” 로구사에몬이 큰 소리로 외치니 전체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로구사에몬 “우리들의 대장과 여대장은 이에즈스의 명령대로 악에 대하여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겼다.” 로구사에몬은 꼭진 오른손 주먹을 쳐 올린다. 일어서 있는 남자들 전원이 “그럼,,,” 라고 길게 외치며 주먹을 쳐 올려 대답한다. 루이스 아이도 같이 흉내내고 있다. 다음은 림씨 주인이 굵은 소리로 외친다.

림씨 주인 “우리들의 대장과 여대장은 이에즈스의 명령대로 적을 증오하지 않고 적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조국을 구한거다.” 림씨 주인도 오른손의 주먹을 쳐 올린다. 전원이 “그럼,,,” 라고 대답하며 주먹을 쳐 올려 기쁨을 전신으로 표현한다. 모두의 목소리는 축하하는 기쁨 무드에 태워져 있으며 루이스 아이도 기뻐서 “좋다.” 라고 외치며 빙글빙글 손을 휘두르고 있다.

시스토 “자기들의 조국을 구했다고.” 시스토는 일어서서 로구사에몬와 림씨 주인을 마주 보며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시스토 “이제 조국이 구해졌다고 했지 고려지 않았어.” 두 사람은 강하게 수긍하며 로구사에몬이 드디어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

로구사에몬 “히데요시는 6월말에 이질에 걸렸소. 8월5일에 병상이 악화되어 절망적으로 되었으며, 9월16일 아침 미명에 죽은 것이요. 그리고 총퇴거를 침략군에 명하는 사자가 비밀리에 떠난 것이요. 지금 고려에서는 확실히 침략군이 점령지를 포기하고 총퇴거를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히데요시에게 돌연히 병사를 내려주고 고려는 구원된 것이요.” 세 사람은 지금 등거리가 되어 어깨를 서로 잡고 있다. 저쪽에서는 림씨 부인이 카타리나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카타리나가 “아,,,”하고 외친다. 카타리나가 일어서서 시스토를 향해 손을 펼치고 달려 온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서로 껍 께안는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림씨 주인 “대장과 여대장의 대승리이기 때문에 병사들 전원이 축하해 드리지요.” 카타리나에 안겨진 채로 시스토가 양손을 하늘로 올린다.

시스토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마리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고맙습니다.” 시스토는 모여온 남자들쪽에 시선을 돌린다.

시스토 “여러분, 고려가 구원되었다니 꿈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기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리아님의 덕분입니다. 마리아님은 카타리나에게 그리고 카타리나를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님은 모든 사람의 참말로 된 어머니이며 어떤 악인이라도 결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게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로서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리아님의 도움으로서 실현된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 마리아님의 힘으로 얻어진 승리입니다.” 카타리나가 시스토에게 말한다.

카타리나 “시스토, 나도 얼마나 기쁜지 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을 루도비코 이바라키와 파울로스 이바라키 그리고 레온 가라스마가 천국으로부터 많이 지원해 주셨을 것이요. 세 사람에게도 정말로 감사해요. 세 사람도 천국에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연회가 시작되었다. 림씨 부인은 루이스 아이를 위해 물고기 뼈를 골라내고 고기를 입에 나르며 어머니처럼 돌봐 주고 있다. 시스토 앞에는 10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와서 고려가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그들 전원이 크리스찬 두목이며 또한 그중에는 시스토가 만난 적 없는 크리스찬 두목들도 있다. 시스토가 가르쳐준 두목과 호리고들중 두목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1대이고, 호리고로서 세례를 받은 후 두목으로 습명한 것이 2대이며, 2대의 두목이 다른 광산에 가서 길러 낸 두목이 3대의 크리스찬 두목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지리라고 한 시스토의 전략은 착실히 실현되고 있었으며 이미 3대의 크리스찬 두목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연회를 통해 시스토는 알았다. 또한 현재 100명이상으로 된 크리스찬 두목이 있고 모두 지하교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두목이 없는 광산에 퍼져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약 100개소의 광산에 크리스찬 두목이 있다는 지하교회의 성장 상태를 알게 되었다.

로구사에몬과 림씨 주인의 시스토에 대한 뜨거운 우정으로서 실현된 이 축연은 뜻밖에도 또 하나의 대승리, 지하교회가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시스토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을 드렸다.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 일부러 모여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우리들 조국의 승리를 위해 이런 축연을 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덕택으로 우리들의 기쁨은 100배도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한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기쁨의 답변을 들었다.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모두 기쁘게 모여 왔습니다.”

“자신에 있어서 제일 큰 적인 히데요시를 위해 기원하고 사랑하시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을 대장과 여대장으로 모시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에게 시종드는 삶의 보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있는 것도, 모두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의 덕분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야말로 매우 고

많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천국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호리고들의 인생에 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도, 호리고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주신 것도 모두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님의 덕분입니다. 호리고들 전원의 감사를 전합니다.”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이 히데요시를 위해 구원영령을 기원하시며 그를 사랑한 것을 보면 악당으로 되고 죄 투성이된 자신도 절대 구원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 현실로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 행동이 있으셨기에 구원의 희망이 점점 강해질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스토 선생님께서로부터 전수하여 받은 고려의 굉장한 기술을 배워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일할수 있는 좋은 입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단히 행복합니다. 시스토 선생님이 크리스찬 두목가 되어 아내를 얻고 아내와만 자라고 배워주신 덕분입니다.”

연회는 끝나가고 있다. 크게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배 부르게 먹은 루이스 아이는 림씨 부인의 품에 안겨 자버렸다. 사랑스러워 참을 수 없는 듯이 림씨 부인이 루이스 아이를 쓰다듬고 볼을 맞추고 하는 것을 보고 요아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카타리나가 과감하게 그전부터 하려던 질문을 한다.

카타리나 “여주인님. 림 주인님과 사이에 아이는 없으세요?”

림씨 부인 “나는요. 사실 유녀였어요. 몇번이나 엉뚱한 방법으로 배에 생긴 아이를 유산시켰어. 바로 살인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궁이 잘못되어 임신할 수 없게 되었소. 나는 매춘부이며 살인범이요. 그러나 마리아님은 어떤 아이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나도 구원을 받을 것이요, 행복해요.” 림씨 부인은 평온한 얼굴을 하고 미소를 짓는다. 돌연히 카타리나는 매우 감동되었다. 등골이 쩡하고 전신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 반응을 보고 림씨 부인이 말한다.

림씨 부인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 난 경멸에는 습관이 되어 있는거요.”

카타리나 “아니예요. 마리아님이 어떤 아이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나도 구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 여주인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매우 감동된 것이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꾸밈없게 인정하고 이렇게 마리아님의 영민과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매우 존경을 느낍니다. 여주인님을 지금까지 존경해 왔지만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오늘 남자들의 우정의 아름다움을 부럽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난 여주인과 최후까지 함께 있고 함께 순교하고 싶어요. 림씨 주인은 이런일을 모두 아시고 장가들어 주셨나요?”

림씨 부인 “물론, 알고말고.”

카타리나 “그래요. 나 림씨 주인도 점점 더 존경하고 싶네요.”

림씨 부인 “나는 부하들을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귀여워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또 더욱 특별해.” 림씨 부인은 아직도 가슴속에서 자고 있는 루이스 아이를 더욱 꼭 안으며 말한다.

림씨 부인 “이 아이는 두목의 피부요. 우리 주인도 나도 두목의 피부이기 때문에 무언가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인 것 같이 느껴져 귀여워 참을 수 없네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지하교회 크리스찬 두목들의 축하를 받는 이렇게 큰 기회가 다시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시스토일가는 모우리씨에게 돈을 주고 사온 노예로서 모우리씨의 사람이다. 다른 두목이나 호리고들 산스승들은 전국의 어디에나 다갈수 있지만 이 두사람만은 모우리씨가 파견하는외 다른 곳으로는 갈수없다. 이번 축연으로부터 약2년이 경과된 1600연말, 당인저택에 모우리씨의 광산역인이 왔다.

광산역인 “시스토선생님, 부인님. 모우리씨는 이번에 이시미 은산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천령이 되어 바쿠후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일가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채 광산역인을 배운 두사람은 아직 기쁨이 끓어 오르지 못한다. 자유로워졌다고 하여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두사람은 림씨 주인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림씨 주인과 부인은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모우리씨가 최초에는 이시다 미쓰나리쪽에 붙었다가 나중에 반역하였다는 등 소식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스토일가가 자유롭게 된 원인이었다는 뜻밖의 결과에 깜짝 놀랐다.

림씨 주인 “자유롭게 되었다는거요, 시스토 선생님. 고려에 돌아 가실수도 있을런지 모르지요.” 림씨 주인은 일순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 림씨 부인도 루이스 아이와 요아킴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인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고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직후부터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마음은 크게 설레이기 시작했다. 돌아갈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림씨 주인도 돌아가고 싶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계제일의 정련 기술을 가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훌륭한 모범을 보였으며 건달뱅이였던 우리들 모두가 심복하고 있는 지휘관. 그리고 이 대성공을 취득한 전략을 만들어 낸 대장이 지금 우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의 대신으로 될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림씨 부인 또한 혹시나 루이스 아이와 우리 집주인이 대리 아버지가 된 요아킴 아기와 이별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 조마조마해 하기 시작하였다.

시스토 역시 지휘관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은 아직 준비 단계에 있으며 실전이 되지 않은 것이다. 병사를 남겨놓고 대장이 집에 돌아가버리면 모두의 정열이 쇠퇴해 버린다. 나는 중책이 있기에 고려로 돌아갈수 없다. 카타리나 역시 순교할 때가되면 함께 하자고 한 림씨 부인과의 여자들간의 우정을 해소하여서는 안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모든 생각과 조국에 대한 생각 사이에 잠시간 망설이었다. 긴 침묵이 계속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얼굴을 마주보며 응시한다.

시스토 “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 주셨던 여러분들의 신뢰를 배반할수 없습니다. 고난과 옥보기 십자가를 나는 선택합니다. 고려에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려에 돌아가면 고통받고 옥보고 순교할일이 없게 될것입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에즈스의 가르침에 따라 걸어 나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알아 주겠어. 같이 따라 와 주겠어.”

카타리나 “응, 시스토.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당신과 같은 운명과 같은 괴로움, 그리고 같은 십자가에 매여지고 싶어요. 그리고 림씨 주인과 여주인과도 함께.” 림씨 주인과 부인의 얼굴이 확 밝아진다.

림씨 주인 “나는 이제의 긴 침묵으로서 시스토 선생님과 부인이 얼마나 큰 결심을 내리고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결심하셨는가를 알수 있었습니다. 시스토 선생님, 나에게 한번 더 축연을 열게 해주십시오. 지하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 결심을 내리신데 대해 감사를 드려야 하지요.”

시스토틀가가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신분이 된것을 축하하여 크리스찬 두목들을 전광산으로 부터 모이게 한다는 림씨주인의 제안은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무어라고 말리든지 꼭 해야 된다고 한다.

1601년 1월, 또한번 오모리의 마을에서 이번에는 저번의 그 가게를 통째로 내서 축연을 베푼다고 한다. 로구사에몬도 급히 달려 왔으며 모여온 크리스찬 두목의 인수는 300명을 넘고 있었다. 전번의 축연은 크리스찬 두목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자기들의 지하교회의 발전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는 장소로 되었으며 모두의 정열을 높이는 결과를 가졌었다. 이번에도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모두 모이게 되었다. 세키가하라의 싸움에서 패전한 영주들중 패전하여 죽었거나 처형된 크리스찬 영주가 다스리고 있었던 영국민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죽음을 당하고 또한 영지를 쫓거나 해매고 있었다. 미노의 3000명의 크리스찬, 구루메의 7000명의 크리스찬, 히로시마나 야마구치의 크리스찬들이다. 그들 중에는 부근의 광산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지하교회가 원래 목표로 하였던 기능이 발휘되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인 크리스찬 두목들도 모인 지하교회의 큰 회의가 또다시 열렸던 것이다. 모두가 이제 한창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대장과 여대장이 자유롭게 되었습에도 조국에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서 자기들과 계속해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그들 전원은 활기를 띠웠다. 특히 전번의 축연에 참가한 사람들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열렬한 조국애를 직접 보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선택하였다고 한다. 자기의 조국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 모든것이 그들을 대단히 감동시키고 점점 두사람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모범으로 생각하게 된것이다. 병사가 대장을 신뢰하고 자랑으로 생각할수록 그 군대는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조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희생시켰지만 그 대신 이 축연으로 크리스찬 두목이라고 하는 병사들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의기를 높이고, 새로운 지하교회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보답을 얻을 수 있게 된것이다. 하나님은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열심에 넓은 마음으로 보답해 주셨던 것이다.

로구사에몬은 노예로서 처참한 처지였던 이두사람, 항구의 배로부터 내려올 때부터 인상이 깊었던 그때의 모습을 상기하며 추억의 이야기를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첫눈으로 보았을 때부터 불가사의의 우정. 확실히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광산의 건달뱅이들조차 두사람에게 심복하고 있다. 물론 나 자신도 그렇다. 지금까지의 두사람에 관한 모든 사건을 상기하면 아직도 알수 없는 그무엇인가 이제부터도 있을것 같다. 이 두사람을 만날 수 있는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되는 보물이다. 자유롭게 되어 참말로 축하합니다. 7년이상이나 노예의 몸이 되었던 벗이 해방된 것을 로구사에몬은 마음속으로부터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602년 가을, 로구사에몬은 이즈하 나라의 구보타, 지금의 아키타시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전부터 벗이며 크리스찬 무장인 페토로 히토미구우몬이 세키가하라의 싸움의 결과 랑인이 된 것을 구보타 번의 지방영주인 사타케 요시노부가 고용하여 거기의 무사와 평민들에게 많이 전도해 스스로 세례까지 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사타케 요시노부는 1602년 여름, 히다치의 나라 미토로부터 왔을 때 크리스찬의 축실 이와세노미다이와 많은 크리스찬 부하를 데리고 왔기에 크리스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

큰 거리(하네주 거리)를 북쪽으로 나가면 이즈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고개로부터 마을에 내려선 데라자와촌이 보인다.

이 마을의 큰 주인인 데라사와 후지효에이의 집에 숙박되었다. 로구사에몬은 그분과 그의 친척인 데라사와다로 우에몬에게 크리스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였고 두분은 모두 마음을 털어놓고 참답게 들어 주고 있었다.

후지효에이는 지난번 아내를 여의었을 뿐이어서 어머니 잃은 세명의 여자 아이를 남겨놓고 있었다. 로구사에몬은 여기로 오고 갈 때에는 후지효에이의 집에 숙박하므로 크리스찬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드디어는 후지효에이 일가에게 세례까지 하사하였다. 후지효에이의 딸에게는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아버지 후지효에이에게는 요아킴. 큰 아들 우에이몬에게는 마치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로구사에몬은 이후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지만, 특히 마그달레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세아이의 우두머리이며 아주 드센 여자아이라는 것이다. 여자아이 놀음은 전혀 하지 않고 사내아이와 같이 맞붙어 싸우거나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거나 벌레나 동물을 쫓아다닌다고 한다. 로구사에몬이 높이 얹아 올리거나 양손을 빙글빙글 크게 돌리거나, 어깨우에 놓고 달리거나 하여도 무서워하기는 커녕, 한번 더 해줘 하면서 기뻐하며 로구사에몬을 지쳐버리게 한다는 것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머리 속에는 사내아이와 같이 억세고 두려움을 모르는 얼굴을 한, 해빛에 타서 시커매진 능름한 여자 아이 마그달레나의 이미지가 되어 있었다. 로구사에몬이 이렇게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이미지가 되었던 것이다. 로구사에몬이 숙박하러 오면 마그달레나는 대단히 기뻐하며 달려오므로 받아들이는 것도 큰 일이다. 꺼리낌 없이 뛰어 온다. 그리고 로구사에몬의 뒤를 쫓아 다닌다. 참말로 남자같은 성격이고 로구사에몬과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는 한 적도 없다. 무사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씨름이나 칼싸움을 즐기며 그런 때에는 대단히 열을 낸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빨리 내게 덤벼 들어 봐, 빨리!” 마그달레나는 지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서 이기지 못하면 울면서 이길때 까지 계속하려고 한다. 로구사에몬도 간단히 져주지는 않지만 그만두고 싶은 때가되면 져주는체 한다. 그러면 마그달레나는 대단히 기뻐한다.

마그달레나 “어때, 로구사에몬 졌지, 항복했나봐.”

바로 지금 로구사에몬은 구보타성의 오오구에 와 있다. 페토로히토미의 옛 친구로서 그와 함께 이와세노미다이를 만나러 온 것이다. 페토로히토미는 사타케의 부하들에게 서양식 마술을 가르치고 있어 대단히 떠받들리고 있다. 이와세노미다이는 두사람에게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와세노미다이 “나는요, 지금 18세입니다. 아시나케의 당주이었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서 얼마안 되어 가신에게 살해 되었어요. 조모는 여자이지만 니카이도케의 당주여서 나의 장래의 남편을 다음의 니카이도케의 당주로 정하려고 나를 친어머니로부터 떼어내 니카이도케의 양녀로 삼았어요. 하지만 내가 5살 때에 니카이도케는 다테마사무네의 공격을 당해 멸망해 버렸어요. 나와 당주이었던 조모는 낙성했을때 자살하려고 한 것인데 가신들이 그것을 멈추고 우리를 다테케에 넘겨 주었어요. 조모는 원래 다테게의 태생이었기에 우리는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하여 다테게가 지배하는 스키노메성에서 살게 되었는데 조모는 다테게의 보살핌을 받고 싶지 않다고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스키노메성에서 지낸날은 길지 않았어요. 조모는 이와키성의 성주가 되는 친척이 있었기에 거기에 몸을 위탁하셨던것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오다와라 공격에 참전해 병사해 버렸으므로 우리들은 또 이와키성을 떠났어요. 그 후 조모는 또 친척을 따라 오타성의 성주, 지금 나의 남편인 사타케 요시노부 밑에 왔어요. 7살되는 때였어요.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으므로 가정의 따듯함이나 단란의 즐거움을 맛본적 없고 신변에서는 언제나 전쟁과 죽음과 리별박에 없었어요.... 친척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나, 애정에 굶주리고 있어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만족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은 세키가하라의 싸움이 있을때 도구가와이에야스측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이즈하의 나라에 보내버렸고 나는 크리스찬의 일로 이에야스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을가 매우 두려운 것이요. 미도성에서 결혼했을 때와는 다른 것이요. 영속한 사랑을 동경하고 있어요. 언제나 원망해 왔지만....” 이와세노미다이는 잠간 입을 다물어버리고 잠시후 또 한 마디 부침한다.

이와세노미다이 “나, 혹시 이혼시켜 버릴지도 몰라요. 가령 이혼된다고 하여도 나는 이에즈스를 믿겠습니다. 그이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것이지요.” 로구사에몬과 페토로히토미는 이 젊고 아름다운 공주를 위로하기 위해 순전한 신앙의 이야기를 해 드렸다. 이에즈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괴로움에 찬 인생의 길을 걷는 힘으로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과 신앙으로 맺어진 사람들끼리 그 신앙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이렇게 소중한 기회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3 3 - 4 4 '이와세노미다이의 마음속의 벗'

이와세노미다이의 마음속의 벗'

1603년 봄, 로구사에몬은 이시미 은산을 방문할때 카타리나의 배가 커진 것을 알아차렸다.

카타리나 “로구사에몬 나는요, 물론 하나님에게 말기겠지만 남자아이보다 여자 아이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이를 원해요.”

로구사에몬 “그렇네요. 여자 아이면 좋겠네요.” 그렇게 대답한 로구사에몬은 젊고 아름다운 이와세노미다이가 눈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신상 이야기를 카타리나와 시스토 그리고 이미 9살 되어 무엇이든지 어른들의 이야기에 흥취를 가지는 루이스에게 이야기했다. 카타리나는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다. 요아킴도 옆에 앉아있다. 5살이되었다. 어머니가 울므로 따라서 울고 있다. 영문도 모르면서. 이 아이는 참말로 상냥한 아이다.

시스토 “여자에게는 자유가 적네요. 로구사에몬,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령혼의 자유만은 언제나 있다고 이야기 해 드리지요. 괴로움이나 슬픔에 대해,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힘있게 안아 보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신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어떤 괴로움도 이 십자가는 기쁨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며 령혼의 싸움에 이길수 있다고 가르쳐 드리지요.” 로구사에몬은 과거의 그 일을 상기하며 말한다.

카타리나 “그래요. 그 눈물의 크리스마스. 나도 신부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이에즈스와 같은 괴로움과 육보기, 그리고 같은 십자가. 이에즈스를 믿는 것이야말로 신부의 행복으로 통하는 운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로구사에몬.”

로구사에몬 “응, 그렇게 하지요.” 로구사에몬은 이렇게 말하고는 뒤말을 삼킨다.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이야기도 이와세노미다이에게 들려 주려고 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만두라고는 반대 의식을 느끼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허가 받지 않고 이야기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다. 이와세노미다이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한다.

이와세노미다이 “나,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모범으로 삼겠어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그녀의 마음속의 벗으로 된 것이었다.

1603년의 10월, 시스토는 정련 기술을 아들 루이스에게 배워주고 있었다. 자신의 지식, 기술, 세심한 요령, 그리고 감각, 배워 줘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어렸을때부터 아버지가 손짓 발짓 하며 배워주는 것이다. 루이스는 복한 아이다. 초일류의 장인이 될것같다. 림씨 부인이 왔다.

림씨 부인 “시스토 선생님. 부인이 산기가 되었어요.” 밖으로부터 큰 소리를 지른다.

루이스 “아버지. 어떻게 해.”

시스토 “남자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니 오늘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일찍히 돌아가자.”

세번째 출산이기에 아주 빠르다. 시스토와 루이스가 집에 도착되어 얼마 되지 않아 출산이 되었다.

여자 아이다.

시스토 “좋다, 좋아. 여자 애다 좋아, 좋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린다. 카타리나가 근심할가봐 지금까지 시스토는 여자 아이가 좋다는 말은 해본적 없었다. 시스토의 상냥한 애정이다. 그러나 지금 여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 그 순간 저도몰래 좋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카타리나도 원하고 있었던 여자 아이므로 기뻐하며, 또한 시스토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 림씨 부인도 대단한 기뻐한다. 루이스와 요아킴은 어머니의 출산과 금방난 여자 아이를 보며 굉장히 신기해 한다.

림씨 부인 “시스토선생님. 여자 아이의 이름은 생각하신 것입니까. 부인님 또한.”

카타리나 “나는 시스토가 붙혀 주는 이름이면 다 좋아요.”

시스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자 아이이면 림씨 부인이 대리 어머니가 되시고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혀요.”

림씨 부인 “안 돼요. 나와같은 여자가 되면 어떻게 할려고.”

시스토 “여주인님과 같은 여자가 되면 우리 모두 기뻐하지요. 그렇지 카타리나.”

카타리나 “응, 시스토. 림씨부인님. 대리 어머니로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림씨 부인은 놀랍고 기쁜곳에 드디어 울어 버린다.

림씨 부인 “기뻐요. 그렇게 말해 주어서 참말로. 그러나 정말 나같은 여자가 되면 나는 몰라요, 엉, 엉, 엉...”

카타리나가 낳은 여자 아이는 로구사에몬으로부터 세례 받고 대리 어머니인 마리아림이라는 이름을 받고 응석받이는 물론 애정 가득 받으며 건강한 큰 오빠와 상냥한 둘째 오빠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다. 때를 같이하여 데와의 구보타성의 대궐안에는 이런 가정적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애정의 기아 상태에 있는 이와세대가 있었으며 가슴의 상처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남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쓸쓸하게 낳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크리스찬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부터 한번도 그녀를 불러 주지 않는다. 남편이 갈라질 것을 정하리라고 느끼고 있었다.

1604년이 왔다. 전년에 남편은 요코테성에 대리성주로 되고 니카이도가의 가신이며 우두머리이었던 사람을 집에 넣고 요코테의 성하에 니카이도집의 가신들을 넣어 같이 지내도록 허가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고향 사람들이었다. 남편이 그녀의 일을 그 사람들과 상론하고 있다는 소문은 그녀의 귀에도 들려왔다. 드디어 그날이 올것이라고 그녀는 각오하고 있었다. 어느날 아침, 남편으로부터 오늘날 시녀를 따라 들어오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밤이 아니고 낮에 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무슨일인가 알아차렸다. 시녀 두사람에게 동반되어 회견방에 들어가 기다리니 남편이 시동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착석하자마자 인차 말을 꺼낸다.

사타케 요시노부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번이 더욱 중요하다. 알아 주겠나?”

이와세오대 “예. 알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즈스가 보다 중요합니다.”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덕택으로 여기까지는 명확히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수많은 회억과 헤어짐의 서러움과 슬픔에 목이메어 버렸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대고 쓸어져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매우 슬프게 울므로 시녀들도 드디어 같이 울어버렸다. 사타케님도 애처롭게 생각하여 아무 말없이 일어나 시동들을 데리고 나가 버렸다. 다음날 이미 남편이 아닌 사타케님께서 리연장과 앞으로 어디에 가라는 시지를 적은 서장이 왔다. 거기에는 대궐안으로부터 나가 요코테에 가라고 써어져 있었다. 20세인 그녀는 그날 시녀들에게 자기의 긴 머리를 깎아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했다. 두번 다시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결심이었다.

1604년은 시스토에게 있어서 매우 다망한 일년이었다. 천령이 되고 부교가 오쿠보 장안을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채광법을 시험해 보기 시작하고 해마다 생산하는 광석양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정련 부문은 일이 급히 늘어났다. 게다가 그해에 오쿠보 장안이 사도에 넘어가고 같은 천령인 사도 긴이 되었으며 은산의 이시미로부터 많은 산스승, 우두머리, 호리고, 정련 기술자들이 몰려 온 것이다. 1601년에 개발한지 얼마 안되는 사도의 금은산에는 지하교회를 확대하는 제일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하인 숙련 기술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일본 최대의 금산으로 될 것이 확실해진 사도에 시스토는 많은 부하들을 보내 주었다.

이와는 달리 세키가하라 싸움에서 천하를 빼앗은 도구가와이에야스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새롭게 영주들을 임명하고 그 영주들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자고 나섰으며, 특히 관동으로부터 북쪽의 제번들이 잇달아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게 되었다. 지하교회로서 새로운 크리스찬을 보내줄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일 다망하고 크게 발전할 때이다. 카타리나 역시 다망했다. 위의 두 건강한 사내아들도 다망하다. 그리고 마리아 갓난아기도 태어나서 얼마 안되는 때이며 그럭저럭 매일 꿈속을 헤매듯이 다망히 보낸다. 하지만 그후에 이시대를 회억해볼 때 귀여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다망하였던 지금이 제일 좋았을 것이다.

로구사에몬도 지하교회를 가르치고 세례를 하사하는 활동에 매우 바쁘 보내고 있었지만 데와에 가는 일은 잊지않고 있었다. 1606년, 데라자와촌에 들어서니 언젠가 밖에서 놓고 있던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을 발견했다. 멀리서부터 달려 온다.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의 발이 빠른것을 느꼈다. 이미 일곱 살이다. 마구 달려 안겨온다. 광 부딪치고는 콧 안긴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거야?” 마그달레나는 하, 하 숨차하며 큰 소리로 말한다.

로구사에몬 “아리마로부터 와, 이곳 저곳 들려오지.”

마그달레나 “그런데 이봐, 아리마라는 곳이 어딘지 난 몰라. 이번에 갈때 나 데리고 가줘.” 로구사에몬은 난처해 하며 한숨 짓는다.

마그달레나 “이후부터는 어디로 갈때나 나 데리고 같이 가”

로구사에몬 “안돼. 데리고 못가.”

마그달레나 “왜, 못 데리고 가. 로구사에몬. 이 깍쟁이야.”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을 주먹으로 때려준다. 무척 아프다.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이 올 때마다 함께 데리고 가 달라고 보챈다. 번마다 거절 당해도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 오늘도 같다.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과 손을 잡거나 팔을 얹히거나 바싹 달라붙어서 같이 걷거나 업으라고 보채거나 하며 응석을 부려댄다. 그것을 밭일을 나가는 데라자와촌의 마을 사람들이 미소지으며 보고 있다. 마을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 선생님인 로구사에몬은 대주인집 후지 효에이의 딸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끼리의 싸움에서도 마그달레나는 지지않으며, 놀리움을 받아도 태연하다.

친구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을 좋아하는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그달레나 “그래. 난 로구사에몬을 좋아해. 그게 뭐 안될것 있나.”

집에서도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에게 굉장히 응석부린다. 로구사에몬의 무릎 위에 살짝 앉아서는 로구사에몬 앞에 내놓은 술과 물고기도 잡아챈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이것 내가 조금 맛을봐 줄께.”하며 채간다. 어머니가 없이 자란 마그달레나는 마치 친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듯이 일체 사양없이 응석 부리며, 이에 대해 로구사에몬은 언제나 친절히 받아들이고 있다. 정말로 순진하게 자신을 표현하는구나. 여기 사람들은 마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로구사에몬은 생각한다. 드디어 어른들의 회화가 시작되었다.

후지 효에이 “저, 이 마을에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금광맥이 발견된 것이요.” 다로우에몬도 와 있다.

다로우에몬 “그리고 옆쪽마을 인나이에서는 은광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로구사에몬 “옛 그것 참, 놀랄일이다. 옆에 마을에서.” 데라사와와 인나이는 하네주 가도의 동쪽이 데라사와이고 서측이 인나이이다. 지하교회가 될것 같구나. 로구사에몬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시스토와 림씨 주인에게 알려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로구사에몬이 후지효에이의 집으로부터 나와 다음으로 향한곳이 요고데이다. 그전의 이와세오대가 이름을 '쇼주인'으로 바꾸어 몇명의 시녀들과 같이 거기서 살고 있다. 데와에 전도 여행갈 때에는 언제나 들러 본다. 그 때마다 쇼주인은 카타리나에 대해 문안하기에 로구사에몬은 카타리나가 진심으로 조국 고려가 일본에 침략되었으며 자기 자신이 일본에 연행되어 노예의 몸이 되었는데고 불구하고 일본인 과부나 고아들을 보살펴 주어 광산의 망나니들 그리고 림씨 일가 전원을 크리스찬으로 되게 하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카타리나의 애착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쇼주인은 카타리나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이에즈스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에 더욱 기쁨이 있다고 하신 이에즈스의 말이 상기되었다.

그것은 2년전에 요고데에 왔을 때, 이 세상 영속되는 사랑을 포기하기로 생각했을 때의 일이다. 혜택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것을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며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 주어왔다. 쓸쓸한 심정이었던 그녀는 그때로부터 쾌활해졌다. 쇼주인은 마리아 관음을 가지고 있었다. 목제로 된 불상같은 것이다. 로구사에몬과 쇼주인은 마리아 관음 앞에서 서로 이야기한다. (그녀의 보물이었던 이 마리아 관음은 지금도 요코테시의 촌광절에 보관되어 있다. 촌광절 옆에 있는 천선절에 그녀는 매장되어있다.)

쇼주인 "카타리나의 여자 아이는 건강한가요?"

로구사에몬 "응. 마리아는 이미 걸어다니고 있어요. 말부름이 대단하지요. 두 오빠들에게 대단히 응석 부리며 자라고 있지요."

쇼주인 "좋네요, 부러워요. 난 응석이란 부러본 일 없네요. 응석이란 모르지요. 언제나 남의 눈치를 보고 말들을가봐 걱정하며 살아왔지요."

로구사에몬 "그러고 보니 카타리나와 시스토도 옆사람들의 눈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요. 시스토는 나와 같이 36세이고 카타리나는 31세인데,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데라자와촌의 7살 여자 아이와 같은데요."

쇼주인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요."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술과 물고기를 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쇼주인은 깜짝 놀란다.

쇼주인 "에, 로구사에몬님 마그달레나의 행실이 그렇게 나빠도 괜찮을까요?"

로구사에몬 "예의범절은 정말 좋지않지요. 하지만 아버지도 마을사람들도 모두 그 아이를 고와하고 있지요. 아버지도 나도 근심되지만."

쇼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쇼주인 "사실 나는 하나님이나 마리아님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로구사에몬에게 터놓는다. 로구사에몬도 그것을 듣고 잠간 생각에 잠긴다.

쇼주인 "카타리나도 시스토도 그리고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그 아이도 꼭 나와 다를건데요." 로구사에몬은 수긍한다.

로구사에몬 "카타리나와 시스토는 지하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두사람은 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라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리아님은 모든 사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떤 악인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사람은 이러한 이해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쁜 아이일수록 더욱 사랑하며 나쁜 아이도 귀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된 아이일수록 귀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나쁜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도 마리아님도 나쁜 영혼일수록 더욱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구사에몬은 시스토와 카타리나 두사람이 하나님의 영민과 사랑에 대해 신뢰하게 된 이유는 림씨 부인이 그들에게 이전 자신이 매춘부로서 배속의 아이를 몇명도 류산하여 살인했지만 마리아님은 어떤 아이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구원될수 있다고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라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쇼주인 “로구사에몬, 나 자신의 신앙의 과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마리아님에게 응석 부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런 나지만하고 터놓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응석 부릴줄 모르고 그저 무서워만하고 있었어요. 우선 이렇게 터놓고 말해보지요. 그리고 카타리나나 시스토처럼 대담하게 신뢰하며 작은 일까지 마음 속을 모두 털어 내놓지요. 정말 나쁜 아이도 사랑해 주시겠지요. 용서해 주시겠지요. 구원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려보지요.” 로구사에몬은 이말을 듣고 깜짝놀란다. 카타리나와 시스토는 만난 때부터 아이 같았다. 광산의 망나니들과 함께 지하교회를 꾸리고 발전시키고 있다. 지금도 두사람은 점점 더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두사람의 아이같은 생각 방식을 그 두사람과 한번도 만난적 없는 쇼주인이 정확하게 재현하였기 때문이다.

로구사에몬 “그렇지요. 응석 부릴줄 모르고 응석 부리는 법도 모른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하시기를 매일 되풀이하시면 꼭 응석에 익숙해질수 있을 것입니다.”

쇼주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희망이 끊어 오르는것 같아요.”

1608년, 데와에 다녀온 로구사에몬은 이번에는 또다시 이시미에 왔다. 그는 언제나 시스토의 집, 즉 당인저택에 숙박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매우 넓다고 느껴졌던 이 집도 지금은 좁아보인다. 루이스는 15살이 되어 아버지와 키가 비슷하다. 요아킴은 10살이지만 이미 어른들과 같이 훈련이 시작되어 아버지와 형님과 함께 직장에 가고 있다. 4살인 마리아는 낮에는 어머니를 독점하고 밤이되어 시스토들이 돌아오면 또한 아버지를 독점하려고 한다. 지금도 시스토의 옆에 앉아 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재 기구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림씨 부부도 왔기에 식탁이 더 좁아 보인다.

로구사에몬 “데와에 갈 때마다 만나는 옛날 친구인 페토로히토미가 인나이은산의 초대 산부교가 된 것이요.”로구사에몬은 침착한 얼굴로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주제는 페토로히토미의 활약으로 구보타 성하의 많은 무사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든가 페토로히토미가 크리스찬 무사들에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림씨 주인이 말 참견한다.

림씨 주인 “인나이은산에는 이제 바로 이시미로부터 크리스찬 두목인 산다유가 가족을 데리고 출발했으며 지하교회를 반전시킬 것이요. 그 자식은 믿음직한 농이야. 그건 그렇다치고 로구사에몬, 이번에는 인나이은산과 데라사와 가나야마에는 들려 오신건가요?”

로구사에몬 “저렇지요. 페토로히토미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인나이은산의 은광석의 출산량이 대단하므로 각국에서 사람들이 급히 모여와 이미 새로운 거리가 되었어요. 옆에 있는 데라사와 가나야마는 아직 그다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있지만.” 이 때다. 시스토는 돌연히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가자고 하는 생각이다. 자기가 있는 곳이 지하교회의 중심지다.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간다고 하는 것은 지하교회의 중심지를 이시미 은산으로부터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옮긴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일까? 시스토도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한 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날늦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카타리나와 잠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시스토는 말을 꺼낸다.

시스토 “카타리나. 지금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좀 들어 주렴.” 시스토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카타리나 “응, 뭘에요, 시스토.” 시스토는 오늘 저녁 식사때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카타리나에게 터놓았다. 카타리나는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을지 모른다. 카타리나도 이유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카타리나 “내일 로구사에몬에게 이야기해 보면 어때요.”언제와 같이 단순히 시스토의 생각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은 남편에게 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카타리나는 자 버렸다. 시스토는 잠들지 못한다. 마음속의 강한 재촉이 계속되는 것 같다. 이유를 찾자 하여도 알길이 없다. 하지만 생각은 더욱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되어 간다. 지금 꼭 해야 한다. 곧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림씨 일가도 함께 가야 한다. 집은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지어야 한다. 기술전수의 일은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인나이은산을 겸임하면 될 것이다. 결국 한잠도 못자고 시스토는 새벽 일찍 일어나 로구사에몬을 찾아가 어제 저녁의 일을 터놓았다. 이야기를 듣고 로구사에몬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스퍼레이션일 가능성도 있지만 심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하며 한마디 부침한다.

로구사에몬 “그것이 지하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페토로히토미가 아주 기뻐할 것은 트림없네요.” 그날 밤 시스토는 로구사에몬과 같이 림씨 두목의 집에 들렸다. 림씨 두목과 부인도 시스토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림씨 주인의 의견은 로구사에몬의 의견과 같다. 림씨 주인 “나는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가야 하는 것일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산다유 두목이 대단한 기뻐할 것은 틀림없을거야.”

로구사에몬도 림씨 두목도 시스토가 지하교회를 꾸리면서부터 14년간 보여온 리더십을 매우 신뢰해

왔다. 많은 성과를 올리고 지금도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시스토의 결단에 맡기자고 생각하고 반대라고도 찬성이라고도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림씨 두목 “시스토선생님이 간다고 결단하시면 나도 일가를 데리고 같이 가. 자, 정해 주시지요. 방해될 건 아무도 없는데요.” 이말을 들은 시스토는 한 이틀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신의 마음속의 재촉이 꺼버려질 것인가, 아니면 강해질 것인가? 결과 강해졌다. 하지만 역시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간다. 산다유 두목일가와 함께 출발해야 한다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드디어 시스토는 결단을 내렸다. 지하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가라는 의사라고 믿었다. 함께 가는 사람도, 남아서 배웅하는 사람도, 모두 그렇게 믿어 주었다. 모두가 열심히 협력해 주었으며 준비는 순식간에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일본해 위에 배가 간다. 아키타의 항구까지는 배로 간다. 계절은 여름이다. 뚝에 남풍을 가득히 받으며 배가 간다. 긴 배 여행이다. 림씨 주인일가와 산다후 주인일가의 20세전후의 젊은 호리고들은 힘이 남아 어찌지 못하겠다고 두덜거린다. 갑판우에서는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마리아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요아킴이다. 루이스는 호리고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풍을 받거나 멀리 보기를 즐기고 있다.

시스토 “이제 곧 아키타이다 카타리나. 모두 젊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서면 좋겠다고 하지만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카타리나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날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카타리나, 사랑하고 있어.”

카타리나 “기뻐요. 나도 사랑하고 있어요, 시스토.” 카타리나가 시스토에게 응석 부리며 안겨 든다. 시스토는 카타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감개무량히 말한다.

시스토 “역시, 우리들은 일본인 부부와는 다른것 같아.” 달라 붙었던 두사람은 서로 떨어져 얼굴을 마주보며 웃는다.

시스토 “이번 배 여행에서 또하나 더 좋은 것은 다망하거나 피로함에 방해되지 않고 아이들과 더깊이 마음을 나눌수 있게 된 거야.”

카타리나 “루이스와는 남자들끼리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시스토 “응. 배 여행이 시작된후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상대를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나도 요아킴도 마리아도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난 기실 부근 마을에서부터 광석선별 일을 하러 오는 많은 여자 아이들중 마음에 드는 여자 아이들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그 여자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며 터놓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이런 여자들과 결혼하면 두사람 사이에 참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일가.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여자였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국 고향땅 거기는 어떤 곳이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자세히 이야기 해 줘요 라고. 그래서 나는 카타리나에 대한 최초의 추억으로부터 전부 상기해 보았어. 루이스와 요아킴에게 생각나는 일은 모두 이야기했어.” 시스토의 눈과 마음은 언녕 조국에 날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시스토 “루이스와 요아킴은 나의 추억을 듣고 조국애를 같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어. 배 여행중에 루이스와 요아킴에게 생각나면 말하고 생각나면 말하고 하는 것이 한없이 기뻐...” 시스토는 미소지으며 카타리나의 머리를 양손으로 껴안아 자기에게 향한다.

시스토 “나의 마음 속은 카타리나에 대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어.” 카타리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시스토는 상냥하게 키스 해주고 껴안아 준다.

배는 아키타 항구에 도착했다. 구보타 성하에는 300명의 무사들과 마을사람들로 된 크리스찬 조직이 있었다. 대부분이 페토로히토미에 의해 세례를 하사받은 사람들이다. 배위로부터 뒤따라 내려오는 사람들 중 시스토와 카타리나, 림씨부부, 산다유는 다른 호리고들보다 무척 나이가 있어 보이므로 인차 알아 낸 모양이다. 곧 크리스찬 항구 역인이 인사를 하고 이름을 확인한다.

역인 “로구사에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항구에 도착되면 안내인을 데라사와까지 마중나오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니 길 안내역으로 두사람의 크리스찬이 유자와까지 함께 갑니다.”

그렇게 해주시니 매우 반갑다. 드디어 길을 갈수 있게 되었다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기뻐하며 힘차게 길을 재촉한다.

4일후 시스토 일단은 유자와에 도착되었다. 길 안내인 크리스찬에 따라 나간다. 큰 여관에 들어가니 안쪽으로부터 로구사에몬이 현관까지 마중나왔다. 얼굴색이 매우 하얗고 호리호리하고 귀여운 얼굴을 한 여자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 그 뒤에서 신분이 있을것 같은 무사가 매우 기쁜 얼굴을 하고 따라 나온다. 또 뒤에는 유복한 모양을 한 두사람이 서 있다.

카타리나 “야, 로구사에몬이다.”

마리아 “로구사에몬님” 마리아가 로구사에몬쪽에 양손을 펼쳐 오니, 로구사에몬은 다른 한손으로 가볍게 마리아를 안아 올린다. 마리아는 목에 달려붙는다. 전원이 정답게 로구사에몬과 만남일을 기뻐한다.

로구사에몬 “모두 배고플 건데요. 저녁밥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방에 짐을 내려놓고 인차 큰방에 집합하세요.” 여관의 사람에게 안내되어 오늘 저녁에 잘 방으로 들어갔다. 마리아가 로구사에몬에 안겨져 있으므로 시스토일가는 아직 남아있다. 로구사에몬과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인형과 같이 예쁜 아이다.

카타리나 “로구사에몬, 이 아이는 누군데.”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지요.”

카타리나 “에—, 정말이예요.”

마그달레나 “왜 정말이 아니야. 믿어지지 않나. 마-그-달-레-나-라고 해.” 카타리나와 시스토는 깜짝 놀란다. 머리 속에 오래동안 이미지 하고 있었던 마그달레나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9살되는 소녀 마그달레나의 몸매는 아직 아이지만 얼굴은 여자다운 아름다움에 넘치고 있었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나에 대한 나쁜말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 이 나쁜놈.” 그리고는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의 등을 힘껏 때려준다. 광하고 큰 소리가 난다.

시스토 “정말로 마그달레나구나.”

카타리나 “응, 그래.”

신분이 있을 것같은 그 무사들을 뒤돌아보고 또한 다른 두사람에도 시선을 주며 로구사에몬이 말한다.

로구사에몬 “시스토와 카타리나, 그리고 루이스, 요아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올리니 무사는 뜻밖이라는 얼굴을 하며 깊숙이 머리를 숙여 예를 한다.

페토로히토미 “시스토선생님, 선생님 부인, 어서 오세요. 인나이은산의 부교인 페토로히토미입니다.” 라고 인사하니 시스토와 카타리나 역시 깜짝 놀라고 어찌면 좋을지 몰라 로구사에몬을 바라본다.

로구사에몬 “크리스찬사이니 형제자매들과 같지요. 오늘은 신분 차이가 없이 하지요.” 그리하여 시스토도 서로 이름으로 상대하기로 하였다.

시스토 “페토로히토미님 금후 잘 부탁드립니다.”

페토로히토미 “천만에 말씀입니다. 우리야말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큰방에 모이지요.” 시스토일가가 여관 사람에게 안내되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배웅하고 페토로히토미가 로구사에몬에게 말한다.

페토로히토미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하고 순진할 것 같은 사람들이기에 예상과 달라 깜짝놀랐네. 어린 아이같은 부부들인데.”

로구사에몬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들 부부는 어린아이들과 같고 우리 일본인들과 다른 양는 매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앞으로 사귀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지요.” 시스토 일가와 림씨 일가, 산다유 주인일가가 큰방에 집합했다. 금방 본 무사가 인나이은산의 부교라는 것을

알고 모두 술렁거린다. 먼저 와서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던 페토로히토미를 주목한다. 때가 되니 페토로히토미가 일어서서 모두들 앉으시라고 하며 환영의 말을 올린다.

페토로히토미 “시스토 선생님, 그리고 부인님, 림씨 주인님, 산다유 주인님, 그리고 여러분, 인나이은 산과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지하교회의 본거지를 옮기기 위해 모두들 잘 모여 오셨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인 페토로히토미입니다.” 이시미에서부터 온 일단중, 어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다.

페토로히토미 “나는 초대 인나이광산 부교로 금방 임명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대발탁도 영전도 대출세도 아닙니다. 최근까지 나는 구보타 번의 무사들에게 서양식의 마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는 김에 크리스찬의 가르침도 배워 드렸지요.” 젊은이들의 긴장하던 마음은 이 말을 듣고 많이 풀려갔다. 페토로히토미의 인품에 모두가 끌려 들어 가고 있었다. 모두가 미소 어린 얼굴이 된 것을 보고 페토로히토미는 계속 말한다.

페토로히토미 “많은 가신들이 나로부터 세례를 받으므로 영주가 난처해하였던 때에 인나이은산이 열려 나를 밀어 넣기에 좋은 구멍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미 사양이 필요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두가 큰 웃음을 터뜨린다. 웃음이 꺾나는 것을 기다려 페토로히토미는 계속한다.

페토로히토미 “이렇게 되면 내가 겁내리라고 영주는 생각하시리라만 새롭게 열린 은산에서 더욱 크게 해보려는 것이 나의 본심입니다. 바로 지금보다 몇배나 더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가르침을 가르쳐 세례를 주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던 모두가 “오,,,” 라고 웨침을 올린다. 아주 성실한 이야기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페토로히토미 “이 몸에 덮쳐올수 있는 결과로서는 부교의 직을 면되고 구보타 번으로부터 추방이 될 것이겠지만 그 날이 올때까지 될수 있는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사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하교회를 전국의 광산에 펼쳐가는 여러분들의 일을 전력을 다해 봉사해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림씨 주인이 저도몰래 말 참견한다.

림씨 주인 “다시 말하면 원래는 살인범이나 도둑이었던 농들에게 은산 부교님이 가끔 가르치고 가끔 세례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림씨 주인은 언제와도 같이 재빠르게 장래 일을 구체적으로 이미지 하고 있었다. 알았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페토로히토미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림씨 주인 “참말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대단한 일이요. 꿈을 보는것 같아.”

페토로히토미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마을들로부터 백성들이 많이 일하러 와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도 사내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세례하여 주고 싶습니다. 물론 나의 부하들인 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또한 구보타번은 뜨내기가 되어 지방으로부터 온 농민들을 받아들여 땅짓기를 하여 살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보타 성하에서 많은 무사들, 마을사람들, 농민들, 모든 신분의 사람들 몇백명에게 세례를 하사하고 조직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인나이은산, 데라사와 가나야마를 중심으로 모든 신분을 포함한 크리스찬을 널리 조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으면 일당백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리아님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합쳐 서로 도움시다.” 남자들이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한다.

산다유 주인 “자, 자, 자, 해 내자.”

남자들 “자, 자, 자, 해 내자.” 시스토는 카타리나의 손을 꼭 쥔다. 떠들썩중에 카타리나는 시스토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고 듣는다.

카타리나 “무슨 일인데요 시스토” 시스토도 카타리나의 귀에 입을 가까이 하고,

시스토 “나중에 이야기 해, 내 마음속의 비밀을.” 시스토가 쾌활히 웃고 카타리나가 수긍한다.

그 후 두사람의 백성이 자기 소개를 했다. 데라사와 후지호에이와 데라사와 다로우에몬이다. 큰 방 전원의 저녁밥이 끝났다. 시스토, 로구사에몬, 림씨 주인, 산다유주인, 페토로히토미, 데라사와 후지호에이, 데라사와 다로우에몬 7명의 남자들이 다른 방에 자리를 달리 하려고 이동한다. 마그달레나가 짜증을 부린다.

마그달레나 “난 로구사에몬과 함께 있고 싶기에 같이 가게 해줘.”

로구사에몬 “안 돼. 밤 늦게까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 카타리나. 마그달레나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가 잠재워 주세요.” 카타리나가 마그달레나의 손을 쥐고 다른 방에 와 얼굴을 들여다 보니 우는 얼굴을 하고 있다.

카타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로구사에몬과 함께 있고 싶나.”

마그달레나 “아주머니는 카타리나라고 하지요. 로구사에몬과는 좋은 사이지요. 나는 로구사에몬을 아주 좋아해, 로구사에몬에게 내가 방해될까.” 마그달레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린다.

카타리나 “참,,,.” 카타리나는 동정심이 넘쳐 마그달레나를 상냥하게 껴안는다. 옆에 선 루이스가 묻는다.

루이스 “어느 정도 좋아해.”

마그달레나 “난, 로구사에몬과 결혼하기 싶을 정도로 좋아해.”

루이스 “어머니. 여기 사람들은 무언가 일본인들과는 다른데요.”

여관의 침실과 떨어져 있는 다른 방에서는 내일 이후의 전략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물론 시스토가 중심 인물이었다.

시스토 “여기에는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왔습니다. 갖고 온 것은 나의 정련 기술, 주인들 일가의 채광 채굴기술등 모두 일본의 최고기술입니다. 이 모든것을 페토로히토미님으로부터 불러 모여진 것으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전원이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적 입장으로 되면, 부근의 다른 광산으로도 지도자로 파견할수 있습니다.”

페토로히토미 “알겠습니다, 시스토선생님. 내가 이시미 은산으로부터 최고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왔다고 내일 아침 역인들에게 명해 알리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가 선도하여 데라사와까지 가고, 모레는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가고, 거기의 모두들에게 내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틀밤 후지호에이 씨와 다로우에몬의 집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내가 선도해 인나이은산에 가시여 될 수 있는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구사에몬 “아리마로부터 아키타까지 자주 오지 않으므로 세레는 페토로히토미님에게 맡기겠습니다. 될수있으면 데라사와 가나야마나 인나이은산의 두목들과 호리고들이 함께 세레 받을 때에는 ‘굳은 술잔’으로 쓰는 술잔에 조롱박으로부터 물을 넣어 세레를 하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토로히토미 “예, 무언데요. 그것이.” 페토로히토미가 눈을 크게 뜬다. 그리하여 로구사에몬과 두사람의 두목이 어떤 방식으로 세레를 하사하였던가를 설명하고 또한 30세까지 살 수 있으면 장수하다고 하는 호리고들의 인생과 삶의 태도 사고방식등을 함께 이야기 했다.

페토로히토미 “알겠습니다. 나도 술잔과 조롱박으로 세레를 하사하겠습니다. 광산의 일꾼들에 대해 나는 더욱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잘 이해한 뒤에 그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시스토는 그날밤 전략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 왔다. 카타리나가 알아 차리고 일어났다. 아이들과 그리고 마그달레나 역시 깊이 잠들고 있다. 이부자리에 들어간 시스토에게 카타리나가 묻는다.

카타리나 “시스토, 비밀이란 무엇인데.”

시스토 “카타리나. 모두가 희망에 기뻐하고 있었지만. 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는 단지 마음을 폭 놓았어.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무서웠어. 이렇게 무서웠던 일은 지금까지 처음이야. 나의 틀리는 생각에 따라 일이 진행되지 않았는가고 매우 두려웠던거요. 또한 이렇게 큰 지하교회의 지휘를 나 한사람의 결단으로 하는데 대한 책임감에 가슴이 무거웠던거요. 그러나 대장으로서 그런 기책을 보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여왔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리아님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소. 아, 무서웠어. 그리고 가슴이 찡그러질 것 만큼 무거웠어. 지금 처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마음이 놓였다라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이요.”

카타리나 “그랬어요. 난 아무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대장이야. 나도 모두와 같이 안심하고 따라왔어요. 시스토, 고마워요. 혼자서 모두들을 받들어 주셔서.”

시스토는 아직 하나님이 왜 여기에 저희들을 남겨놓은 것인가를 다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시스토는 감사의 심정으로 안도히 잠들고 있었다.

전략회의에서 상론한대로 페토로히토미는 모든 것을 실행했다. 새로운 산 부교가 이시미 은산으로부터 최고 기술자들을 불러 오고, 내일 모레 그들을 소개한다는 역인으로부터의 알림에 데라사와 가나야마, 인나이은산의 모두가 놀람에 차 의논한다. 당일에는 매우 화려한 데뷔가 되었다. 세계최고의 정련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가장 진보한 이시미 은산으로부터...라고 하고, 또한 최신의 측량 기술을 이용한 갱도 파는 방법의...이라고 하며 모두 떠들썩인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도 거짓말은 없다. 그리고 소탈한 광산의 부교가 이시미로부터 오신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표

한다. 맞이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기뻐한다. 모두도 와서 얼마 안되며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인나이는 산에 장래의 돈벌이 꿈을 걸고 온 것이었다. 여기는 장래성이 보증된 것과 같다. 이렇게 환영을 받은 후 시스토 일가와 림씨주인 일가는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산다유주인 일가는 은산에 안착되었다. 그들의 일은 또한 은산 부교의 응원을 받으며 이땅에서 더욱 널리 발전하여 가고 있었다..

1608년10월, 시스토는 정련 일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 루이스와 요아킴도이다. 고려식의 온돌방집을 목수들에게 세우게 하기 위해 하루종일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림씨 주인의 집도 합쳐 두채를 짓는다. 루이스와 요아킴은 온돌이 무언지 모른다. 온돌을 만드는 방법을 시스토는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카타리나는 일본의 북방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겨울준비에 고려에서 쓰던 가죽 장갑과 목긴 구두를 만들려고 후지호에이에게 상문하러 갔다. 마리아는 시스토와 다른 아이들에게 말했다.

카타리나 “후지호에이씨. 모피와 유피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후지호에이 “파는 곳이 있지요, 카타리나씨. 조금 걸습시다만 함께 가보실가요?”

카타리나 “예. 좋습니다. 그런 가게가 있는줄 몰랐지요.”

후지호에이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마을에서부터 나가 거리옆에 몰려 사는데 거기에 가면 모피도 무두질한 유피도 팔고 있지요.”

카타리나 “불쌍한 사람들인데. 난 그 사람들과 서로 알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후지호에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후지호에이는 카타리나의 대답을 듣고 좋은 기회이니 마그달레나도 데리고 가자고 생각한 것이었다. 대주인집 저택은 아주 넓다. 마그달레나를 부르러 갔던 후지호에이가 잠간후 마그달레나와 함께 나온다.

마그달레나 “마리아의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마리아는 건강해요.”

카타리나 “마그달레나. 잘지내. 마리아는 건강하다.” 출발한 세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큰 거리로 나와 북쪽으로 잠시동안 걸으니 길옆에 가게가 있었다. 가게의 뒷편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이다. 가게에는 반달가슴곰, 사슴, 영양, 원숭이등의 모피, 소나 말의 유피가 있었다. 가게의 주인이 안쪽으로부터 나온다. 카타리나는 친구가 되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스스로 말을 건다.

카타리나 “저, 나는 고려로부터 와서 지금 데라사와에 살고 있는 카타리나라고 합니다. 가죽 장갑이나 목긴 구두를 만들수 있는 가죽을 사러 왔는데요.” 가게 주인은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웃는 얼굴을 한다. 한센병을 한 얼굴은 상처투성이다.

가게 주인 “카타리나씨. 아주머니는 혹시나 크리스찬이 아니십니까?”

카타리나 “예 그래요.”

가게 주인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미카엘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뿐이지만 모두 크리스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마그달레나는 미카엘의 얼굴이나 손에 있는 상처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매우 긴장해 한다. 한센병 환자를 처음으로 보는 것이다.

미카엘 “로구사에몬이라고 하는 동숙이 매년 몇번씩 오고 있습니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과 친구예요. 미카엘 아저씨.” 마그달레나는 갑자기 생기를 띠운다. 마그달레나에게는 로구사에몬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카타리나도 후지호에이도 깜짝놀랐다. 로구사에몬이 여기로도 온다니.

마그달레나 “나, 마그달레나도라고 해요. 로구사에몬의 친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카타리나 “우리들 모두 로구사에몬과 한집 사람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이분은 후지호에이씨이고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미카엘 “놀랍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카타리나씨. 그런데 나는 ‘마타기’ 라고 하며 사냥을 해서 살아 가는거요. 마타기도 가죽 장갑이나 긴 구두를 사용하지요.” 카타리나는 ‘마타기’ 라는 것이 무언지 몰랐으므로 미카엘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는다. 이 부근의 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반달가슴곰, 사슴, 영양, 원숭이, 멧돼지등이 있다. 강에는 또한 물고기가 가득 있다. 그것들을 잡아먹고 생활하는

것이 '마타기' 이다. 모피를 파는 것 뿐이 아니다. 웅담과 같은 동물유래의 약재도 만든다. 이야기는 동물의 내장을 어떻게 약으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변해 버렸다. 카타리나의 눈이 빛나기 시작한다. 영양의 위와 장은 아주 맛 좋더라든지 '마타기'는 영양의 간장을 생채로 먹는더라든지 하는 이야기다. 카타리나가 참지 못해 묻는다.

카타리나 “미카엘씨. 나 간장이나 소장이나, 특히 간장을 살려고 하는데 될수 있을까요?”

미카엘 “될수있고 말고, 그러면 내가 '마타기' 패들에게 사냥했을때 내장이나 특히 간장을 카타리나 씨에게 팔라고 부탁해 놓지요.”

카타리나 “예. 고마와요. 절대 부탁드립니다.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있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집이 에요. 그리고 미카엘씨, 지금 우리를 모두들과 만나게 해 주실수 있는가요. 로구사에몬의 친구인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무언가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고 싶어요.”

이리하여 행동이 빠른 카타리나는 이날로 한센병 환자들 모두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로하여 '마타기' 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급히 지어놓은 작은 살림집 안에서 시스토일가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금방 사온 모피와 유피를 카타리나가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카타리나 “병이 중한 사람들을 병이 경한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서로 도와주어야 하지요. 그들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빌어먹고 살고 있지요. 내가 쇼핑하여 주어 많이 방조 받았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모두 매우 가난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자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자구요.” 시스토는 이시미 은산에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카타리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일이 성사되었던 것을 상기하며 듣고 있었다. 또 같은일이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스토는 카타리나의 동정과 사랑으로 된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 축복되는 것을 체험해 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카타리나를 신뢰해 말했다.

시스토 “이제 곧 돈을 가지고 갈다 와.”

카타리나 “야, 기뻐요. 고마워요 시스토. 그리고 난 이 일을 페토로히토미님에게 이야기해 드리지요. 꼭 페토로히토미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세례하여 드릴것이에요.” 매우 단순한 카타리나이다. 시스토도 그것대로 좋다고 생각한다. 카타리나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감탄한다.

카타리나 “그리고 시스토, 마타기 미카엘씨가...” 카타리나는 짐승의 간장이나 소장등 내장을 입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시스토 “대단하네, 좋은 일이야. 하지만 어떻게 요리할 작정이요?”

카타리나 “이 지방의 된장은 매우 달콤하지요. 맛있지요. 그 된장으로 남비 요리를 하지요. ‘아버지의 마늘’ 을 많이 넣으면 꼭 맛있을거요.”

카타리나는 ‘아버지의 마늘’을 여기 데라사와에까지 가지고 오고 있다. 또한 카타리나가 마음에 들어 하는 이 지역의 된장은 다른 지역의 된장과 비교하지 못할만큼 누룩이 많이 배합되어 있다. 하기에 단맛이 강하여 레버나 호르몬에 맞는 것이다.

카타리나는 우선 림씨 부인과 마그달레나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한센병인의 오두막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음식물이나 때나무가 떨어지지 않는가고 걱정하며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 드렸다. 세 사람은 페토로히토미를 만나 이 이야기를 했다. 페토로히토미는 꼭 가보겠다고 대답하며 한센병인의 오두막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페토로히토미는 인나이산 부교라고 하기보다 크리스찬 전도사다. 그리하여 한센병인 전원에게 세례를 하사할 준비가 시작되었다.

시스토에게 배워 온돌집 두채가 지워졌다. 카타리나는 가족 장갑과 장화를 가족들에게 만들어 드렸다. 마타기 미카엘의 덕택으로 그의 마을 패거리들이 레버와 호르몬을 팔러왔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것으로 남비요리를 만들어 림씨일가를 부르고 두채의 집 완공을 축하하기로 했다. 부뚜막에 있는 오나베에는 레버와 호르몬과 야채에 된장과 마늘을 푹 넣어 끓인 음식이 있다. 부뚜막 연기는 온돌방의 마루 밑에 들어가 바닥을 데우고 반대쪽 굴뚝으로 나가고 있다. 시스토는 우선 모두를 온돌방에 올라와 보라고 했다. 바닥이 따뜻한데 대해 모두가 감탄한다. 모두 시스토를 칭찬한다.

호리고들 “시스토 선생님, 대단합니다.” 시스토는 고려 기술이 칭찬받는 일이 흐뭇하다.

시스토 “나는 조금도 대단할 것 없습니다만. 하지만 고려의 온돌방은 참말로 세계 제일 좋습니다.” 카타리나가 공기에 담은 남비요리를 모두에게 나누어준다. 레버와 호르몬을 작게 잘라서 푹 끓였다.

카타리나 “모두 들어 보세요. 내가 만든 요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드신 후에 맞추어 보세요.”

호리고들 “잘 먹겠습니다.” 모두 요리가 맛 좋다고 하며 그 솜씨를 칭찬한다. 한 그릇 더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많다. 남비는 순식간에 비어져 간다. 그러나 모두는 료리에 레버와 호르몬이 들어 있는 줄은 모른다. 우렁이 남비기에 우렁이의 동료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카타리나 “쓴 맛이 나는 것이 영양의 간장이고 씹기 좋게 맛 있는 것이 영양의 소장이예요.”

호리고들 “뭐라고, 동물의 내장이라고.”

카타리나 “간장과 마늘로 정력이 보충되는 것이예요.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호리고들 “또 대접받고 심습시오. 또 먹으러 오지요.” 림씨 주인은 이 대화에 크게 웃는다. 림씨 부인은 카타리나를 도우면서 처음부터 배웠지만 조심조심 먹고 있다.

림씨 주인 “내가 이름을 붙여줄께. 카타리나 남비라고 해. 이제부터 모두 카타리나 남비 라고 불러.” 이로부터 자주 카타리나 남비는 호리고들을 접대하는데 쓰이게 되었다. 어두운 갯도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체력이 오래 지속되며 몸이 따듯해 지고 추위에 강해진다. 레버와 마늘의 효과로 호리고들의 건강이 한껏 더 좋아진 것 같다.

1612년 봄, 이 해에 인나이 은산의 연간 은산량이 20톤이 되었다. 인구가 2만명밖에 안되는, 급속히 발전한 이 은산에 또 한사람의 부교가 임명되어 왔다. 그전에 페토로히토미로부터 세례를 받은 구보타번의 유명한 가신인 페토로우메즈 마사가게이다. 두명의 산 부교 체제로 되었으며 두사람 모두 크리스찬이다. 이 지방에서 페토로히토미는 구보타 성하에 육년간에 몇배 되는 사람들에게 친히 세례를 하사했다. 카타리나로부터 부탁되었던 한센병인 오두막집 사람들 전원에게는 물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사하였다. 두사람의 크리스찬 산 부교에게서나 시스토나 카타리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던 것은 동시기에 프란치스코회의 동숙들중의 몇 사람이 뒤를 이어 태평양쪽으로 부터 일본해쪽으로 산을 넘어 데와에 들어오고 인나이로 순회하여 크리스찬들을 격려해 준 것이었다. 그들은 에도로부터 센다이에 온 동숙들이다. 그들은 에도에서도 한센병인들을 보살펴 주고 있었다. 프란치스코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력을 들여 전도하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카타리나, 림씨 부인, 마그달레나, 야에라고 하는 데라자와촌 백성의 따님으로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정련 부문의 광석 선별 일을 하러 와 있는 14세의 여자 아이, 이 네 사람이 하고 있는 한센병인들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자선활동을 지원하여 이 네 사람들과 함께 한센병인들의 오두막집에도 가 주었다. 그리하여 카타리나들과 더욱 정다운 사이가 되었다. 그들은 마그달레나의 집, 즉 데라사와 후지효에이의 집에 숙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산 부교들과도 서로 만나 고무격려하고 있었다. 야에는 장남 루이스가 마음에 들어 시스토가에 데려 온 아이이다.

1612년 가을의 하루 밤, 19살이되는 루이스와 15살이되는 야에는 내일 결혼하게 되었다. 밤 늦도록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루이스는 식탁을 마주하고 서로 이야기했다. 돌연 루이스는 정색하고 이야기한다.

루이스 “아버지. 기실 나는 아버지가 언제나 부러워요.”

시스토 “왜.”

루이스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일치되고 있지요. 신앙도 하나이고 사랑도 하나로 되고 있지요. 같은 조국을 사랑하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요. 아버지는 조국에 돌아갈 수 없지만 아버지의 조국은 어머니이지요. 위로도 편안함도 따뜻함도 기쁨도 모두 어머니에게서부터 받고 있지요.”

시스토 “정말 그래.”

루이스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와 같은 행복한 남자가 되겠어요.”

카타리나 “나에 있어서는 시스토가 조국이야.”

루이스 “응, 야에에게 나도 꼭 그런 남편이 되어 그애를 행복하게 해 주겠어요.”

그 다음날, 페토로히토미가 와서 두사람의 결혼식후에 야에에게 세례식을 해 주었다. [아가타]라는 세례명을 페토로히토미가 쳐 주었다. 시스토가의 크리스찬 신부가 된 것이다. 모두 대단히 기뻐한다. 좋은 사이가 된 마타기 마을 사람들이 전날에 사냥한 짐승들의 레버와 호르몬을 축하로 보내주어 왔으므로 카타리나 남비가 준비되어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게 되었다. 카타리나 남비의 평판도 이로 하여 더욱 널리 알려져 간다.

봄에 온 프란치스코회의 동숙들은 카타리나가 고려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자기들의 최대의 지원자였던 고려인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오타쥬리아라고 하는 이름이다. 에도성에 5년전인 1607년 여름까지 있었으며 지금은 스루가에 가 있지만 에도에 있는 사이에

프란치스코회의 바도레들, 수도사들의 활동을 다액의 기부로서 도왔주셨을 뿐만아니라 가난한 크리스찬을 위해 옷이나 음식물을 많이 내주었다. 에도성의 일도 많이 가르쳐 주고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한다, 지금은 이 사람, 아니면 저사람을 방문해야 한다는 등 많은 조언을 주고 계셨다고 한다. 또한 지금 제일 활약하고 있는 크리스찬은 하찌칸 호아킨이라고 하는 고려인으로서 루이스·소테러 신부를 자기집에 청해들여, 집을 교회로 하고 있으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고려인 아내와 둘이서 세례를 받고 2년전부터 프란치스코회의 신심 단체의 회장으로로서 사업하고 있다고 한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에도에서 크리스찬의 중심으로 된 사람이 고려인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놀랐다.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있는 이 두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다.

33-56 두명의 동포... 오타주리아와 하찌간·호아킨

1612년11월, 로구사에몬이 데라사와에 왔다. 시스토 가족 전원, 림씨 두목과 부인이 마그달레나의 전달을 받고 후지호에이의 저택에 모여 왔다. 다로미기에이문도 와 있었다. 마그달레나는 13살이다. 될수록 로구사에몬의 옆에서 돌고 로구사에몬만 응시하며 기쁜 심정을 숨기지 않는다. 꾸밈 없는 행동에 모두 그애의 유쾌한 심정에 끌려간다. 마그달레나가 좋아하는 로구사에몬은 매년 몇번밖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다. 마그달레나가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그 로구사에몬의 얼굴은 무언가 슬퍼지고 있고 평시와는 달리 보인다.

로구사에몬

“도구가와이에야스가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스푸에서 크리스찬의 가신 14명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추방하였습니다. 4월17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택의 어전 여자들중에서는 가장 열심히고 신분이 높은 고려인이 13일후에는 정배의 선고를 받고 이즈의 오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에. 혹시 오타주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로구사에몬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 다음날 성하의 모든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후 6월에는 아리마에서는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새로운 영주가 가신들과 선교사들에게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미나리요와 코레지오는 나가사키에 피난하고 신부나 수도사들도 대부분이 나가사키에 이동했지요.”

이에야스의 박해의 사실을 듣고 시스토의 얼굴은 흐려진다.

시스토

“여기 령내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시작될 것이네요.”

로구사에몬

“령내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카타리나

“정다운 아리마. 대리 아버지 어머니의 가족 여러분이 계시고, 그리고 로구사에몬에게는 고향땅이지요..”

카타리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여 새파래진다.

로구사에몬

“그리고 또 에도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4월말에 프란치스코회의 수도원이나 일본어 학교, 교회, 동숙 양성소, 병원이 파괴되어 추방되고, 거주소를 잃은 파도레와 수도사들에게 단 한 사람이 용감하게 숙소를 제공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자택 감금이 되어 있대요..”

카타리나

“아니, 그 사람. 하찌간·호아킨이라는 분이 아니세요..”

로구사에몬

“그렇지요. 잘 아시네요. 그 후에도 성내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3700명 크리스찬 명부가 되었다고 해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봄에 알게된 두 동포중 한사람은 정배가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자택감금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매우 괴로워졌다.

림씨 두목

“3700명의 에도 크리스찬들 중 한사람밖에 선교사에게 거주소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니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될것 같구나..”

다음날, 로구사에몬은 페토로히토미, 페토로우메즈, 산다유 두목들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시스토는 로구사에몬에게 만약 에도에서도 박해가 시작되면 하루 빨리 알리라도 부탁했다.

33-57 에도의 박해와 크리스찬들의 고통

1613년8월, 로구사에몬은 에도의 박해가 시작된 것을 알리기 위해 데라사와까지 부랴부랴 왔다. 3700명의 에도 크리스찬 명부에 의해 7월27일, 크리스찬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된 것이다. 전번의 멤버가 모두 후지호에이의 저택에 모였다.

로구사에몬

“도쿠가와히데타다의 명령으로 1500명의 명부에 올려진 분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명을 내놓고는 모두 크리스찬 신앙을 버리려는 서약을 맺고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는지 반개월후인 8월12일에는 아사쿠사의 한센병원이 수색되고 루이스·소테러 신부와 같이 일하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모두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로구사에몬 일행이 에도에 향하고 있었을 때였다. 돌연 카타리나가 아상한듯이 입을 연다.

카타리나

“만약 참말로 예수를 신앙한다고 할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 신앙을 버린다는 서약을 역인에게 한 순간 예수가 미워질수 있을까.”

남성들은 이 질문에 깜짝 놀란다. 여성들도 눈동자를 반짝이며 입을 열려고 한다.

카타리나

“난 예수의 큰팬이에요. 다만 그것만이지요. 그외는 아무것도 생각 하지 않지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강박이라든, 고문에 항복할수도 있고, 서약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생 그일을 후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앙하는 마음은 변함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림씨 부인이 림씨 두목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림씨 부인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지요. 나도 다만 그뿐이에요, 그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항복하고 서약하고 지금의 나보다 더욱 더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불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림씨 두목은 평시에는 들을수 없었던 림씨 부인의 말에 깜짝놀란다.

야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해 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 사람에게 상처을 입혔는데도 그 사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면 더욱 나의 모든것을 드리고 싶어지지요.”

이제 금방 신혼인 야에가 불을 빨갱게 물들이며 말한다.

야에

“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단지 훌륭한 예수를 마음에 그려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기뻐서 참을 수 없네요. 훌륭한 예수를 미워하라는 건 되지않아.”

마그달레나는 평소와 같이 로구사에몬의가 옆에 앉아 불타는 표정을 짓고 있다.

마그달레나

“참말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갑자기 미워하라고 하니 될수 없어. 나, 예수에 반해 신앙하게 되었어. 그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신앙을 가진 그때부터 떨어질 수 없게 되었지요.”

언제와 같이 강박한 성격을 들어내는 여성으로서의 마그달레나이다.

마그달레나

“절로 많이 생각해보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신앙한 만큼, 그보다 더 큰 이유나 목적이 없는 지금의 신앙을 버릴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서 들어선 길을 떨어지라 해도 그렇게 할수없지요. 더욱 더 스스로 따라가고 싶지요.”

14세의 여자 아이 마그달레나가 남자 어른과 같이 이론하는데 대해 모두 감탄하고 있었다. 생각하는 방식까지 남자들과 같은 그 모습을 아이때부터 보아왔던 후지호에이, 고구사에몬과 그외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마그달레나

“내가 항복하고 서약해 버린다면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되어 더 필사적으로 지금보다 더욱 강렬하고 열심히하지 않을까요. 슬프게 되신 예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가를 필사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일생 몰두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마그달레나의 말에 다른 여성들 모두가 크게 수긍하고 있었다. 동감이고 찬성이라는 의미이다. 이번에는 9살 되는 마리아가 말한다.

마리아

“난 먼 나라에 멋진 왕자님이 있고 언젠가 나를 만나러 오고 결혼해 준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 왕자님을 아주 좋아하게 될것같아. 마음 속으로 그 왕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보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

옛날 이야기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발언에 모두 생글생글 웃으며, 주위의 분위기가 유쾌해졌다. 마리아는 아직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

시스토

“여자들이 발언해 주셔서 나는 매우 방조가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지하교회에 무엇을 하려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꼭 지금까지 없었던 무엇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이 지하교회가 박해되어 신앙을 버리고 서약한 사람들을 마중나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림씨 두목

“마중 가는 것이요.”

시스토

“예. 그렇지요. 마중 가면 그들은 참말로 순수히 예수를 사랑하고 꼭 광산에 오실 것입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성들

“예.”

시스토

“광산은 치외 법권이기에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야스가 광산노동자는 광석을 도장 대신으로 갖고 있으면 관문을 통과할수 있다고 정했기에 도장을 대신할수 있는 광석을 준비하여 마중가는 것이요. 나로부터 지하교회의 여러 두령들에게 지령을 내지요. 박해가 일어난 곳에 크리스찬을 마중가지요. 두령들 자신이 갈 것인가, 아니면 호리고 아이들을 보내게 하지요.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원내은산으로부터 내일이라도 호리고 아이들을 에도에 보내요. 빨리 가는 편이 좋아요. 많은 호리고 아이들이 이 지령을 갖고 일본중의 지하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요.”

림씨 두목

“에도에는 내가 스스로 마중가지요. 이것은 지하교회의 하나의 ‘내기’요. ‘큰 도박’이야. 이런 귀중한 일을 호리고 아이들에게만이 맡긴다고 하는건 불안하지.”

로구사에몬

“내가 길 안내하지요.”

시스토

“나도 에도에 마중 가지요. 그럼 내일은 지하교회를 호리고 아이들에게 분담시키는 일을 우리 세 사람이 끝내고 모레는 에도에 빨리 갑시다.”

33-58 박해에 찬 에도, 고아 아이 쿠라라

산타후 두목도 함께 가게 되어 일행은 모두 합쳐 네명이 되었다. 그들이 빨리 간것이 매우 정확했던 것이다. 시스토 일행 네명이 에도에 도착한 그저께날과 (8월 16일) , 그 전날에 (8월 17일) 22명이 처형당해 순교하였던 것이었다. 에도 전체가 그 일로 떠들어 있었던 때이라 정보는 빨리 귀에 들어왔다. 네 사람은 재빨리 처형장으로 나갔다. 하치칸·호아킨과 그외 주요 크리스찬 8명의 목이 달려져 있었다. 22명의 몸은 잘게 잘라져 산처럼 쌓여져 있고 다른 크리스찬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다.

존경을 담아 기원하는 그들의 모습은 크리스찬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뻔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성스러운 순교자의 인연 깊은 물건을 입수하기 위해 멀리서부터 온 것이다. 시스토 일행은 그 사람들에게 차려로 말을 걸며 광산의 호리고가 되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지 않겠는가고 권유하고 숙박시켜 주지 않겠는가고 물어 본다. 이리하여 순교자들의 시체를 다 정리할 때까지 일주일간 시스토 일행은 처형장에 계속 다녀왔다. 시스토 일행의 활동 결과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 대부분의 에도 크리스찬들은 물론, 기순하여 서약한 사람들도 광산에 갈 마음을 다졌다. 처형장에는 다른 광산으로부터 지령을 실행하기 위한 두목들이나 호리고들이 뒤를 이어 도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로구사에몬은 코디네이트역으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 날, 처형장에서 시스토는 열 살 정도되는 여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시스토

“왜 이렇게 혼자 울어.”

여자 아이

“아버지가 순교하고 난 고아가 되었어요.”

시스토

“이름은 뭐라고 해.”

여자 아이

“쿠라라.”

시스토

“쿠라라, 불쌍한 애야, 어머니도 사망하셨나.”

쿠라라

“어머니는 한센병으로 사망했어요. 어머니가 한센병 병원에 수용되어 가족 셋이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한센병 병원에서 활동하게 되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도 그냥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스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

쿠라라

“집이 없어요. 다리 밑에서 살아요. 걸식을 해 먹고 있지요.”시스토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멈출수 없었다. 이런 불쌍한 아이를 모르는체 할수는 없다.

시스토

“난 시스토라고 한다. 크리스찬이다. 함께 가자, 아버지가 되어 줄게.”

쿠라라

“예, 고마워요.”

시스토

“쿠라라, 너 몇살이나.”

쿠라라

“아홉살.”마리아와 동갑이다. 쿠라라는 시스토의 손을 꼭 쥐고 따라간다.

다음날, 숙박하여 주었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출발한다. 만날 약속을 한 장소에 모여 함께 간다. 어제 부터 쿠라라도 같이 와 있다. 시스토의 손을 잡고 있다. 만날 약속을한 장소에 온 사람들은 노인, 아이,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100명도 훨씬 넘으며 거개가 마을 사람들이다. 모두 근처의 집과 가재를 버리고 나왔다. 자 출발이다. 림씨 두목과 산타후 두목이 선두에 서 걸는다.

이렇게 하여 금방 신앙을 버리려는 서약한 크리스찬들이 가족을 데리고 어딘가 가 버렸다고 하는 바쿠후에 대해서는 알수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또한 크리스찬들이 광산에 도망해 가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수 있다는 정보가 에도 전체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33-59 에도로부터의 귀환, 요아킴의 결심

1613년9월, 데라사와 가나야마에 시스토와 림씨 두목이 에도의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을 림씨일가가 보살펴 보는 패와 산타후일가가 보살펴 보는 패, 두 패로 갈라져 모두 약50명이 된다. 시스토가 바싹 여윈 여자 아이의 손을 이끌고 있었다. 쿠라라이다. 마중나온 카타리나와 마리아, 야에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

카타리나

“시스토. 다녀오셨어요.”

마리아와 야에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세 사람이 달려 와도 시스토는 쿠라라의 손을 놓지 않는다. 카타리나의 주의를 곧 쿠라라에 향한다. 불쌍한 모습이다.

카타리나

“이 아이는 어떻게 된 일인데요. 시스토.”

시스토가 쿠라라의 신상을 이야기해 준다. 카타리나는 쿠라라의 다른 한 손을 쥐고 들고 있다. 카타리나의 눈으로 인차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시스토

“카타리나. 이 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카타리나

“물론이지요. 좋고 말고. 쿠라라, 새 어머니다.”

카타리나는 쿠라라를 가슴에 꼭 껴안는다. 그 다음으로 야에가 상냥하게 쿠라라를 안는다.

야에

“너의 새 언니이다. 사이 좋게 지내자.” 아버지쪽에 달려들어 응석 부린던 마리아가 그 다음 달려온다.

마리아

“나도 아홉살이야. 기뻐.”

마리아는 같이놀 상대자가 생긴것을 매우 기뻐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림씨 부인의 대 활약하고 있다. 이로부터 림씨 부인이 갖고 있던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된 것이다.

림씨 부인

“선생님 부인. 야에. 도와주세요.”

림씨 부인은 몇십명이나 몇백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자이다. 게다가 모두에게 눈이 달고 차별감 없이 보살펴 줄수 있다. 그리고 천성으로서의 두목기질이 강해 일을 척척 해낸다.

부하들의 총동원으로 림씨 부인이 저녁까지 아무쪼록 모두에게 주거를 정해 주었다. 카타리나, 야에, 마리아는 저녁 식사준비다. 바로 “마타기”의 마을사람들이 레버와 호르몬을 가져왔기에 카타리나 오나베가 준비되었다. 큰 가마의 저녁밥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직장으로부터 루이스와 요아킴이 돌아와 시스토가 쿠라라를 소개하였다. 열다섯살이된 요아킴은 카타리나처럼 동정심이 풍부하여 쿠라라의 신상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상냥한 오빠의 사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요아킴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보살펴 드리지요. 쿠라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켜 줄께.”

요아킴은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다. 사실 쿠라라는 아후 요아킴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부터 카타리나와 림씨 부인은 크리스찬들을 하나의 큰 가족으로서 구체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력은 여자들이다. 금후 손실고 고중한 노동을 하는 남성들을 어떻게 방조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다. 음식과 옷 갖추는 방법, 부상자, 환자의 간호, 유아, 노인들의 보살핌, 모두를 협력해 가도록 가르친다. 열살 넘는 아이들은 광산 일을 돕고 그 이하 어린 아이들은 크리스찬 공동체의 일을 도와주도록 가르친다.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년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기술로서 일한다. 이로부터 1623년말까지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크리스찬 공동체는 사랑과, 일치와, 협력으로 약10년간 천국과 같은 훌륭한 공동체로 발전된 것이다. 이를 모범으로 원내은산의 크리스찬 공동체도 서로 돕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다. 마그달레나, 야에와 같은 고향사람들은 이 땅의 춘하추동을 사는 지혜를 가르쳤다. 예를 들면, 산나물 따기, 곰 쫓기, 물고기 잡기, 등애의 대책, 살무사의 대책, 밭짓기, 의식주의 겨울 준비, 김치 담기등이다.

처음으로 오는 크리스찬 가족들이 있을 때마다 림씨 부인의 질타격려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림씨 부인 “여러분, 제집 노인들이든지, 다른 집 노인들이든지, 모두 잘 보살펴 주세요..”

림씨 부인 “제집일이든지, 다른집일이든지 구별하지 말고 잘 해주세요.”

림씨 부인 “남은 것은 다 내 놔요. 생활이 구차한 사람들이 가져다 쓰게 해요.”

모두가 크리스찬의 애독실천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실천해 간다.

독신자가 주체로 되었던 광산의 모습이 이 때로부터 일변했다.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여기저기 보인다. 상냥한 어머니들이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젊은 크리스찬들의 딸들도 청아한 꽃과 같이 피어 난다. 독신인 호리고들은 크리스찬들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어 크리스찬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림씨 두목의 말대로 시스토의 ‘내기’, ‘큰 도박’은 대성공이었던 것이다. 순교를 선택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려 서약했던 사람들, 또는 박해전에 도망해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 마음속으로 속죄하려는 희망을 안고 광산으로 도망해 온 것이다. 그들은 무어나 다 버리고 왔기에 크리스찬들 서로의 사랑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갈 수 없다. 그 속죄의 마음을 동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동으로 나타내,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선덕을 한다. 사랑과, 일치와, 봉사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다.

시스토가 지하교회를 꾸려서부터 이미 19년이 된다. 또한 일본의 북쪽 땅인 데바에 와서 활동을 계속 하여부터 5년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지하교회의 네트워크가 완성되어 있는 때이다. 어느 광산에도 크리스찬 두목이 있다. 지금의 훗카이도로부터 에조의 광산까지이다. 그리고 박해를 받고 쫓겨난 크리스찬들이 일본의 북쪽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되고, 규슈 지방으로부터 간토의 북쪽이 되는 동북지방으로 도망해 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시스토에게 지하교회의 중심을 데라사와 가나야마, 원내은산으로 빨리 옮기도록 하고, 특히 동북지방의 광산을 크리스찬들을 받아 들이는 곳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던 것이다.

카타리나에게는 이젠 일손이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게 되었다. 10월이면 마리아가 열살이 된다. 광산에서는 어른과 함께 일하게 되는 나이이다. 야에라고 하는 그 고향 출신의 믿음성 있는 며느리도 있게 되어, 카타리나는 더욱 크리스찬들의 자선 활동에 몰두해 갈수 있었다. 그 후에도 뒤를 이어 크리스찬들이 도망해 왔다. 그들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온다. 겨울 추위와 쌓여진 눈. 그들의 갓난아기로부터 노인들까지 무사히 겨울을 보내게 하기 위해 카타리나는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 몸바쳐 일해간다. 카타리나가에 의해 이루어진 커넥션이 최대한으로 작용한다. 한센병인의 가계에서 따듯한 모피를 많이 샀다. 마타기의 마을에서 사냥한 레버, 호르몬, 짐승고기를 될 수 있는 대로 빈번히 팔러 오도록 한다. 카타리나 남비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두목이 독신인 호리고들을 일생 보살펴 준다고 하던 여태까지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새롭게 서로 돕는 모습이 지금 카타리나를 중심으로한 여자들, 특히 부인들의 헌신적인 전 공동체 봉사에 의해 완성되어 간다. 우선 데라사와 가나야마로부터 원내은산으로 모방되어 간다. 그리고 또 다른 광산으로 널리 퍼져 간다. 두사람의 크리스찬 부교들도 크리스찬들을 스스로 보살펴 주었다. 특히 페트로히토미는 지난 5년간 시스토가 정련 기술과 크리스찬들을 가르치고 지하교회를 확대하게끔 데바의 많은 광산으로 파견해 주었다.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원내은산에서는, 역인들, 즉 무사들을 크리스찬으로 받아들였다. 또, 많은 두목이나 산스승들을 크리스찬으로 양성하고, 크리스찬 두목들을 다른 광산으로 보내는 활동을 힘을 합쳐 해주었다. 이 두 광산의 두목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에서 많은 새로운 크리스찬 두목들이 태어나고 다른 광산에 파견되어 갔다. 또한 이 두사람의 부교가 전도하므로 이웃 마을의 농민들 마타기의 마을 사람들도 가족전체로 크리스찬이 되어 세례를 받는례도 있었다. 1603년부터 1604년의 겨울,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원내은산은 어디로 가나 크리스트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빛은 누구의 눈에도 잘 보여지고 있었다. 사타케 요시노부, 데바 전하님의 눈에도 보여지고 있었다. 전하님은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모르나 많은 광산역인이 페트로히토미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구보타 시로시타의 무사나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사한 그를 성하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데바의 한쪽곳이 되는 원내에 보냈던 5년전에 비해 원내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은 출산량이 연년 높아가고 원내은산의 이름은 일본중에 유명해져 원내는 구보타 성하보다도 더 활기를 띠게되고 구보타 성하보다도 더 이름을 날리는 곳으로 되었다.

운명의 날, 1614년 2월 1일이다. 바쿠후는 전국적인 금교령 크리스찬 추방령을 내렸다. 이 알림이 사타케 요시노부에게 전해졌을 때 요시노부는 재빨리 페토로히토미의 부교직을 면하고 데바로부터 추방했다. 사타케 요시노부는 페토로우메즈에 대해서는 크리스찬 신앙을 버리게끔 설득하였다. 만약 그가 크리스찬 신앙을 버리면 다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조건을 냈다. 페토로우메즈는 이 조건에 응했다. 전하님은 약속을 지켰다. 데바에서는 이 두사람외 아무도 박해를 받지 않았다. 이때로부터 페토로우메즈는 출세의 길을 순조롭게 밟아 드디어 국가노가 되었다. 이로하여 두사람의 크리스찬 부교는 데바의 크리스찬들의 방패로 된 것이다. 이로하여 지하교회의 본거지에는 아무 박해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에도의 크리스찬들을 광산으로 이끌어들이는 일에 성공한 우마이 로구사에몬은 이 때 예수회가 오랜 세월 전도하고 그 자신도 또한 많은 신자들을 보살피 주었던 교토, 오사카, 후시미, 사카이의 지역에 있었다. 크리스찬 추방령이 내리기전, 작년 12월 27일부터 이 해 1월 27일까지 크리스찬 명보가 작성되었다. 명보에 적힌 크리스찬들의 이웃 사람들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특히 세집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쫓겨나 가족을 데리고 집도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로구사에몬은 자신의 양들이 집을 쫓겨서 길이나, 배나, 숲이나,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가슴아파 그들에게 광산으로 도망가게끔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2월 21일이 되자 신부, 수도사, 동숙, 전도사를 위주로 한 크리스찬들이 나가사키로부터 추방되고 교회가 부수어지고 크리스찬들을 쫓아내는 폭력이 더 심해져, 어디에 가나 크리스찬 도망자들로 넘쳐나는 상태가 되었다. 전국적인 추방령이므로 그들에게는 갈 장소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시스토들이 준비해 온 지하교회외 밖에 도망갈 곳이 없었다. 일전 시스토가 전체 지하교회에 내린 지령대로 크리스찬 두목들과 호리고들이 그들을 마중왔다. 로구사에몬의 짐은 가벼워졌다. 이시미고로부터도 와 주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북쪽 광산으로 향했다. 로구사에몬은 자신의 양, 목숨을 걸어 보살피 왔던 크리스찬들을 북쪽 광산에 배웅하면서 자신도 이 일이 끝내면 많은 양들의 가있는 북쪽 광산에가 그들을 계속 보살피려고 생각했다. 시종들어 오던 파도레들은 나가사키로부터 본국에 돌려보냈다. 소속하고 있었던 아리마의 주재소는 박해에 의해 이미 없어졌다. 데라사와 후지효에이가 사는 곳으로 가서 살자. 지하교회의 중심, 본거지인 데라사와에 가서 살자. 로구사에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굳게 다짐했다.

1614년의 5월. 데라사와 가나야마에도 원내은산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다. 하지만 봄은 왔다. 처음으로 북방의 겨울추위에 고생하면서 겨울을 지내온 크리스찬 가족들의 기쁨은 크다. 새 생활에 자신과 희망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활을 준비해 주고, 맞이해 주었고, 지금도 필사적으로 일해 주시는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 감사를 드리려고 데라사와와 원내에 온 크리스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기뻐하는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 이때 오에로부터 요아킴과 에리자베타라고 하는 연배의 부부가 데라사와에 도망해 왔다. 두사람은 중국제 백자의 관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카타리나에게 보였다.

에리자베타 “우리들은 이것만을 소중히 지니고 도망해 왔습니다.”

카타리나 “에. 이것, 마리아와 예수님.”

에리자베타 “그렇게 생각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실은 순산관음이기에 좀 다르지만.”

카타리나 “하지만 왜 갓난아기를 안고 있나. 귀여워라.”

요아킴오에 “순산을 지켜 주는 관음이기 때문이에요.”

카타리나 “이 갓난아기가 귀여워 참을 수 없네. 조금 보여줘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도 좋겠어요.”

요아킴오에 “좋고 말고요. 좋으신대로 하세요.” 카타리나는 요아킴 에리자베타오에 부부의 순산관음을 귀엽지요 귀엽지요 하고 신이나 떠들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며 돌아댄다. 그 신이나 떠드는 카타리나의 모습을 보면서 몇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스토일가가 모르게 상담되고 있었다. “난, 그까짓 깍아 만드는 건, 돌로도 만들 수 있어요”라고 스스로 마리아 관음을 만들수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 호리고가 있었다. 이에 맞춰 여러 크리스찬들이 감사의 편지를 써서 많이 모았다.

요아킴과 에리자베타오에 부부는 30년전에 신자가 되고 크리스찬 신앙을 설명하는 일에 능숙하여 아이들이나 크리스찬이 되어 아직 얼마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알고 있었다. 또한 원내은산에도 같이와 30년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역시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설명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시스토는 카타리나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

시스토 “카타리나, 데라사와와 원내의 크리스찬 공동체에 없는것이 무얼가.”

카타리나 “무언가요.”

시스토 “아이들이나,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크리스찬이 되어 얼마 안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신앙을 착실히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카타리나 “응. 그렇게 생각해요.”

시스토 “요아킴오에 부부처럼 연배이며 지식이 있고 그전부터 크리스찬들을 가르침에 능숙한 사람들이 원내에 와 있는 것이야. 그들에게 학교를 꾸리라고 하면 좋으리라 생각해. 학교야.”

카타리나 “야, 학교...난, 학교라는건 도무지 몰라요.”

시스토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꾸리는 것이 아니라, 요아킴오에 부부가 중심이 되어 꾸리는 것이야.”

카타리나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요.”

시스토 “응, 이번에 데라사와와 원내의 주요한 사람들과 상담해 보지.”라고 하며, 시스토는 의사를 정하고 데라사와와 원내의 크리스찬 주요 인물이 되는 사람들과 크리스찬 신앙의 선생님이 될듯한 사람들을 집에 청했다.

그 날이 왔다. 야채와 차를 준비하고 나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현관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에도로부터 온 약100명되는 사람들이 모두 있다. 림씨 두목과 산타후두목이 데리고 온 것이다. 그 외에도 올 수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박해로서 그 후에도 도망해 온 사람들이 모두 온 것이다. 대를 땅에놓고 무언가 흰 천이 덮혀져 있다. 그 근처에 삼나무 상자가 있다. 쿠라라가 사람들속으로부터 부끄러운듯 주저하며 걸어 나온다.

쿠라라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와요.”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쿠라라가 무엇인가 대표하는 것 같으므로 무엇일까 생각하며 밖으로 나온다. 쿠라라는 모두에게 다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말한다.

쿠라라 “아버지, 어머니. 오늘 답례하기 위해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쿠라라는 집도 먹을것도 없었던 그날, 저를 낳아주신 부친의 잘라진 시체를 상기하고 목이메여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울면서 드디어 말한다.

쿠라라 “이걸 드려요. 이걸, 답례하기 위한 것이예요”시스토가 흰 천을 쥐여 올린다. 마리아 관음이 나타나 난다.

카타리나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모두가 손뼉을 친다. 쿠라라의 눈물에 동정해 울고, 또 이에따라 기쁨에 울어댄다. 카타리나는 쿠라라를 찾구해 위로하면서 고맙다고 몇번이나 되풀이한다. 시스토는 모성애에 넘치는 마리아의 모습에 순식간 도취된다. 예수도 매우 예쁘장하다. (이 돌로 새겨 만든 마리아 관음은 지금 데라사와 순교 공원의 위에, 북향 관음으로 불리는 작은 당 안에 모셔지고 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의 순교로부터 약4세기에 걸쳐 여기에 모셔 숭경을 받고 있다.)

시스토 “얼마나 멋진 마리아와 예수의 석상일까.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가득차...”시스토도 감개무량해한다. 이제까지 망나니들을 인도해 하나님의 나라의 적, 조국의 적과 싸워 온 20년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눈으로 보아온 것은 망나니들을 받아 주었던 품행이 단정한 크리스찬들이었다. 이것은 20년의 성적의 일부에만 속하지 않는다. 지금 현실상 망나니들이 거대한 지하교회가 꾸리고, 거기에 몇만명의 품행이 단정한 크리스찬들이 전국에서부터 몰려 와 있다. 그러나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일이 없다. 성적의 거대함은 자기들의 손으로만으로는 될수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토는 계속한다.

시스토 “여러분, 나와 카타리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왔을 때 나는 20살, 카타리나는 15살 되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전리품의 노예였지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일본어도 모르는, 비참한 두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두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2년후 이시미 은산에 와서부터는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두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나도 카타리나도 훌륭한 점은 아무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 최저최악이며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적, 히데요시와 침략군을 허용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축복 할 수 없었던 긴 기간, 자기들이 최저최악의 인간인것을 느꼈습니다. 둘은 그 때부터 어떤 나쁜 아이도 결단코 버리지 않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지하교회를 꾸리자고 서로 다져온 것입니다. 망나니들로서 시작되어, 지금 신앙을 버리려고 서약한 사람들도,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박해를 피해 도망해 온 사람들도 합류되었고, 이 지하교회는 어떤 아이도 버리지 않는 마리아와 같은 지하교회라는 것이 참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석상은 이 사실을 표현하는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우리의 지하교회의 모습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석상은 우리 집안에 소중히 보관하여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사람이 순교하면 이 석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십시오.”

듣고 있는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지하교회, 어떤 아이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씀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은,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나쁜 아이도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얼마나 훌륭한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모두들은 이 대장과 여자대장 자신야말로 어떤 나쁜 아이도 버리지 않고 양들을 위해 기뻐하며 목숨을 바칠수 있는 참으로 된 목사라고 생각했다.

지금,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서로 응시하며 미소를 주고 받는 것을 보며 카타리나에 안기고 있던 쿠라라가 말한다.

쿠라라 “어머니, 아버지, 옆에 상자에는 답례 편지가 가득 들어 있어요.” 시스토가 뚜껑을 열었다. 편지가 꽤 차있다. 두터운 편지도 아주 많이 있다. 사실은 이 편지에는 답례만이 씌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의 체험이 씌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하여 시스토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고 금후 방조를 받게 되었다. 이 놀랄만한 선물 증정식 후 시스토의 집에서는 학교를 꾸릴 일에 대해 상의되고 요아킴오에 부부가 중심이 되어 신앙교육 학교를 꾸리게 되었다. 요아킴오에와 에리자베타오에는 이렇게 하여 중심적인 크리스찬으로 금후 10년간 열심히 일하도록 되는 것이었다.

1614년의 6월말, 일년중 제일 해가 긴 때이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는 쿠라라와 함께 처마밑에 걸터 앉았다. 시스토는 일이 끝나면 쿠라라의 도움으로 카타리나와 함께 답례의 편지를 조금씩 읽고 있었다. 시스토 일가중 글을 읽는 능력은 쿠라라가 제일이다. 지금 또 한통의 답례의 편지를 끝낸 때이다.

시스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야. 아무 관계도 없는 좌우 옆집 다섯채의 집 사람들을 모두 함께 처벌한다니 할수 없어 귀순한 것이야. 서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카타리나 “지독해. 그 방법이.”

시스토 “그렇네요. 이걸 역인에게 밀고시키기 위한 제도요. 서로 망보게 하는 방식이야.”

카타리나 “못된 방식이네.” 두사람의 말을 들던 쿠라라가 자신의 체험을 상기하며 이야기 하기 시작한다.

쿠라라 “역인들이 한센병 병원에 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갔을때, 난 다른 일로 밖에 나가 있었어요. 어디에도 갈수 없어 난 홀로 되었지요. 아는 사람들도 너를 데려가면 근처에 밀고되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데려갈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다리아래에 가서 걸식자들의 동료가 되었지요.”

카타리나 “에, 그렇게 됐어 ...”

시스토 “무슨 일인지, 카타리나. 일본인들은 이 방법에는 매우 무뎡하네.”

카타리나 “시스토. 교토나 오사카나 후시미나 사카이에서부터 도망해 온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가라고 쫓겨난 사람들이네요..”

시스토 “응, 만약 광산의 지하교회가 없었다면 갈 곳도 없고 굶주림과 추위로 객사해 버렸을 것이라고 모두 쓰고 있어.”

카타리나 “하지만 시스토, 광산의 지하교회에는 박해가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지 않아요.”

시스토 “응. 이번의 크리스찬 추방령에 일본중 단 한곳의 광산만이 박해받을 위험이 있었고 그외 광산은 어디나 박해가 없었어. 왜 여기만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게 되었던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카타리나 “왜서 일까요?”

시스토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언젠가 꼭 일본의 광산에 박해가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카타리나 “정말 그래.”

시스토는 입을 다물고 해질녘의 하늘을 쳐다 본다.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으므로 카타리나도 같이 하늘을 쳐다 보며 입을 다물고 있다. 드디어 시스토가 카타리나를 향해 빙긋 웃으며 한마디 말한다.

시스토 “그 양쪽 합쳐서 열집이 박해되는 제도에 대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쿠라라는 집안에 들어 간다. 시스토가의 저녁밥 때가 되었다. 매우 활기스럽다. 이야기하고 웃고 한다.

루이스 “모두. 좀 들어줘요. 야에으로부터 이야기가 있대요.” 야에가 얼굴이 새빨개지며 시스토와 카타리나쪽에 몸을 향한다.

야에 “아버지, 어머니, 나 아이가 생겼어요.”

시스토 “그래...”

카타리나 “야.”

시스토가 이렇게 놀라는 것을 모두 처음본다. 눈을 크게 뜬채 일어나 야에의 곁에가 야에의 손을 이 끌어 일어서게 한다. 야에의 배우에 손을 놓고 만져본다. 그리고는 중얼댄다.

시스토 “정말이다. 좀 부풀어 있어. 여기에 내 손자가 있는 거야...”깜짝놀란 시스토는 아직 아이 같이 젊은 야에를 상냥하게 부둥켜 안는다.

시스토 “야에, 고맙다.”시스토는 야에의 이마에 키스를 한다. 시스토가 야에와 이야기한 후 이번에는 카타리나가 야에을 향구한다.

카타리나 “기빠요 손자라고 하니...”카타리나는 또 눈물을 흘린다.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따라 모두 잇 달아 야에를 향구한다. 그리고 축하한다. 모두 떠들어댄다. 시스토만이 조용히 앉아 있다. 눈이 반짝 반짝 빛나고 있다. 백일몽이라도 보고것 같은 기분이다.

루이스 “아버지, 축하의 술이라도 마시자요.” 루이스가 시스토의 얼굴을 보고 언젠과는 다른데 대해 놀란다.

루이스 “아버지, 무슨일이요. 꿈이라도 보는게 아니요.”모두가 시스토를 보고 같은 감을 느끼며 무슨 일인가고 묻는다.

시스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꿈을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빙글빙글 웃으며 시스토가 위를 쳐다보며 대답한다.

모두 “어떤 꿈, 어떤 꿈..”

시스토 “나의 피를 이어받는 사람이 언젠가 조국의 고려를 위해 크리스찬으로서 일하는 꿈이다. 조국을 예수와 마리아의 것으로 하기 위해 크게 활약하는 꿈이다.”

카타리나 “야, 멋지네. 꼭 그렇게 되어 주어야 하지..”

시스토 “카타리나. 손자가 생긴다는건 대단히 기쁜거야.”

카타리나 “시스토. 나는 이제 손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몸이 싹 녹아나는 것 같았어.”이것을 듣고 모두가 야.....라고 외친다. 루이스가 술을 가져 오고 활기뎐 말이 계속된다. 이날 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침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스토 “나의 피를 가진 아이가 일본인 여자의 배속에 있다는게 이상하네. 나는 고려인인데도 삼대째 아이는 절반 일본인이 되어 버렸네. 4대째, 5대째 점차 더 일본인이 되어 가는 것이네...”

카타리나 “시스토, 오늘저녁 일본인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했지. 이 아이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생겨 날까.”

시스토 “응. 그건 그래.”

카타리나 “박해가 연좌제도로 되면 크리스찬으로 계속해 갈수 없게 되겠네.”

시스토 “응 그게 골치 아픈 일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일을 해결해야지...” 시스토는 천장을 응시하며 묵묵히 생각한다. 드디어 두사람은 눈을 감고 자 버린다.

같은 해 1614년 7월. 데라사와에 로구사에몬이 왔다. 평소와 같이 데라사와 후지효에이의 집으로 향했다. 눈은 푸르러 버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다. 후지효에이의 저택에 도착하여 정면의 현관을 열고 외친다.

로구사에몬 “안녕하세요? 후지효에이님. 마그달레나.” 안 쪽에서부터 탕탕 소리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린다. 마그달레나이다. 맨발로 현관 토방에 뛰어 내려 로구사에몬에게 콧 매달린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힘 자라는대로 달라 붙는다. 로구사에몬은 웃으며 말한다.

로구사에몬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마그달레나 뿐이요. 괴상한 힘이야..”

마그달레나 “일년간 만나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로구사에몬 “11개월이야.”

마그달레나 “어쨌든 지나치게 길어. 죽여버리고 싶어..”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을 떼어 놓지 않으려 한다. 지쳐서 팔힘이 다 빠질때까지 계속한다. 후지효에이가 현관에 왔다. 난처해 하고 있는 로구사에몬을 바라보며 웃는다.

후지효에이 “로구사에몬. 여하간 오래간만이구만. 오신바에는 며칠 숙박하고 계시지요.” 후지효에이는 마그달레나를 로구사에몬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도 하지 않는다. 마그달레나가 실컷 로구사에몬에게 응석 부리는 것을 기뻐서 보고있다.

로구사에몬 “그일이지만요. 이제부터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마그달레나가 돌연 로구사에몬으로부터 손을 떼며 엉겁결에 되묻는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우리 집에서 살아..” 양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눈과 입을 크게 뜯채 마그달레나는 똑바로 마주본다. 심장이 가슴속으로부터 뛰어 나오는 것 같다. 머리 속이 뱅해진다.

후지효에이 “우리집에서 살면 좋고 말고요. 함께 살면서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합시다. 자, 올라오시지요.”

로구사에몬 “후지효에이님, 고맙습니다.” 후지효에이와 로구사에몬은 굳어져버린 마그달레나를 남기고 안 쪽으로 올라 간다. 잠시후 마그달레나는 비틀비틀하며 밖에나가 어디론가 걸기 시작한다. 시스토의 집이다. 카타리나가 빨래를 걸어 들이고 있다. 조금 멀리서부터 카타리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마그달레나 “마리아 어머니.”

카타리나 “예. 마그달레나가 아니요. 왜 이럴게요.” 마그달레나가 바로 옆에 다가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마그달레나 “마리아 어머니. 이야기 해도 좋을가요. 나, 심장이 이상해진 것 같아. 머리도”

카타리나 “왜, 무슨병이라도.” 카타리나가 근심스러운 눈으로 마그달레나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마에 손을 대 본다. 뒷마루에 마그달레나를 앉히고 저도 걸터앉는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이 이제 금방 우리집에 왔어요. 11개월만에요.”

카타리나 “예, 로구사에몬이 왔다고. 기쁘네. 이번에는 며칠 숙박하나요?”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우리 집에서 산다고 했어.”

카타리나 “예, 그래. 마그달레나의 집에서 살아.”

마그달레나 “응. 나, 그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고 머리도 뱅해져 버렸어요. 몸이 비틀비틀하고 심장이 두근두근해, 정말이요.” 카타리나는 그 말속에 끌려들어 간다.

마그달레나 “왜 웃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난 상관없어. 어쨌으면 좋을까. 난 로구사에몬을

아주 좋아해요. 함께 살고 결혼하고 싶어 참을 수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카타리나는 새파래지고 있는 마그달레나의 진지함에 감동한다.

카타리나 “죄송해요, 웃어서. 마그달레나는 이상하지 않지요. 매우 순수한 사람이지요.” 카타리나는 마그달레나를 가슴에 끌어 안는다.

카타리나 “귀여워요. 이렇게 로구사에몬를 좋아하는데도...” 동정심에 넘치고, 단순하며, 행동이 빠르고 아이와 같은 카타리나다.

카타리나 “사실, 나 로구사에몬의 입으로 평생 독신으로 있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러나 로구사에몬도 마그달레나를 좋아하지요..”

마그달레나 “정말이요. 한번도 그런말은 하지 않았어요..”

카타리나 “정말이요 정말.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를 좋아해요. 두사람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하지요. 그래 나 두사람이 결혼하게끔 기원하지요. 시스토에도 기원하게끔 하지요. 시스토가 전원이 기원할게요. 림씨 두목에게도 여주인에게도 기원하도록 하지요. 재미있어, 굉장히 재미있네요. 로구사에몬에게는 비밀로 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에게 부탁드리지요. 꼭 하나님은 들어 주실 거요. 그렇게되면 로구사에몬은 어쩔까.” 카타리나는 못된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웃어보인다. 카타리나는 참말로 아이다. 하나님과 유쾌한 놀음질을 하고 있는 아이다.

카타리나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을 좋아합니다. 좋은 아내로 될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 드리는 거요.”

마그달레나 “어떤 식으로 하면 될가요.”

카타리나 “그렇지. 식사를 만들거나, 빨래질을 하거나, 옷을 깎아 드리거나 아무튼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요.”

마그달레나 “응. 해 볼게요.”마그달레나는 새로운 과제를 카타리나에게서 받고 조금 마음이 안정된 것 같다. 이때 로구사에몬이 왔다.

로구사에몬 “예, 카타리나, 오래간만이구만. 마그달레나도 여기에 와 있구나. 왜 입다물고 가만히 와.”

마그달레나 “아니요. 로구사에몬이 오셨다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알리러 온 것이지요.”

로구사에몬 “그래, 그런걸 좀 걱정했어.” 카타리나가 로구사에몬과 핫구한다. 가만히 잠시동안 핫구한채 마음 속으로 기원한다. (하나님.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두사람이 결혼하기를.)

카타리나 “아무쪼록 부탁해요.”

로구사에몬 “뭐요, 무엇을 아무쪼록 부탁하는 거요.”

카타리나 “야. 혼잣말이에요.”카타리나는 마그달레나에게 눈짓한다.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이다. 마그달레나도 기쁜듯한 얼굴로 수긍한다.

마그달레나 “나 저녁밥 지으러 가요. 로구사에몬, 나 맛있는 음식 만들게요. 맛나서 녀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요.”마그달레나의 뒤 모습을 배웅하는 로구사에몬의 얼굴을 카타리나는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역시 로구사에몬도 마그달레나를 좋아하는구나. 얼굴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라고 하며 자신의 감촉을 한층 더 확인한다.

로구사에몬 “카타리나. 나는 이제부터 후지효에이님의 집에 살면서 거기로부터 도처로 전도여행 가기로 정했습니다.”

카타리나 “그렇습니까. 이제 마그달레나로부터 들었어요. 기뻐요. 자 올라주세요.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매우 많은데요.” 집안에는 큰배가 된 야에만이 있었다. 로구사에몬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미 차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야에도 로구사에몬에게 달려든다.

야에 “야. 로쿠자에몬, 오래간만이네요.”

로구사에몬 “오래간만이네요, 야에, 무슨 변함은 없는지요.”

야에 “변함이 있지요.”

로구사에몬 “예, 어떤 변함인데.”

야에 “나, 배안에 아이가 생겼어요.”

로구사에몬 “정말. 야, 축하합니다, 야에. 그리고 카타리나도. 첫 손자이지요. 카타리나와 시스토에 있어서.” 로구사에몬은 카타리나를 뒤돌아본다.

로구사에몬 “예, 그렇지요. 잊지 않았을 때에 중요한 용건을 이야기하지요. 카타리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로구사에몬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을 꺼낸다.

로구사에몬 “곧 전도 여행의 이야기이지만. 쇼주인이 계시는 곳으로 갈 예정인데요. 카타리나와 시스토도 같이가고 싶은데 될수 있을까요. 시스토의 형편이 될때 같이 갈까요.” 카타리나가 눈을 빛내며 수긍한다.

카타리나 “가지요. 시스토도 나도 쇼주인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고 싶어요. 로구사에몬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야기는 결정되었다. 카타리나로부터는 크리스찬 추방령에 의해 전국의 광산중 원내 은산 한곳만이 박해를 받고, 페토로히토미가 부교 직을 박탈당하고 데바에 추방된 일, 그리고 부교인 페토로우메즈가 은산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크리스찬 신앙을 버리기로 서약한 일, 11개월의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길게 이야기했다. 저녁이 되어 로구사에몬이 돌아갈 시간이 왔다.

로구사에몬 “응, 그럼 또 다음번에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저 순산관음은 마리아와 예수인가.”

카타리나 “예. 잊고 있었네요. 그래요. 마리아와 예수이지요. 또, 다음날에 이 이야기를 하지요. 안녕히 가세요.”

며칠 후이다. 로구사에몬과 시스토, 그리고 카타리나는 쇼주인의 가택에 와 있다. 시녀가 차를 내놓고 있다. 쇼주인은 계시지 않는다. 외출하시고 있었다.

시녀 “쇼주인님은 이제 곧 돌아 오십니다. 자주 11면 관음사로 기도를 드리려 가시는데 오늘도 거기에 가시고 있습니다.” 로구사에몬과 시스토, 카타리나도 깜짝놀라고 있다. 시스토가 로구사에몬에게 묻는다.

시스토 “로구사에몬, 여기에 목각의 관음상이 모셔져 있지만, 11면 관음이란 무엇인지요.”

그 목각 관음상은 입상으로서 아이는 안고 있지 않았다.

로구사에몬 “이 목각 관음상은 시스토 저택에 모신 순산관음과 같은 마리아요. 11면 관음이라는건 잘 모르겠지만.”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마치 여승의 방과 같은 이 저택, 불단과 똑같은 관음상이라든가 목각 관음상에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시녀 “쇼주인님이 돌아오신것 같습니다. “ 시녀가 서둘러 방을 나가 현관으로 향한다.

카타리나 “어떤 사람인가. 빨리 보고싶네.”

시스토 “응. 불쌍한 경력을 가진 여성이지...” 쇼주인이 들어왔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마음속에 그려왔던 모습과는 다르다. 검은 색 의복에 흰 머리 띠를 띠고 있다. 어디로 보나 여중으로만이 보이지 않는다.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쇼주인 “아니 이렇게, 예수 마리아님 고맙습니다. 또 로구사예몬과 만날 수 있게 되었네요”쇼주인은 이전에는 `로구사예몬님`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미 `로구사예몬`이라고 부른다. 로구사예몬도 `쇼주인`이라고 친절하게 부르고 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쇼주인의 모습이 생각과는 다른데 대해,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마리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로구사예몬 “쇼주인, 돌연히 왔습니다. 쇼주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카타리나와 시스토도 같이 왔습니다.”

쇼주인 “예. 카타리나, 시스토. 매우 기쁩니다. 카타리나와 시스토는 나의 마음속에 친구였지고 선생님이었지요.”쇼주인이 카타리나와 시스토를 이렇게 칭찬하니 카타리나와 시스토는 당황해서 말도 못한다. 시스토의 머리가 뻥해진다. 혼란한김에 인사말도 잊고 쇼주인에게 질문한다.

시스토 “예 저기, 쇼주인이라고 불러도 될가요.”

쇼주인 “되고 말고, 물론이지요. 나도 그냥 시스토, 카타리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스토 “쇼주인은 크리스찬이시지요. 불교 신자가 아니시지요.”

쇼주인 “그렇고 말고, 그렇습니다.”쇼주인은 웃어버렸다. 그러나 시스토는 또 한번 확인한다.

시스토 “크리스찬을 그만두신 것은 아니고, 지금도 크리스찬이시지요.” 쇼주인의 웃음은 멈추지 못하고 로구사예몬도 웃어댄다.

쇼주인 “지금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이름에 맞지 않을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시스토가 진지한 얼굴로 질문하므로 쇼주인과 로구사예몬은 더 크게 웃어댄다. 다른 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녀들이 참을 수 없어 따라서 웃어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스토는 계속 질문한다. 카타리나도 흥미 있게 듣고 있다.

시스토 “쇼주인이 지금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근처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까?”

쇼주인 “그래요. 알고 있지요.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고 있지요. 내가 크리스찬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타케님과 이연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이 근처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시스토 “올해 2월에 원내은산 부교인 페토로히토미가 추방되고 페토로우메즈가 크리스찬을 그만두었을 때는 어땠어요. 박해가 있었는가요.”이미 웃음은 안정되고, 쇼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쇼주인 “아무도 없었지요.”

시스토 “주변이 랭담해지는 것도 없었어요.”

쇼주인 “없었어요. 정말로.... 사타케님은 지금도 삼근겨무교대가 끝나 돌아 갈때에는 번마다 여기에 들리지요. 남몰래.”

시스토 “예. 정말 그래요.”쇼주인은 미소로 수긍한다.

쇼주인 “사타케님은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있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있는 도쿠가와를 두려워하고 있는거예요.”

시스토 “예, 알겠습니다.” 시스토는 조금 생각하고 나서 못는다.

시스토 “쇼주인 절에는 자주 가십니까?”

쇼주인 “예 그래요. 난 11면 관음을 좋아하기에 자주 가는 거요.”

시스토 “스님들과도 교제해요..”

쇼주인 “예. 자연스럽게 사귀고 있지요. 그러나 스님들도 내가 크리스찬인줄 알고 있기에 가만히 참고 있지요.”

시스토 “예, 그래요.”

시스토가 좀 생각하는 사이에 카타리나가 고운 어조로 못는다.

카타리나 “쇼주인, 11면 관음은 어떤 관음인데요. 왜 좋아하게 되었나요.”

쇼주인 “11면 관음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작은 머리가 한바퀴 돌아 10개가 있고, 머리 꼭대기에 또 하나 있어 얼굴을 앞으로 향하고 있어요.”카타리나는 본 적이 없는 11면 관음상을 상상해 보며 말한다.

카타리나 “도깨비와 같이 생각되는데 왜 그런 관음을 좋아하나요.”카타리나의 꾸밈 없는 표현에 쇼주인은 웃는다.

쇼주인 “카타리나와 솔직하네요. 나는 11면 관음을 마리아와 갓난아기의 모습을 한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는거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가만히 들고 있던 로구사에몬이 손을 마주치며 참견한다.

로구사에몬 “정말. 켈빔이네요. 참말로.”

쇼주인 “그래요. 켈빔이지요. 마리아의 머리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켈빔들이지요.”

로구사에몬 “시스토와 카타리나도 아시고 있지요. 그 아리마의 세미나 리오에서 기둥의 장식으로 부쳐있던 천사들이요. 아이의 얼굴을 하고 목에 작고 귀여운 날개가 두개 붙여 있었던 것이요. 기억하고 있지요. 기둥을 빙빙 둘러싸고 날아다니던 천사들이요. 카타리나가 나에게 저건 뭔가고 물은 적이 있지요.”

카타리나 “예, 생각나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나 목으로부터 아래는 어떻게 된것인가고 물었던거지요.”

로구사에몬 “머리와 얼굴만의 천사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셨지요. 마지막까지 납득하지 않으셨지요.”

카타리나 “응.” 모두 또 웃는다. 그리고 즐거운 회화가 계속된다.

시스토도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은 쇼주인의 집을 나서 거리로 향해 걷고 있다. 가도를 나와 로구사에몬은 구보타를 향하고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데라사와에 향한다.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여기에서 이별이다.

시스토 “로구사에몬, 박해는 금후 어떻게 될가.”

로구사에몬 “응. 도쿠가와가는 천령에서 대관을 이용하여 한 행위를 이번에는 모든 번에서도 행하는 것이 틀림 없으리라고 생각해. 즉, 영민 전원을 조사해 한사람도 빠짐없이 크리스찬들을 명부에 기입하고, 그로부터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신앙을 버리게 할거요. 바로 귀순하게 하지요. 귀순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이요...”

시스토 “크리스찬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없애버리려고 하는거지요.”

로구사에몬 “이에야스와 슈주는 자신들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크리스찬 근절에 손을 댄 것이요. 도쿠가와가 살아있는한 이것이 계속될 것이요. 이에야스와 슈주의 영원은 그들의 가계가 계속되는 그것 뿐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최대의 장애가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요 시스토, 도쿠가와가는 크리스찬을 한사람도 남김없이 근절하려고 하고 것이요. 이제부터 도쿠가와가의 지배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박해가 심해질 것이요.”

시스토 “그렇가 참말로.” 시스토는 이렇게 중얼대며 묵묵히 걷는다. 가도머리에 나왔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로구사에몬과 헤어지고 데라사와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오늘 저녁에는 유자와에 숙소를 정할 예정이다.

카타리나 “정말 아름다와.” 점차 해가 저물어 가는 하늘, 오른쪽 경사에 보여오는 조카이산, 카타리나는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면서 중얼댄다. 요코테부터 데라사와까지는 사랑하는 남편, 시스토와 두 사람만이 걷게되는 여행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시스토와 두사람만이 유자와의 숙소에서 숙박한다. 시스토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생각하면서 묵묵히 걷고 있기에 방해하지 않으려고 말을 걸지 않고 시스토의 옆 얼굴만 미소던 얼굴로 바라본다.

시스토 “그래.” 그 때 돌연 시스토가 입을 열고 미소 짓는다.

카타리나 “응 시스토, 뭐라고요.”

시스토 “응. 그래 그래, 아주 재미있는 못된 장난이 생각 나.”

카타리나 “월요. 못된 장난이라고요.”

시스토 “응. 방법이 없을거야... 하하하... 정말로.”

카타리나 “도대체 누가 방법이 없는거요.”

시스토 “이에야스와 슈주지, 그리고 그 후계자들 전체이지.”

카타리나 “좋아. 어떤 못된 장난인데.”

시스토 “오늘 본 쇼주인과 같은 방법이지. 크리스찬 모두가 불교 신자로 보이게끔 위장하지. 그리고 박해가 오면 에도의 크리스찬들처럼 인차 귀순하지. 귀순하는 서류를 써내는 거야. 그러면 놈들은 그 이상 박해할 수도 없게 되는거야.”

카타리나 “야 재미있어. 그 쇼주인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걸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지요.”

시스토 “그래, 그게 재미있는 일이야.”

카타리나 “응. 함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참 재미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시스토 “그래, 그리고 이 방법으로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거야. 언젠가 우리들의 피를 이은 크리스

찬이 사랑하는 조국, 고려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꿈. 크리스찬들을 근절하여 버리면 이런 꿈이 실현
될수 없는거지.”

카타리나 “나, 가슴이 두근거리 죽겠어. 이 장난이 아주 좋아. 시스토, 나 역시 시스토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갑자기 활기를 띤다.

유자와의 러관방에 두사람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 편히 쉬고 있는 때다.

시스토 “카타리나, 이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카타리나 “나 아주 좋아해요. 응,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것 같아. 그리고 흥미가 있는 말은 전혀 숨기지 않아. 인차 이런저런 것을 물어오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지요. 상냥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느껴요. 여기 사람들 모두는 매우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너그럽게 생각하여 드리는 것이지요. 응, 너그럽고 상냥하지요.”

시스토 “새로운 일을 즐긴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축제를 아주 좋아하지. 사시장철 매달마다 축제를 하고 있지. 이런 저런 하나님을 좋아해. 한사람 한사람의 하나님을 위해 모두 축제를 하지. 정말 변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람 불임성이 좋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 많고, 쾌활하지. 참말로 인생을 즐기고 있는거야.”

카타리나 “예, 이 지방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타 지방 사람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름에 대해 매우 흥미를 갖고 있어. 다른 지방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나, 데라사와에 와, 그 지방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는데 대해 깜짝놀라고 있지요.”

시스토 “로구사에몬이 이 지방 사람들은 스페인인이나 포르투갈인인 것 같다고 하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

카타리나 “루이스는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 여관에서 마그달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의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했지요.”

시스토 “에 그래, 이 여관에서. 내가 없었을 때였던가.”

카타리나 “시스토는 다른 방에서 다음날 상론을 하고 있었던거요.”

시스토 “그리고 루이스는 일본인이 아닌 것 같은 이 지방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야에와 결혼한 것이 아니야.” 두사람은 유쾌하게 웃는다.

시스토 “나도 루이스가 마음에 들어하는 일본인이 아닌 것 같은 이 지방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기실

카타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시미로 우리를 오게 한 것은 일본인이 아닌 것 같은 이 지방 사람들 속에서 밖에 실현될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야.” 두사람은 밤이 깊어 가는 것도 잊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한다.

요고테로부터 돌아온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곧 림씨 주인과 부인의 곳에 갔다.

림씨 주인 “예, 숨긴다고, 당당하게 위선해 불교도 신자의 모습을 한다고.” 림씨 주인과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다.

시스토 “예, 그래요.”

림씨 주인 “그것 참 웃을만한 못된 장난이구나, 전혀 참.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을 근절하자고 하는 이 에야스나 슈주를 속히고 대대의 크리스찬이 계속되어 가면 그야말로 유쾌하고 통과해. 나 찬성이야.”

림씨 부인 “감춰 다니지 않고 당당히 다니는 것이 좋아. 선생님 부인. 선생님은 잘도 이런 생각을 해내셨네요.”

림씨 주인 “우리들은 아직 불교 신자로 위장하지 않았고, 여기의 역인에게 귀순하는 증서도 내지 않았지만 데라사와 가나야마와 원내은산은 크리스찬 투성이라는건 이 지방역인로부터 사타케님까지 데바의 역인들은 모두 알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사타케님의 생각대로 페토로우메즈님 한사람이 크리스찬을 그만두고, 그외에는 다 눈을 감게 하고 있는 셈이기에 여기만은 이미 숨길 필요도 없이 당당하게 잠복하고 있는 상태지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 간 도쿠가와가에게 이겨서 크리스찬을 대대 이어받아 가야하지.” 림씨 주인의 분석력 넘치는 이야기를 모두 열심히 듣고 있다. 림씨 주인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이미지해서 판단한다. 지금도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림씨 주인 “시스토 선생님, 전국의 광산에 드디어 박해가 시작되고 다른곳과 같이 조사할 때가 되면 광산에 대대 크리스찬을 이어 붙이는데도 불리한 점이 있어요. 원래 호리고들은 일찍히 죽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므로 자손에게 무엇인가를 남겨 놓으려는 생각도 없지요. 그리고 광산은 십몇년 파고는 버리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어디론가 가 버리지요. 이 지방의 일본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다고 해도 데라사와 가나야마나 원내은산이 몇 십년 지속될지 누구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호리고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다른 광산에 흘러가 누구도 남지 않지.... 그래, 두목들의 허가를 받고 호리고를 그만두고 백성이 되면 이 지방에 남을 수 있을가.”

시스토 “림씨 주인, 고맙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의 말씀이.” 림씨 부인이 일어나 차나 야채 절임을 바꿔 들여 온다.

카타리나 “림씨 주인님, 여주인님. 또 하나 못된 장난이 있는데요... 로구사에몬은 아직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과 결혼하고 싶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림씨 부인 “그것, 참” 림씨 부인이 한탄한다.

카타리나 “나는 로구사에몬도 마그달레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림씨 부인 “그것 참. 나도 알만 하지요. 여자의 감각을요. 로구사에몬도 마그달레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틀림 없어.”

림씨 주인 “왜 그런 일을 아는 거야.”

림씨 부인 “여자 감각은 영민한거지요. 로구사에몬이 마그달레나를 시끄러운체 하거나 흥미 없는체 하거나 아이처럼 여기거나 하는걸 보면 알수 있지요.” 자신 만만한 림씨 부인의 대답에 림씨 주인은 입 다물고 있다.

림씨 부인 “그리고, 못된 장난이라고 하는건 원데.”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에게는 말하지 말고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원하는 것이지요.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결혼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두사람이 결혼하도록.”

림씨 부인 “나, 그러지.”

림씨 주인 “하하하. 나도 그러지.”

며칠 후,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번에는 데라사와 후지호에이의 집에 와 있다. 데라사와 다로우에 문도 불러와 있다. 로구사에문은 아직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마그달레나는 카타리나의 옆에 앉아 있다. 시스토의 못된 장난의 계획을 눈을 빛내며 듣고 있다.

후지호에이 “그렇습니까? 림씨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들 백성과 호리고들은 정반대이지요.” 다로우에 문도 옆에서 크게 수궁하고 있다.

다로우에문 “그래, 그래. 우리 백성들은 선조님에게서 물려받은 일체를 소중히 이어받아 아이들이나 손자들에게 전하는데 열심이지.”

후지호에이 “시스토 선생님,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불교 신자로 위장하는 못된 장난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나도 이 지방에서는 잘 될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이지요. 없게 되는 것 보다 남아 있는 것이 더 즐겁지요. 소중히 여겨 드리지요.”

다로우에문 “그렇지, 그래. 부디 그렇게 해 봅시다.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는 백성들이 억인들에게서 괴로움을 당하기보다, 재미있는 방식으로 씩씩하게 살아 나갈 수 있으면 이 지방의 백성들도 마음 속으로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아무튼 시도해 봅시다.”

후지호에이 “그래, 그래. 우선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껏 해 보면 전망이 열리겠지요. 시도해 보아 안 된다고 해도, 시도해 보는 것을 즐기고, 재미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해 보시지요.”

다로우에문 “싸움이라는 건 상대가 강하면 강할 수록 재미있는 거야. 이에야스와 슈주 도쿠가와는 일본에서 제일 강한 상대이기에 즐겁게 해볼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반가운 것이야. 하하하....”

후지호에이 “하하하....”

마그달레나 “야, 하하하....” 호쾌하고, 쾌활하고, 낙천적인, 그리고 도전 정신이 강한 이 지방 사람들에게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어안이 벱벱해 얼굴을 마주본다.

카타리나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일본인인가요. 시스토.”

시스토 “확실히 파도레들을 상기하게 되네. 카타리나.” 웃기를 그치고 후지호에이가 남자 다운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낸다.

후지호에이 “시스토 선생님, 세키가하라의 싸움이 끝난 후, 그때까지 몇백년이나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오노데라가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쿠가와도 반드시 언젠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름없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 갈 것입니다.” 모두 진지한 얼굴로 후지호에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후지호에이 “단지, 토지를 지키고 사는 백성들은 눈에 잘 띄이지 않지만 이 땅에 뿌리를 박은 것이 백성들의 강한 힘이지요. 크리스찬의 신앙을 몇백년이나 대대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건 나는 결혼에 의해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끼리 반드시 결혼하고 크리스찬들끼리 친척이 되고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혈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카타리나는 옆에 앉아 있는 마그달레나가 결혼이라는 말에 움찔 반응하는 것을 알아 차렸다. 크리스찬끼리가 반드시 결혼한다고 하는 아버지 후지효에이의 말을 듣고 마그달레나는 가슴에 양손을 대고 애달픈 눈으로 카타리나 쪽을 향해 바라본다. 카타리나는 인차 낮은 목소리로 마그달레나에게 묻는다.

카타리나 “아직, 아무 것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마그달레나 “그래요. 아무 것도 아직 이야하지 않았어요.”

카타리나 “나에게 말겨.” 마그달레나가 수궁한다.

카타리나 “저, 후지효에이님. 크리스찬들끼리 반드시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그것이 필요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리스찬, 또한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모두 크리스찬이면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파도레처럼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시스토 “예, 대단해. 카타리나.” 시스토 뿐만 아니라 카타리나의 의견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이 다른 관점으로부터 열렬히 지지되어 후지효에이는 벅벅 웃고 있다.

카타리나 “예 고마워요. 시스토. 특히 아버지는 가족의 주인으로서 그 집 종교의 기둥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딸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신앙 깊은 훌륭한 크리스찬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스토의 큰 장난과는 다르지만 나도 작은 장난을 생각해 낸 것이요. 시스토가와 림씨 주인과 부인은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결혼할 것을 로구사에몬에게는 비밀로 하나님에게 기원하고 있어요. 후지효에이, 다로우에몬 부탁해요, 함께 기원하세요.” 카타리나는 장난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 후지효에이와 다로우에몬에게 미소를 지어 보인다. 후지효에이와 다로우에몬의 마그달레나를 응시하는 눈길에는 애정이 넘치고 있다. 마그달레나는 괴롭고 애달픈 듯 두 사람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린다.

후지효에이 “네가 로구사에몬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데라사와의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어. 지금 이 마을에서 모두가 제일 흥미있어 하는 것이 마그달레나의 연애가 열매 맺을지 못맺을지 하는 거야.”

마그달레나 “월요, 거짓말. 나 마을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한 일이 한번도 없어”

다로우에몬 “거짓말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너의 연애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결혼할 것인가 할 수 없는가 하고 내기를 하고 있는 놈들도 있지. 나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해. 대백성의 따님의 오랜 애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지라고.”

후지효에이 “그래. 마을 백성들은 모두 너와 로구사에몬이 결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틀림 없지.”

마그달레나 “그래도 난, 그런걸 모르고 있어.”

다로우에몬 “모르는 사람은 너뿐이야 마그달레나, 하하하...” “마그달레나의 새하얀 고운 얼굴이 이제 새파래지고 있었는데 지금 또 사과같이 빨갛게 되었어.”

후지효에이 “마그달레나, 아버지도 기원할께, 마음껏 승부해 보아. 적은 만만치 않아. 어차피 44세가 될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승부에 구애되지 마라. 승부 자체를 즐겨서 해봐. 마음 편히하고 놀음질 하듯이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마그달레나는 불타는 눈길을 하고 크게 수궁하며 듣고 있다.

다로우에몬 “그래, 마그달레나. 과감히 해봐. 당당하게 도전해, 그래서 지면 자신도 모두도 납득한다. 아저씨도 기원할께 해 봐.”

마그달레나 “응, 아버지, 아저씨, 감사해요. 나 일체를 내걸고 당당하게 도전해 보지요.” 후지효에이와

다로우에몬이 미소하며 수긍하고,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상한 일을 본것 같은 표정을 하고 이 회화를 듣고 있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 것 같다고,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다. 시스토가 속삭인다.

시스토 “카타리나. 무슨일인지 적극적이고, 싹싹하고, 구애되지 않는 것이 이 지방 사람들이야.”

카타리나 “응, 시스토, 나 이 지방 사람들은 애정과 용기에 넘치고 있다고 생각해.”

시스토 “그래. 또한 정직하고, 솔직하고, 나는 참 좋아해.”

카타리나 “나도 역시.”

데라자와촌에와 처음으로 되는 전도 여행으로부터 로구사에몬이 돌아왔다. 시스토가에 곧바로 왔다. 시스토 일가와 즐거운 저녁 밥을 끝내자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은 밖에 나와 걷기 시작한다.

시스토 “그런데 로구사에몬 좀 못기 싶은 일이 있는데.”

로구사에몬 “무엇인데, 시스토.”

시스토 “다른 곳으로부터 이사해 온 크리스찬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만날수 있을까요.”

로구사에몬 “나에게는 아무도 어려울 것 없지요. 나는 예수회의 동숙이기에 우선 마을에 들어가면 누군가 새로 와 정착한 사람들이 없는가고 묻는 것이요. 있으면 꼭 가르쳐 주지요. 매우 친절하게요. 그러면 만나러 가서 ‘나는 예수회의 동숙입니다’하고 자칭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만일 크리스찬이면 매우 기쁘게 맞이해 주지요.”

시스토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신전개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로구사에몬 “그래요. 데바에서는 입쌀이 나고, 게다가 새롭게 개간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지요. 또한 구보타 번이 신전개발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부터 백성들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요. 지금 데바에는 박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몰려 들어 오는 크리스찬 백성들이 늘어날거요.” 시스토는 번번히 수긍하며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중얼댄다.

시스토 “그런가... •. 로구사에몬과 함께 돌아보면 간단히 되겠네...”

로구사에몬 “월요. 무슨 일인데요.”

시스토 “나는 지금 굉장히 못된 장난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구사에몬 “무슨 못된 장난인데요.”

시스토 “도쿠가와가 크리스찬을 근절하지 못하게 하는 못된 장난이지요. 쇼주인과 처음으로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돌연히 생각해 낸 것이요.” 그렇게 말하며 시스토는 로구사에몬에게 설명해 드린다. 림씨 주인의 의견과 데라사와 후지효에이의 의견도 전한다.

시스토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구사에몬.”

로구사에몬 “에, 대단해.... 잘도 그런 대담한 생각을 해 내네요... 지배자에게서부터 금지되고 박해되고 탄압되는 크리스찬들을 몇대를 걸쳐 주민 전원이 역인을 포함하여 감싸한다니. 들은 일이 없어. 아마 전례가 없다고 새각하지요. 전 세계의 어디에서도 지금까지 전대미문의 일이지요. 그러나 그러고 보면 망나니들의 지하교회도 전대 미문이고 그 못된 농들의 지하교회가 품행방정한 크리스찬들을 박해로부터 구출했다는 것도 전대 미문이지.... 시스토가 생각해 내는 것은 전대 미문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요. 이번에도 나는 시스토를 신뢰합니다.” 시스토는 미소를 짓는다.

시스토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잘 기원하고,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해서 하지요. 시간이 더 걸릴 지도 모르지만. 그럼 잘 휴식하세요.”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은 헤어져 가끔 집으로 돌아갔다.

1614년의 9월이다. 시스토는 데라사와 후지효에이의 저택에서 전략회의를 열었다. 시스토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다. 그는 이에야스나 슈주나 그 후계자에게서부터 크리스찬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년 걸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스토에 불려온 사람들은 데라사와의 후지효에이와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데라사와 다로우에몬, 림씨 주인과 부인, 요아킴오에와 에리자베타오에 부부, 그리고 물론 카타리나, 데라사와에서 살고 있는 열명이 모였다. 시스토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시스토 “구보타 번은 수입을 늘이기 위해 광산개발과 신전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페토로우메즈님 한사람이 크리스찬을 그만두면 다른 크리스찬은 박해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전개발하는 크리스찬들도 박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이미 여기저기서부터 도망해온 크리스찬들이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로 뭉쳐 크리스찬의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집, 그리고 전원이 크리스찬 신전개발을 하는 마을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을 사이에 서로 연락을 취해 크리스찬 동포들이 반드시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그것을 계속하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친척이되고 큰 혈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아킴오에 “과연, 시스토 선생님. 이것은 연좌제를 이용해서 박해를 해도 지지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잘 알겠어요. 우리들 부부도 옆집 사람들로부터 쫓겨 왔지요.”

에리자베타오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사이 좋게 사귀어 온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리고 친척들 속에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찬을 그만두라고 우리를 설득해 왔어요. 참으로 괴로웠어요. 혈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성내고 욕먹고 하던것이...”

요아킴오에 “오른쪽 다섯채와 왼쪽다섯채의 관계 없는 사람들을 모두 처형한다고 하니 거기에 그냥 있을수 없지요 참말.”

에리자베타오에 “크리스찬을 그만두지 않으면 너의 부모도 아이도 형제자매도 같은 죄로 모두 죽인다고 했어요. 친척들도 모두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다고 했지요...”

시스토 “여러분들이 나와 카타리나에게 에도나 교토, 사카이, 후시미, 오사카로부터 온 사람들의 답례의 편지를 주셨지요. 오에 부부와 같은 처지에 모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편지를 모두 읽고 일본 사람들은 옆집의 무관계한 사람들이 함께 처형당하는 것, 무관계한 혈연의 사람을 함께 처형한다고 하는 제도에 매우 무맥하다는 것을 앓았습니다. 그것에 이기기 위해서는 옆집도 모두 크리스찬 혈연이 되고,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현실을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해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이 연좌제의 본래의 목적은 서로 망을 보게 하고 밀고하게 하는 것이요.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요.”

시스토 “응.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요. 이 지방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다르기에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들을 인도해 온 것이지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모신 확신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만 확신이 있기에 이 큰 장난을 시작한 것이요.”

로구사에몬 “그렇가. 이 지방 사람들은 일본인과 다를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하나님의 적인 도쿠가와가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야.” 시스토는 크게 수긍한다.

시스토 “그래요. 그렇기에 지금도 일체를 숨기지 않고 지내고 있지요. 이 지방의 촌장으로부터 대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두가 어느 마을은 크리스찬 마을이고, 어느 부락은 크리스찬 부락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고소하지 않지요. 나는 믿고 있습니다. 몇대에 걸치고 몇백년에 걸쳐도 이렇게 지속되리라. 때문에 이 못된 장난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요아킴과 에리자베타오에 부부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요아킴오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 못된 장난이란 무엇입니까?”

에리자베타오에 “못된 장난이란 아이들이 하는 못된 짓이 아니요?”

요아킴오에 “무언가 재미있는 일입니까...”

시스토 “응. 이 크리스찬 마을이나 크리스찬 마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교도 신자와 똑같이 생활하고, 귀순하라는 증서를 내라고 하면 재빨리 내는 것이요. 이에야스나 슈 주나 그 후계자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크리스찬들은 겁나 벌벌 떨 필요도 없지요. 처음부터 주변의 모두가 알고 있지요. 당당하게 살고 천하의 지배자들을 속여 내는 것이요. 재미있지 않아.” 두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있다. 그리하여 시스토는 요고테 쇼주인의 사는 방법과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해 드렸다.

요아킴오에 “과연 그럴구만. 시스토 선생님의 이야기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못된 장난에 대해서도 나도 대 찬성입니다. 몇대 몇백년에 걸쳐 박해를 받을때에 취할수 있는 상당한 대책이 없이는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근절되어 버리지요.” 제일 년치가 있고 박해를 받아온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다.

요아킴오에 “시스토 선생님의 장난을 잘 실현되여 가기 위해, 크리스찬들이 몇대, 몇백년에 걸쳐 계속 살아 가기 위해 또하나 필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정확하게 전해 가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라들에게도 암기가 서투른 사람들에게도, 책을 모두 몰수해가고 성화도 성상도 모두 몰수해 간후에도 신앙을 가르칠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요.”

시스토 “그렇네요.... 무언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요....” 모두 생각에 잠긴다. 에리자베타오에는 여러분을 둘러보고 조금 주저하고는 입을뚱다.

에리자베타오에 “저... 당당하게 장난이라고 하는 바에는 춤도 춰보는 것이 어때요.”

모두 “예. 춤을 춘다고.”

에리자베타오에 “나는 춤출수 있습니다. 신앙의 요점 개조등에 춤추는 동작을 붙이지요. 그리고 모두 함께 춤추면 봉오도리와 같이 불교 신자처럼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림씨 주인이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림씨 주인 “좋아 좋아. 오에춤이라고 이름을 붙혀, 꼭 춤추어 보기 싶어, 하하하....” 모두가 같이 웃어버린다. 남자들이 모두 너무도 호쾌하게 웃으므로 카타리나가 에리자베타오에에 찬성한다.

카타리나 “나도 찬성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한다니 멋있어. 나도 해 보고 싶어, 즐거울 것 같아.”

림씨 부인 “당신, 너무 웃지말아요. 좋은 생각이지요. 춤이면 몇백년이라도 그대로 전해질수 있지요. 동작에 붙혀진 문구는 잊어지지 않지요.”

림씨 주인 “하하, 너무 웃어서 미안해. 그러나 확실히 좋은 생각이야. 응. 나는 호리고들이 춤추는 모습이 눈에 떠올라 못참겠어. 하하하....” 모두가 또 같이 웃어버린다. 박해의 이야기로 무거웠던 분위기가 림씨 주인의 덕택으로 단숨에 밝혀진다.

에리자베타오에 “나, 해 보아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모두 찬성한다.

에리자베타오에 “그럼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후지효에이 “시스토 선생님의 집이 있는 지역도 물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새로 논을 만들 수 있지요. 기실 데라사와 백성들 속에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의 기분을 보아가며 말을 걸어 보지요. 활기찬 젊은이들에게 생각가는 바가 있지요. 내가 집을 지어 드리고 쌀이 수확될때까지 부제해 주면 꼭 응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 마을도 데라사와에 완성될수 있지요.”

다로우에몬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요.”

후지효에이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 겐고로, 그리고 와타루 사부로, 시로 효에이, 그리고 마고쥬로요. 겐고로의 어머니가 식사라든가, 여자들의 일을 해줄수 있다면 혼자 몸인 젊은 사람들이 구차히 보내지 않아도 되지”.

다로우에몬 “그건 참 좋아. 나도 함께 그렇게 하도록 권하지. 그리고 시스토 선생님도 도울 수 있지, 우리들도.”

림씨 주인 “응 나는 호리고들중 백성이 되고 싶은 크리스찬이 있는가 조사하면 되는거지.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두목들에게도 그렇게 알리지. 원내는 산타후 주인에게 같이 해주도록 내가 부탁해 놓지.”

시스토 “고맙습니다, 후지효에이, 다로우에몬, 림씨 주인. 로구사에몬은 나를 데리고 이 지방 마을을 돌아봐 주지 않겠습니까?”

로구사에몬 “그렇게 하지요. 크리스찬 백성들과 만나보고 싶은 것이지요?”

시스토 “그래요. 그 지방 백성들과 다른 곳에서 새롭게 온 백성들을 모두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전개발을 해서 크리스찬 마을을 만들만한 땅도 찾아보고 싶지요. 이미 크리스찬들이 밭을 만들고 있는 곳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적인 도쿠가와가에 이기기 위해 시스토는 크게 계획을 세운다. 이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므로 모두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리며 가슴을 울렁거린다. 차와 야채 절임을 맛보면서 잠시동안 여러가지 이야기를 즐긴후 적당한 때를 가늠해 시스토가 이야기를 꺼낸다.

시스토 “모두 들어 줘요. 크리스찬들이 근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전략을 하사하고 있는 것어요. 나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어요. 하므로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나와 카타리나는 귀순하는 증서는 쓰지 않고 조국 고려를 위해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사람 한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귀순하는 증서를 내고 내지 않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셨지요. 귀순하는 증서를 쓰는 것도 전략이지만,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일은 박해가 시작되면 나와 카타리나는 귀순하지 않고 순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협에도 지지 않고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카타리나는 최저최악의 약한 인간일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방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시스토와 나는 고려를 위해 무엇이든 다 바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조국이 언젠가 예수에게 돌아 오게하기 위해서라면 그 희생물로 자기들의 목숨을 내고 싶어요.”

로구사에몬 “시스토와 카타리나에게는 그것이 될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고려로부터 일본에 연행되어 올때 정련 스승의 대신으로 자신이 스스로 신청하여 일본으로 온 것어요. 크리스찬이 아닐 때로부터 숭고한 자기 희생 정신을 실행한 두사람이요. 그리고 조국에 대한 강한 사랑은 감탄할만이 깊습니다.”

림씨 주인 “그래, 여러분. 시스토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은 고려를 히데요시와 침략군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로구사에몬이 가르쳤지요. 히데요시와 침략자 일본인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해주세요하고 계속 기원한 것이야. 한번 죽음을 당하더라도 괴로움을 받으면서 조국을 위해 그것을 실행한 것어요. 일년 9개월이나. 나도 시스토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이라면 협박이나 고문에 당해내고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지호에이, 다로우에몬, 마그달레나, 요아킴오에와 에리자베타오에에게는 금시 초문이다. 놀람과 자신에게는 흥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찬탄의 기분으로 다섯 사람은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묵묵히 쳐다본다. 시스토도 카타리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두사람이 이런 놀랄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혀 보아 낼수 없었던 것이다.

카타리나 “야 그만둬요. 우리 두사람은 최저최악의 인간이요. 다만 시스토와 나는 고려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것어요. 그 애정의 표현이지요.”

모두 잠시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다. 카타리나의 말을 듣고 림씨 주인의 눈으로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조국인 중국을 떠난 림씨 주인에게는 조국을 떠나서 처음으로 감촉되는 조국애가 살아나고 있다.

림씨 주인 “알았다. 나도 납득돼. 시스토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 우리들은 여기의 크리스찬들이 귀순하는 증서를 써내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을 대대 이어받는 체제를 만들어. 질문당하고, 귀순하는 증서를 내지 않고 순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자유지, 자유가 되어 잘 되었어.” 림씨 주인은 시스토와 카타리나를 보며 빙긋 웃는다.

로구사에몬 “나도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나는 절대 순교하겠어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로부터 마음속으로 정해온 것이요. 나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해 두지요. 나는 귀순하는 증서는 내지 않아요. 고문에 이긴다고 담보할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제일 받아보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보다 큰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인간으로서 제일 싫은 일을 겪으라고 예수회에서 나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지요. 그러므로 하다 못해 나는 고문을 받아 보려고 생각해요. 고문에 쳐 순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고문을 받고 싶어요. 그러므로 귀순하는 증서는 쓰지 않겠어요.”

재빨리 마그달레나가 큰 목소리로 웨친다.

마그달레나 “나도 귀순하지 않기로 정했어.”

엉겁결에 두손을 짝 쥐고 있다. 그러나 오에 부부를 제외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생글생글 웃는다.

오에 부부는 모두를 둘러보고 알아차렸다는듯이 뒤이어 생글생글 웃는다.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 왜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와 결혼해 크리스찬을 대대 이어받으려는 생각을 하는것이 더 좋지... 그것도 좋은 전략이지.”

이말을 듣고 마그달레나는 크게 숨을 모아 쉬고 똑바로 로구사에몬을 보며 한마디 한다.

마그달레나 “하나님에게 보다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지요.”

로구사에몬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아버지인 후지호에이와 백부 다로우에몬은 거리낌 없이 크게 웃기 시작했다. 이미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웃음을 억제할 수 없다. 즐겁게 웃을 때 아무 선언도 하지 않은 다른 여섯명도 마음 속으로 (나도 귀순하는 증서는 내고 싶지 않아. 순교하고 싶어) 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전략회의는 끝나고 전대 미문의 귀모로 크리스찬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대장과 여자대장은 역시 시스토와 카타리나다. 이번의 싸움은 지역적으로는 좁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260년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승리로서 끝나는 것이었다. 사실은 이로부터 10년후 이 열 사람은 한사람도 귀순하지 않고 원망대로 순교한다. 이 크리스찬의 리더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10년간이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최후의 8개월간 또한 전대 미문의 모습으로 성모의 출현이 그들 전원의 앞으로 실현되는 것이었다.

전략회의가 끝나 시스토와 카타리나, 림씨 주인과 부인, 그리고 오에 부부가 동반해 데라사와 가나야 마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뒤에서 마그달레나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 잡으려 한다.

마그달레나 “기다려요.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카타리나 “마그달레나 왜 이래.” 따라잡은 마그달레나가 숨이 차 하며 말을 꺼낸다. 일곱 사람이 모두 천천히 걸으면서 묻는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들으셨지요. 요즈음에는 언제나 그래요.”

카타리나 “그래.” 마그달레나는 분개한 나머지 눈물이 그렇게진다.

마그달레나 “나 로구사에몬에게 좋은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맛있는 요리도 가득 만들고 옷도 만들어 드리고, 깨끗하게 세탁하고, 방도 청소하고, 죽도록 열심히 일한 것이예요. 여자들의 일을. 마리아 어머니가 가르친대로 다 해 드렸지요.”

카타리나 “자, 그래. 로구사에몬은 무슨 말을 해. 칭찬해 주지 않아.”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많이 칭찬하지요. 하지만 언제나 하는 말이 빨리 좋은 사람을 찾으라고.”

마그달레나는 엉엉 울기 시작한다.

카타리나 “너무해. 불쌍하네. 상처받고 있는 것이지.” 카타리나는 멈추어 서 마그달레나를 부둥켜 안는다.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생각하여 모여든다. 오에 부부에게 림씨 부인이 설명한다.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결혼하게 두사람에 친한 사람들이 비밀리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터놓는다. 오에 부부가 옆에 온다.

에리자베타오에 “마그달레나, 아직 실연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울지 말아. 우리들 부부도 기도할테니까, 자.” 카타리나는 핫구를 그만두고 마그달레나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한다.

카타리나 “그래. 아직 이제부터지.”

마그달레나 “마리아 어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카타리나 “좋은 생각이 있어. 여자일을 하면서 로구사에몬를 좋아한다 것을 더욱 확실히 전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밥을 담을 때 참깨로 ‘좋아해요’라고 써 놓아. 옷을 씻을 때는 옷끝에 흰실로 ‘좋아해요’라고 수놓아. 알았어.”

마그달레나 “응, 나 해봐.”

이리하여 마그달레나는 돌아갔다. 며칠 후, 또 마그달레나가 시스토와 카타리나에 상의하러 왔다. 마그달레나는 시스토가 로구사에몬과 제일 친한 친구이므로 시스토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한다. 마그달레나가 두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다.

마그달레나 “내가 밥 위에 참깨로 ‘좋아함’이라고 쓰면 로구사에몬은 된장국을 그위에 부어서 먹어 버려. 옷끝에 실로 ‘좋아함’이라고 쓰면 모두 찾아서 떼내 버리지요. 로구사에몬이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에 나 ‘사’자와 ‘랑’자로 빵을 구워 드렸지요. 그러니 ‘랑’자의 빵을 개에게 먹여요.”

카타리나 “야, 개에게, 로구사에몬도 너무 해.” 마그달레나는 분해서 울상이 되어 있다.

카타리나 “불쌍하네, 무슨 짓이야. 마그달레나, 그러나 포기하면 안돼. 아직 입으로는 직접 전하지 않고 있지. 이 다음에는 얼굴을 맞대고 말해 보아. 좋아합니다라고, 로구사에몬과 결혼하고 싶다고.”

시스토 “그래, 마그달레나. 그래서 거절당하면 이렇게 물어 봐. ‘로구사에몬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요’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하리라만. 그러면 ‘동숙들은 결혼해도 될텐데 왜 결혼하지 않는가’고 물어봐, 그리고 그 이유를 똑똑히 기억해 나에게 들려 줘.” 마그달레나는 기분이 조금 돌아져 돌아 갔다.

33-78 '여인, 카타리나의 전도'

카타리나 “하지만 시스토, 이제 곧 로구사예몬과 함께 이 부근을 돌아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벼 가을도 끝날 때가 되었지요”

시스토 “참, 그렇게 되었구나.”

카타리나 “지금까지는 광산의 일꾼들 한테만 가고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백성들이나 부부 가족들의 집으로도 가는 것이지요. 호호호.”

시스토 “그래, 그런데 무슨 일 있나.”

카타리나 “시스토, 나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호호호.”

시스토 “에, 함께 가고 싶은 거야.” 시스토는 잠시 앞을 담아 버린다.

카타리나 “왜 그렇게 깜짝 놀라요.”

시스토 “하지만 여자가 전도하며 돌아 다닌다는 말은 들은 일이 없지.”

카타리나 “그럴 수 없지요. 잊으셨나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전도하며 돌아 다니셨다는 말을, 로구사예몬과 파도레로부터 둘이 같이 들은 적이 있지요.”

시스토 “아 그랬던가. 그러나 함께 가서는 뭘 하겠나.”

카타리나 “거기의 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할머니나 따님이나 어린이들과도 이야기하지요. 시스토와 로구사예몬이 남자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에. 그리고 오에 부인이 만들어 준 춤도 배워 주지요. 시스토나 로구사예몬에게도 역시, 어때요 호호. 나 데라사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많은 여자들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두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해 드릴 수 있지요.”

카타리나가 시스토와 로구사예몬과 함께 출발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이와 같이 신이나 떠들어 대며 걷고 있다. 시스토와 손을 잡고 팔을 끼고 웃기도 하며 피크닉에라도 가는 것 같다.

드디어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의 크리스찬 역사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전도에 돌아다니는 것이다. 매우 활약하고 이름난 여성으로서는 고려인 여성 오타 쥬리아가 있었다. 그러나 카타리나의 활약은 또 오타 쥬리아와는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다.

크리스찬의 농가이다. 로구사예몬과 시스토는 주인 남자와 말하고 있다. 시스토가 주역이 되어 이야기하고 크리스찬 부락을 만들일을 권고하고 있다. 카타리나는 부엌에서 부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머니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뒤에 뒤를 이어 계속되는 전도의 장면마다 카타리나의 모습이 보이고 이야기가 들려온다. 뭐라고 말할수 없는 카타리나의 상냥감과 친절함, 모성적이고 사랑에 차 넘치는 그 무엇, 상대방의 작은 괴로움에 큰 동정과 공감을 나타내는 카타리나. 그 모든것이 눈에, 목소리에, 눈물에, 행동에 생생하게 표현된다. 함께 울고 있는 카타리나가 보인다, 함께 화내고 있는 카타리나가 보인다, 부동켜 안고 있는 카타리나가 보인다.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카타리나가 보인다. 카타리나의 타고난 풍부한 동정심이, 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박한 모습이, 빛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밝혀주고, 얼굴로 몸으로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더욱더 터놓고 말하기 쉽게 하는 힘이다. 기실 많은 집들이 만류하며 숙박시켜 주었다. 카타리나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 모두 밤이 깊어 가는 것도 잊고 고생이나 슬픔이나 걱정되는 일을 잇달아 이야기한다. 동정심이나 공감을 어린 아이와 같이 스트레이트로 나타내는 카타리나는 선천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여자이다. 터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서부터 받는 상냥한 태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애태우는 표정에 어머니에서 위로를 받은 아이처럼 마음이 풀려진다. “저렇게, 제 어머니처럼 상냥하고 친절함 사람은 처음 보네” 라고 하며 이곳 저곳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들린다.

카타리나는 듣는 일에 능숙할 뿐만아니라 이야기도 잘한다. 카타리나가 말하기 시작하면 시스토와 로구사예몬도 남자와들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카타리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많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제 지방에서 쫓겨나거나 악독한 일에 저질렀거나, 지금 겪고 있는 고생 등 이야기다. 그리고 카타리나는 자기들이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도고, 가족 친구들과 헤어지고 하던 일, 고려에서 많이 보았던 죽음과 굶주림, 비참, 죽도록 지쳤던 아리마까지의 맨발 여행, 전리품 노예로서 판매되던 일, 어떤 일본인보다도 더욱 비참했던 자기들의 체험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드린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 보인다. 카타리나와 시스토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때도 많다. 림씨 부인의 인생, 한센병인들, 마타기인 요하네, 다른 한센병자들, 일찍히 죽어간 호리고들이 남겨놓은 처자들, 데라사와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람들, 양녀 쿠라라, 도대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의 인생을 카타리나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른다. 시스토와 자기들의 무서운 체험을 카타리나는 마치 어제일과도 같이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놀라고 있다. 마치 카타리나는 여러 크리스찬들의 인생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같다. 모두 마음이 끌려 가게끔 생생히 묘사한다. 로구사예몬도 카타리나의 이야기 능력에 놀란다.

따라서 카타리나의 십년간의 전도 생활이 계속된다. 카타리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 준다. 그리고 점차 동정과 공감도 더욱 많아지고 말 재능도 늘어간다. 또한 어떠한 일도 숨김 없이 털어 놓으며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기억속으로부터 꺼내 이야기할 수 있다. “나만이 괴로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욱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용기와 힘을 돌리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다.

로구사예몬과 시스토는 또한 다른 놀라움도 있었다. 지금까지 두사람은 중요한 사람, 유능한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기둥이 될수 있는 사람에게 더욱 시간이나 노동력을 들여 전도해 왔다. 그러나 카타리나의 전도는 그와 정반대다. 카타리나의 전도의 원리는 자비심과 동정심이다. 카타리나의 흥미를 가장 끄는 사람은 아무도 할수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살길이 막막한 사람, 여생이

짧은 노인, 어린아이들, 중병자들이며 그 사람들과 긴 시간을 타서 이야기하고 위로해 드린다. 아무도 할수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들을 보다 소중히 여기는 카타리나의 방법에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은 자기들의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고 개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카타리나의 방법에 따라 간다. 최후 십년간 카타리나가 함께 전도로 돌아다닌 덕분에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의 전도는 훨씬 좋게 개변이 되어 갔고 있었다.

33-80 '넘원, 원하는 건 뭐나 다 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

카타리나와 시스토, 로구사에몬이 몇번인가 전도에 갔다오고 가을도 끝나기 시작했을 때 마그달레나는 또 상담하러 왔다. 마그달레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 로구사에몬에게 말한다. 감나무 아래이다. 마그달레나는 바구니를 쥐고 있고, 로구사에몬은 사다리 위에서 높은 곳에 열린 감을 따 건너 주고 있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나 부탁하고 싶은거 있어.”

로구사에몬 “그래, 원데. 뭐나 다 해주지.”

마그달레나 “정말. 뭐든지 다 해줘.”

로구사에몬 “응, 시간이 있고 체력이 있는한 뭐나 다 해줘. 뭘하면 좋아.”

마그달레나 “나와 결혼해.” 로구사에몬은 손을 멈추고 놀라운

얼굴로 마그달레나를 바라본다. 그 얼굴을 보고 마그달레나는 외친다, 필사적이다.

마그달레나 “난 로구사에몬이 아주 좋아. 부탁해. 뭐든지 다 들어 준다고 했지.” 로구사에몬은 천천히 사다리를 내리면서 생각한다. 마그달레나를 오래 괴롭히지 않고 한번에 잘라 버릴수 있는 말을. 그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말을 더듬는다. 그래,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 앞에 서서 얼굴을 응시하며 일부러 냉정하게 말한다.

로구사에몬 “나는 죽어도 마그달레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마그달레나의 두눈으로 순식간에 큰 눈물 방울이 흘러 바구니 속의 감위에 떨어진다. 로구사에몬은 이것으로 승부가 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마그달레나는 시스토로부터 지혜를 얻고 있었다.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을 깨물고 목소리를 높여 마그달레나가 또 질문한다. 대답을 잘 기억하고 머리를 냉정히 하고 힘을 내야한다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마그달레나 “나 묻고 싶지만, 로구사에몬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야.”

로구사에몬 “그래.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야.”

마그달레나 “나 설명을 듣고 싶어. 동숙들은 결혼해도 될 건데, 왜 로구사에몬은 결혼하지 않아.” 로구사에몬은 내심 깜짝놀란다. 마그달레나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고 있을가 하고 이상히 생각하며 논리성 있게 대답하려고 머리를 짜낸다. 처음부터 결혼하고 있는 동숙들, 나중에 결혼한 동숙들, 그들과 '나' 라고 하는 이 동숙은 도대체 어디가 다를까? 알고 있는 동숙들을 상기해 본다. 그렇지.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 잘 들어 줘. 그 원인은 내가 다른 동숙들과 비해 여행이 아주 많기 때문이야. 나는 아리마의 세미나리요 출신의 최초의 동숙의 한 사람이다. 17살때에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려 파도레나 수도사들의 활동이 아주 힘들어지고 박해가 한창 진행될 때, 위험을 피해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일본인인 나의 역할이었어. 그후 나는 시스토의 지하교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도 많이 여행을 되풀이해 온 것이야. 지금도 그렇지 않아. 데라사와의 이 집에 머물러 있는 때도 아주 드물지 않아. 누가 나와 결혼해 보렴. 나 대부분 집에 아니 있어, 최초로부터 과부와 같이 되지. 내가 어디 선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 죽어버려도 찾지도 못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거야. 그저 그것 뿐이지. 그런 부부 생활이 10년도 계속 못돼. 불과 몇 년으로 끝날거야. 나는 세미나리요 출신의 동숙이기에 예수회의 수도사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야. 크리스찬 박해가 시작되면 맨 먼저 잡혀가야 하는 거야. 이런 나와 같은 동숙에게 결혼과 전도가 양립 될수 없지거 아니야, 알겠어?”

33-81 '증명, 마그달레나의 생각'

마그달레나는 알았다고 하지 않는다. 눈물에 젖은 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목에서 풀어 땅에 놓고 로구사에몬을 등지고 어디엔가 가버린다. 로구사에몬은 한숨을 쉬며 남겨진 감과 사다리를 거두고 뒷정리를 한다.

마그달레나는 시스토의 집에 온 것이다. 시스토는 전도 여행으로부터 어제 로구사에몬과 카타리나와 같이 돌아오고 오늘은 집에서 피로를 풀고 있다. 마그달레나와 로구사에몬이 한 말을 듣고 시스토는 머리를 끄덕인다.

시스토 “응. 여행이 그렇게 많은가.” 시스토는 생각에 잠긴다.

카타리나 “나와 시스토는 부부로 함께 여행 하고 있어요.”

시스토 “로구사에몬의 여행은 남자도 따라갈수 없을만큼 피곤한 여행이요.”

카타리나 “그렇지.”

마그달레나 “좋아, 나 정했어.”

카타리나 “정했다니, 뭘 정했어요.“

마그달레나 “나 로구사에몬에게 나는 남자보다도 더 힘있고 로구사에몬의 혼자 여행에 꼭 따라갈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이렇게 말하며 마그달레나는 인차 시스토의 집을 뛰어 나와 버린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말릴 겨를도 없다.

카타리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은 멀리 전도에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몇칠 지나지 않아 출발할 것 같다. 마그달레나도 여행 준비를 살그머니 시작했다. 그러나 로구사에몬은 언제와는 다른 마그달레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녀의 여행 준비를 알아 차렸지만 모르는 체 하고 짐속에 바줄 하나를 더넣어 두었다. 로구사에몬은 언제처럼 준비를 마치고 후지 효에이와 마그달레나에게 이번 여행의 예정을 전하고 출발하는 날이 되어 현관에 나왔다. 그러나 언제와는 달리 마그달레나가 송별에 나오지 않는다. 후지 효에이만이 생글생글 웃으며 배웅해 나온다. 집을 나가니 바로 마그달레나가 여행 모습으로 뒤를 쫓아 온다. 로구사에몬은 혼잣말 한다.

로구사에몬 “정말 왔구나.” 마그달레나가 따라잡았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나 함께 데리고 가.” 로구사에몬은

데리고 간다는 말도 가지 못한다는 말도 없이 앞을 향한 채 계속 걷고 있다.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마그달레나인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밖에서 일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사람이 같이 걷는 것을 호기심에 차 보고 있다. 집에 되돌아와 집 사람들을 불러오는 사람들도 있다.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의 옆에 붙어 걸으며 로구사에몬의 얼굴을 보며 말을 건다.

마그달레나 “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왔기에 걱정하지 말아요” 로구사에몬은 아무 반응도 없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44세이지요. 나는 여자이지만 15살로 아주 건강하지요. 밤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달릴때에는 말처럼 빠르지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도 있지요. 나 꼭 로구사에몬보다 추위에도 더 견디지요. 방에 뒤틀릴 때 없지요.” 마그달레나는 열심히 로구사에몬의 표정을 읽으려고 하지만, 로구사에몬은 무표정한 얼굴을 바꾸지 않고 아무 말도 없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내가 함께 가면 병이 날때도 간병해 줄수 있어요.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상처를 치료해 줄수 있지요. 그러니 좋지 않을까요.” 로구사에몬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마그달레나는 잠시 앞을 다물고 있다. 이미 마을을 거의 지나가는 곳에 이르렀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사이에 나 로구사에몬을 위해 세탁하고, 옷 손질을 하고 여자들이 해야할일 무어든지 해 드릴게요. 그러니, 오래동안 이야기 할수도 있고 몸을 쉴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로구사에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지요.” 로구사에몬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마을의 맨 끝에 있는 집을 지나쳐, 큰 소리를 치면 그 집 사람들에게 들리상만 곳까지 왔을 때이다. 돌연 로구사에몬이 발을 멈추고 마그달레나도 멈추어 선다. 로구사에몬이 마그달레나의 발 밑을 보며 말한다.

로구사에몬 “짚신의 끈을 맨 방법이 좋지 않아. 조금 저기 삼나무를 등지고 서 보렴.” 약한 삼나무가 있는 곳까지 마그달레나의 손을 끌고 가 마그달레나를 나무에 기대 세운다. 로구사에몬은 주저앉아 짚신에 손을 댄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 데리고 가 주는 거요. 기뻐라.”

마그달레나는 눈물이 넘쳐 나고 있었다. 눈물에 로구사에몬도 잘 보이지 않는다. 로구사에몬은 짐 제일 위에 넣어 두었던 바줄을 재빠르게 꺼내 마그달레나의 발목에 감고 또 삼나무 뒤로 바줄을 돌린다. 마그달레나가 알아차렸을 때는 허벅다리까지 바줄에 감겨 버렸다.

마그달레나 “뭘 해. 로구사에몬, 그만 뒤!” 로구사에몬은 마구 계속한다. 순식간에 팔꿈치의 높이까지 빙빙 바줄에 묶여지고 양손을 움직일수 없게 되었다. 결국 어깨 높이까지 바줄에 감긴 마그달레나는 삼나무와 일체가 되어 꼼짝 할수도 없게 되었다.

마그달레나 “그만 뒤 풀어 줘, 싫어.”로구사에몬은 안색도 바꾸지 않고 바줄 매듭을 꼬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 순식간에 보이지도 않는다.

마그달레나 “누가 와줘요. 도와줘요.” 목소리가 쉼만큼 오래 외치니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와 주었다. 그러나 로구사에몬은 풀기 어려운 매듭을 지었기에 바줄을 자르지 않고는 풀수가 없다. 낫을 가지려 한사람이 가고 그밖에 사람들은 둘러서서 기다린다. 데라자와 마을 백성들은 불쌍하게 여기면서도 삼나무에 바줄로 발목부터 어깨까지 빙빙 감긴 마그달레나를 보며 참을 수 없이 웃어버린다. 그리고 말한다.

“아, 좀 지나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묶지 않으면 같이 갈려고 할테니 로구사에몬도 딱한 사정이었겠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마그달레나가 삼나무에 묶여져 있네. 너도 좀 떼질 쓰는 편이지 참.”

“마그달레나, 이거 큰일이구나. 불쌍하게도. 이렇게 매여지면 언제나 이곳저곳 바쁘지 돌아다니던 너도 움직일 수 없는거 아니야.”

“야. 고구마 벌레같이 되었구나 마그달레나가. 나무에 붙들어 매여 큰 일 쳤네. 하하하.”

“로구사에몬도 많이 생각한 결과 이렇게 했을 것이니. 마그달레나도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죽을수도 없고.”

“빨리 낫을 가져 오지 못할까. 어쨌든 열네 다섯살 되는 여자 아이를 언제까지라도 이런 상태에 두지 못하지 않아. 불쌍하게도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이 이렇게까지 한다고는. 그러나 할수 없는걸까 마그달레나도 고집쟁이 성질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재미있는 일 난생 처음 보네. 하하하.”

“그렇게 재빠른 마그달레나를 로구사에몬이 어떻게 이렇게 꼬꼬 묶었을까, 정말 이상해.”

마그달레나가 12년간이나 동경해 오고, 지금 결혼해 주었으면 하고 기원하고 있는 마그달레나를, 그리고 로구사에몬을 아무도 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데라사와 백성들의 상냥한 마음 그대로이다. 하지만 이 소문은 그날부터 데라사와와 원내 주변의 여러 마을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후지 효에이의 집에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와 있다. 마그달레나가 삼나무에 매여졌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다. 기분이 껌인 마그달레나는 지금 카타리나의 깊은 동정을 받고 어머니와 같은 상냥한 품에 안겨 울고 있다. 카타리나도 따라서 운다.

카타리나 “불쌍해 마그달레나.” 마그달레나는 카타리나의 가슴에 안겨 흐느껴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이야기한다.

마그달레나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로구사에몬이 그래요. 이젠 안돼. 어떤 무기를 써도 칼 날이 무디고 말지요. 화살도 떨어지고.”

시스토 “마그달레나, 좀 기다려.” 이번에는 시스토가 마그달레나를 가슴에 안으며 위안한다.

시스토 “마그달레나, 자신의 칼이 무디고 화살이 떨어졌을 때에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 싸우는 것이야.” 시스토의 싸움에 대한 말이 마그달레나의 귀에 들리자 그녀의 용모가 갑자기 바뀐다. 마그달레나의 세살 때부터 로구사에몬의 술상의 물고기를 태연히 가로채가고 했던 것이다. 태어나서부터 가진 그 기질이 눈을 갠 것이다. 검술도 씨름도 이길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게다가 마그달레나는 태어날 때부터 군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 시스토가 대장과 같은 말썽이 또한 그 기질을 자극하고 있었다. 적이 얼마나 강하더라도 일단 명령이 내리면 그 말을 최후까지 충실히 따르는 것이 최대 의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다. 지금 시스토의 어조는 여자 아이를 상대로 할 때의 시스토가 아니다. 남자들에게 명령을 내릴때의 어조이다. 마그달레나는 똑바로 서서 시스토를 지켜본다.

시스토 “알았어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의 무기는 논리의 힘이다. 그는 논전에 진 적이 없다고 한다. 세미나리요에서 논리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전하는 것을 잘 기억해 실행해라, 알았나. 우선, 로구사에몬에게 논리라고 하는 학문의 요점을 캐어 물어라. 그 다음 그것을 이용해서 논리를 세워라. 세우려는 논리의 결론은 로구사에몬이 마그달레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 그리고 논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겨라, 알았나?”

마그달레나 “응, 알았어요. 나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싸워서 이기지요.” 단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보이며 마그달레나가 대답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나는 듯 시스토에게 질문한다.

마그달레나 “마리아 아버지, 요사이 로구사에몬의 논리 설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는가요?”

시스토 “응, 기억하고 있지,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의 이유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맞는 것이야. 그건 확실하다. 그러나 예외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맞는 것인지 몰라? 아니, 예외가 있는 것이야. 이 세상에서 썩썩하고 힘겨웁고 걱정많은 짧은 결혼 생활을 보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로구사에몬의 아내가 된다면 그것으로 매우 행복하다고 여기는 여성이 있다고 하면 그 여성이야말로 예외의 여성이며, 그 여성과의 결혼은 로구사에몬의 전도와 양립할 수 있으며, 그 여성이 바로 나라고, 이렇게 말하면 논파할 수 있는 것이야.”

마그달레나 “야 정말 굉장해. 그러나 마리아 아버지 왜 그전에 그런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시스토는 눈을 크게 뜬다.

시스토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생각해야 되는 거요.

마그달레나는 그 때 내가 아무 말도 할틈 없이 밖으로 뛰어 나간거요.”

마그달레나 “아니, 그랬던가요?”

시스토 “하지만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이 누구와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되는 이유는 이것

뿐이 아니요.”

마그달레나 “그럼 뭔데요, 알려 주세요.”

시스토 “아마 그는 세미나리요에서 파도레나 수도사들의

양성으로 동숙이 되어 그들에게 시중들고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는 그들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경해 자신도 그렇게 하자고 생각한 것이 틀림 없어. 10대때 이에즈스가 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 자신의 성욕에 지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는 것은 힘들고 명예로운 일이지요. 물론, 파도레나 수도사는 교회가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할 수 없지만 동숙에게는 그런 결정은 없는 것이요. 그러니 로구사 에몬은 하나님이 꼭 자신에게 한 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도록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가령 전도와 결혼이 양립한다고 해도 그는 결혼을 거부할 것이요.” 마그달레나는 이해하려고 열심히 듣고 있다. 그리고 소박한 의문을 한다.

마그달레나 “나 몰라요.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명예로운 일인가요?”

시스토 “그것을 위한 싸움야말로 매우 치열한 싸움이며

평범한 노력으로는 이겨낼수 없는 힘든 싸움이기 때문이지요. 여자들에게는 이해될수 없으나 치열한 싸움이지요.”

마그달레나 “여자들에게는 모른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카타리나 “나도 알고 싶어, 시스토.”

시스토 “그러면 자 말하지. 남자는 누구나 10대의 전반이

되면 여자의 알몸을 보고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요. 여자의 몸을 바라게 되는 거요.” 마그달레나와 카타리나는 “어마나”하고 얼굴을 붉힌다. 시스토는 하늘을 보는체하는 얼굴을 하고 있다.

시스토 “이 희망은 10대 20대에 제일 강렬하고 30대가 되면 조금 안정되며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는 나와 같은 연령이 되면 더욱 죽어드는 것이요. 이제 곧 며느리 야애가 손자를 낳게 되지만, 야애의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가 되지. 로구사 에몬은 나와 동갑인 44세이요. 어떤 남자라도 10대 20대 30대에는 여자의 알몸을 보고 만져보기 싶은 마음이 강하게 몰려 오지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많이 가라 앉지요. 로구사 에몬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22살이었어. 24살에 림씨 두목일가에서 시스토 학원을 시작할때 그는 이 욕망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어. 자기 자신도 정결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젊은 호리고들이 정결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던 일이 있었지. 그는 지금 이미 여자의 알몸을 보거나 만져보려는 정욕의 싸움에 약 30년이나 고생하고 이겼왔다고 할수 있어. 때문에 욕망이 가라앉은 지금에 와서 결혼하여 여자의 몸과 접촉하고 싶지 않을 것이야. 이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한평생 정결을 지킨다고 하는 싸움의 나날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 죽을때까지 독신으로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싸움 끝에 얻은 명예를 그가 확실한 이유가 없이 내버리려고는 하지 않을 거요.”

마그달레나 “확실한 이유... 내가 미쳐날 것처럼, 죽을듯이 로구사 에몬을 사랑하고 있고, 또 로구사 에몬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마리아 어머니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확실한 이유가 안 되나요?”

시스토 “마그달레나. 마그달레나는 일생 사모하는 남자를 몇이나 만나 보았나.”

마그달레나 “로구사 에몬 하나뿐이지요.”

시스토 “로구사 에몬은 전도 여행중에 많고 많은 아름다운

크리스찬 독신 여자들을 만났을 거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일은 한번도 없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 요고데의 쇼주인도 매우 아름답고 새파랄게 젊고 높은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 여자이지요. 어디에 가도 로구사 에몬은 그런 여자들과 만나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며 도와주고 있으니 마음이 끌려 들어가는 일도 헤일수 없이 많았던 것이 틀림 없지. 그런 기분을 그 때마다 전부 뿌리쳐 버려야 했지. 그

러니 마그달레나의 그런 이유는 이와 같이 뿌리쳐 버리고 말아질 것이지.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나와 결혼하는 것을 로구사에몬에게 바라고 있다고, 아렇게 로구사에몬을 납득시키면 그와 결혼 할 수 있는거요. 마그달레나, 논리로서 그를 납득시키는 수 밖에 없지. 해 보아.”

마그달레나 “응. 마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해보지요.”

로구사에몬이 전도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다. 마그달레나는 삼나무에 매였던 일은 잊은체 하고 여행에 지친 로구사에몬을 부지런히 보살펴 드린다. 그리고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를 삼나무에 붙들어 맨 것쯤은 큰일이 아니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곧 마그달레나는 시스토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마그달레나는 종이와 붓을 준비하고 먹을 갈아 놓고 로구사에몬을 부른다.

로구사에몬 “야 마그달레나, 뭘 할 작정이야. 공부를 하나.”

마그달레나 “응 그래. 로구사에몬은 세미나리요에서 논리학을 배웠지요. 나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그 요점을 써 줘요.”

로구사에몬 “그래, 요점을. 음 그러면 삼단논법을 가르칠까? 마그달레나는 잘 모르기에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배워 줄까.” 로구사에몬은 종이에 붓으로 우선 삼단논법이라고 쓰고 잠시 생각한후 천천히 또 써 간다.

1.하나님만이 무엇이든 아시고 있다.

2.이에즈스는 무엇이든 아시고 있다.

3. 하므로 이에즈스는 하나님이다.

조금 여백을 두고 또 더 쓴다.

1.하나님만이 무엇이든 하실수있다.

2.이에즈스는 무엇이든 하실수있다.

3.하므로 이에즈스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고나서 로구사에몬은 15살 되는 여자 아이도 알기 쉽도록 친절히 가르쳐 준다. 그리고 마그달레나도 이해 되었다. 드디어 마그달레나의 논전의 준비가 되었다. 겨울 준비도 마치고 백성들이 한가해진 11월 중순,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에게 논전을 걸었다.

마그달레나 “나 로구사에몬에게 논전을 걸어. 어떤 논의를

할지 실전까지는 비밀이야. 마을 사람들을 이 집에 모두 불러들여 듣게 하는 거요. 마리아 아버지에게 행사를 부탁하고 있으니 꼭 책임지고 해줄거요.” 로구사에몬은 깜짝놀랐다. 아주 진지한 마그달레나의 얼굴을 보며 로구사에몬이 말한다.

로구사에몬 “좋아 응하지. 그러나 저도 괜찬을가. 나는 논전에 패한 적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 나에게서는 놀음질과 같은 일이 아닐까. 마그달레나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켜 버리면 어쩔까 근심스러워.”

이렇게 되어 논전의 행사가 정해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열려지고, 그리하여 후지 효에이의 저택에 모두 모이게 되었다.

당일이다. 시스토는 행사를 맡았으므로 물론 와 있다. 시스토 일가 전원이 다 왔다. 금방 해산을 앞둔 야에도 왔다. 림씨 두목과 부인 그리고 오에 부부도 와 있다. 데라사와의 백성들이 모두 와 있다. 백성들이 두성거리고 있다.

백성 “뭘야 논전아라는 건.”

“이봐, 요코데의 가나자와 하찌만구 노래같은 걸 부르는게 아닐까.“

누구도 논전이라는 건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다. 그러나 요전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에게 삼나무에 붙들어 매여졌다는 일은 모두 알고 있으며 오늘 논전은 또한 마그달레나가 걸고 로구사에몬이 응대한다고 하니 무슨 일이냐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와 있다. 칸막이를 전부 걷어치우고 넓게된 방에 모두 꽂 차 있다.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왔던 것이다. 현관까지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다. 행사인을 맡은 시스토의 큰 소리가 들려온다.

시스토 “지금부터 로구사에몬은 자신이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마그달레나는 또한 로구사에몬이 자기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논제로 하여 서로 논쟁을 하겠습니까.”

마을사람들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고 와와 떠들어댄다. 떠드는 소리가 잦아지는 것을 기다려 시스토가 말을 계속한다.

시스토 “두 사람은 여러분들께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토코노마를 등지고 시스토는 턱 걸상에 걸터앉아 양측에 선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게 한다.

시스토 “이런 논제에 이존은 없나, 마그달레나?”

마그달레나 “없어요.”

시스토 “로구사에몬은?” 로구사에몬은 이런 논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내심으로는 매우 놀랐으나 논전에는 절대 자신이 있고 또한 이 기회에 마그달레나에게 마지막 선언을 하고 두 번 다시 결혼해 달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태연자약하게 대답한다.

로구사에몬 “없습니다.”

시스토 “그럼 논전을 먼저 건 마그달레나로부터 말하기로 합시다.” 마그달레나는 앞을 바라보며, 즉 데라자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크게 숨을 쉬어 들이고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마그달레나 “나와 로구사에몬은 둘이서 감을 따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와 결혼해줘 라고 내가 말했지요.” 마그달레나는 얼굴을 로구사에몬 쪽에 향한다.

마그달레나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요. 난 죽어도 마그달레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 때 로구사에몬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정말로 본심으로 그렇게 말했나요. 거짓말이 아닌가요.” 이런 서투러운 말부터 꺼내는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에게는 걱정스럽게만 생각된다. “마그달레나, 이거 참 괜찮을까” 라고.

로구사에몬 “그래. 본심이잖아. 거짓말이 아니야.”

모인 사람들도 이런 말로서 시작되므로 망연한 감을 느낀다. 이미 결론이 뚜렷히 보이는 것 같다. '로구사에몬이 죽어도 마그달레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면 마그달레나도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냐.' 라고.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마그달레나는 잠깐 두고 또 질문을 한다.

마그달레나 “지금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변함 없어요?”

로구사에몬 “그래, 변함 없지.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마그달레나가 자기로서 자신의 목을 졸리고 있지 않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이쪽 저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온다. '괜찮을까 참'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해지기를 기다려 마그달레나가 또 질문을 들이댄다.

마그달레나 “죽어도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크리스찬을 그만두라고 고문 받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편이 로구사에몬에게는 더 싫나요.” 로구사에몬에게는 마그달레나의 의도가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므로 잠시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그 의도를 알 수 없어 솔직히 대답한다.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와 결혼하는 편이 더 싫어.”

이렇게까지 로구사에몬이 마그달레나와 결혼하기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모두 낙담의 한숨을 쉰다. 사실 여러 사람들은 마그달레나를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사인 시스토가 “승부가 났다.”고 선포 할까봐 겁나하며 모두 시스토를 바라본다. 그러나 시스토는 아무말 없다. 잠시 기다려도 마그달레나가 질문을 하지 않으므로 로구사에몬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생각을 더듬으며 천천히 이야기한다.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에게는 이미 설명한바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기에 한번 더 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나는 예수회의 동숙입니다. 사실 동숙은 결혼해도 되고 기실 결혼한 동숙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라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그 원인을 설명해 드리지요.

나는 10살때 세미나리요에 입학하고 동숙으로 양성 되었습니다. 17살때 히데요시가 금교령을 내렸으므로 히스파니아인이나 포르투갈인의 파도레나 수도사들의 여행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동숙들이 대신에 많은 위험한 여행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세미나리요 출신의 최초의 동숙의 한 사람이기에 위험하고 먼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결혼한 동숙과 비교하여 여행이 훨씬 더 많은 동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하니 누군가 나의 아내로 되면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내가 일가를 위해 나 대신에 벌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사시장철 대부분 시간을 여행 가고 집에 없지요. 일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는 과부와 같이 되지요. 아이의 양육도 교육도 아내가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 연락도 없고 여행에 가버리면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가령 어디에선가 내가 정말 잡혀 죽어도 누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매일 걱정되고 견딜수 없는 생활이 되지요. 이런 결혼 생활이 오래 못갈 것이 아닙니까. 나는 예수회의 세미나리요 출신이기에 예수회의 수도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탄압이 시작되면 나는 제일 먼저 잡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있어서 전도 생활과 결혼 생활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견딜 수 있는 여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한평생 정결을 지키고 독신을 관철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로구사에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그의 논리에 납득 되지 않을 도리는 없다. 내심 마그달레나를 응원하고 있던 데라사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절망해 버린다. 상냥한 데라사와의 사람들은 패배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며 마그달레나를 동정의 눈으로 응시한다. 이쪽저쪽에서 “불쌍해”라고 하는 말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마그달레나는 실망하는 표정이 전혀 없다. 얼굴에는 역시 싸움에 도전하는 무서울 정도로 기백에 넘친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마그달레나가 입을 연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의 논리는 일반적 경우에는 맞지만 맞지 않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지요. 그러니 틀린 논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증명에 실패한 것이지요.”

로구사에몬은 깜짝놀라 마그달레나를 응시한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회장은 단숨에 또 긴장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기저기서 외친다. 마그달레나는 회장이 조용해지를 기다려 로구사에몬에게 얼굴을 향하고 다시 묻는다.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이런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견딜 수 있는 여성은 없다고 했지요. 그것은 모든 여성에게 맞는걸까요. 아니에요. 예외도 있지요. 만일 어떤 여성이 부친으로부터 충분히 생활을 도움 받고, 또한 과부와 같은 쓸쓸하고 괴롭고 걱정스러운, 불과 몇 년도 안되는 결혼 생활을 보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로구사에몬의 아내가 되는것이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모든 고통에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여성이라면 로구사에몬의 결혼 생활과 전도 생활을 양립시킬수 있는 것이며, 그 여성이 바로 나지요.”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에게 논리학을 수업하였던 일을 후회했다. 마그달레나의 말 그대로이다. 지금 청중들은 와와 떠들어 대며 마그달레나를 성원하고 있다. 시스토가 그것을 주저앉히려 한다. 로구사에몬은 딱한 표정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 논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수 있을까.

로구사에몬 “응 그럼, 마그달레나는 하나님이 나와 마그달레나가 결혼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것을 증명해 보렴”

마그달레나 “네, 할 수 있지요. 데라사와의 여러분, 전번에 우리 집에 데라사와의 크리스찬들 주요 간부들이 다 모였지요. 그리고 장래의 박해에 대해 이야기 했지요. 그 때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까.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싫은 일을 받아 들이라고 예수회에서 가르쳤다고 했지요. 고문받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싫은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크리스찬을 그만 두라는 고문도 받겠다고 했지요. 로구사에몬은 이 장소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로구사에몬 “응, 그랬어.”

마그달레나 “로구사에몬은 이 논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틀림 없나요.”

로구사에몬 “응, 그래. 이 삼단논법은 틀리지 않아.”

마그달레나 “지금 인차 로구사에몬이 죽어도 나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 나와 결혼하는 것과 크리스찬을 그만두라는 고문을 받는 것이 어느 편이 로구사에몬에게 더 싫은 가고 물으니 나와 결혼하는 편이 더 싫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지금은 로구사에몬에게 있어서 제일 싫은 일은 나와 결혼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1.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 제일 싫은 일을 받아들이라고 예수회에서 모두에게 가르쳤다.
2. 나와 결혼하는 것이 로구사에몬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 제일 싫은 일이다.
3. 그러므로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에게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나와 결혼해야 한다. 어때요, 이 논리가 맞지요.”

로구사에몬은 식은 땀이 흐른다. 논전에서 이렇게 패하기는 처음이다. 이번에는 모두가 로구사에몬을 보고 있다. 그의 당황한 심정은 숨길 길이 없다.

로구사에몬 “논리는 맞는구나. 음, 나 좀 생각해 봐.”

로구사에몬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삼단논법의 틀리는 점을 찾을수 없다. 로구사에몬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말한다.

로구사에몬 “난 젊을 때부터 오랜 세월 계속해 온 자기희생의 길을 계속하고 싶은 거요. 하나님에게 나의 괴로움을 바쳐 드리고 싶다.”

마그달레나 “44세의 로구사에몬에게 한평생 정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은 이미 그렇게 크게 괴롭운 일이 아니지요. 이미 자신의 성욕과의 싸움에는 이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자기 희생이라는 의미는 없어졌지요. 단순히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요. 연령이 높아 감에 따라 성욕과의 싸움은 끝났지요. 무거운 짐이 이미 풀어지고 편해졌으니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새로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지요. 아내를 돌보아 주고 아이를 길러주는 무거운 짐을요. 과거에 쟁취한 명예를 툇내고 새로운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제 책임을 벗어 버리고 도망가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와 결혼하고 새로운 크리스찬 마을을 만드는 싸움에 다시 나서야 해요. 나와 함께 다음 세대의 동숙, 로구사에몬의 후손을 키워내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도망병이 된다는 것 뿐이지요.”

로구사에몬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같은 감을 느낀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돼겠다.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 그 삼단논법은 자신으로 생각한

거냐.” 하나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어른 남자가 돕지 않으면 마그달레나가 그런 논리를 생각해낼 수가 없다. 만약 누구의 도움도 빌지 않고 혼자서 이런 논리를 생각하였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의사이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틀림없지.

마그달레나 “나 자신으로 생각한 것이예요.”

뒤따라 로구사에몬이 종얼댄다.

로구사에몬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야.” 그리고는

로구사에몬은 시스토에게 향해 말한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나는 졌어. 난 평생 처음으로 논전에 패했어.”

시스토는 인차 걸상으로부터 일어서 큰 소리를 지른다.

시스토 “승부가 났습니다. 마그달레나의 승리입니다.”

순식간에 회장에 큰 소동이 일어난다. 모두 큰 소리로 “결혼해라” 하고 외쳐댄다.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

시스토 앞에서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를 가까이 끌어 당겨 귀에 입을 대고 말한다.

로구사에몬 “하나님이 원한다면 결혼하자.”

마그달레나는 그대로 로구사에몬의 가슴에 기대며 흐느껴 운다. 행복의 눈물이다. 로구사에몬의 말을 들은 시스토가 부근 사람들에게 그 말을 전한다. 로구사에몬이 마그달레나와 결혼하겠다고 한 다고. 순식간에 그것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뒤따라 축복의 큰 소동으로 변해 간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는 11월말, 야에의 출산이 시작되었다. 힘드는 난산이었다. 야에는 체력이 없어 지고 있다. 카타리나가 시스토의 곁에 와 작은 소리로 말한다.

카타리나 “시스토, 야에와 아기의 목숨이 위험해.”

카타리나는 매우 지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새파래져 있다. 시스토는 사태의 중대함이 알았다.

시스토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을 불러 오자.”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을.”

시스토 “그래. 그럴 때에는 산도에서 아기가 죽어버리기 전에

아기의 머리위에 물을 뿌리고 세례를 준다고 하였어. 로구사에몬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카타리나는 수긍한다. 두사람은 뺨으로 나와 빠른 걸음으로 후지 효에이의 집을 향한다.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인차 후지효에이의 집에서 나와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함께 야에의 집으로 향한다. 집에 도착하자 로구사에몬은 차 주전자에 물을 넣어 세례의 준비를 하고 야에의 옆에 가져간다. 그 건강하던 야에가 힘이 다 지쳐 녹초가 되어 신음하고 있다. 아기의 머리에 세례 물을 뿌릴 수 있었다. 머리의 일부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로구사에몬은 즉시 세례를 하사한다.

로구사에몬 “에고•테•바푸티조•인•노미네•파트 리스•

엣쯔• 피리아• 엣쯔• 스피리토스• 상구데이”

그리고 로구사에몬은 눈을 올리뜯다. 마리아 관음이 보인다. 마음 속으로 (마리아 마마, 살려주세요) 라고 열렬히 기원한다. 그리고 야에의 큰 배위에 가볍게 손을 놓고

로구사에몬 “이에즈스의 구원을 바라옵니다.”라고 말하며 배위에 큰 십자를 그린다.

로구사에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때 돌연 큰 진통이 일어나고 야에가 큰 신음을 하며 배에 힘을 준다. 그러자 아기의 머리가 완전히 나왔다. 로구사에몬을 통해 마리아 마마가 기적을 주신 것이 모두의 눈에 명확히 보였다. 어머니와 아기의 목숨은 구원되었다. 태어난 갓난아기는 여자 아이였다. 갓난아기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 야에가 운다.

카타리나 “여자 아이예요, 야에.”

야에 “여자 아이. 그럼 아그네스이구나.”

로구사에몬 “아그네스인가? 좋은 이름이네.” 로구사에몬은

방금 일어난 기적과 같은 위대한 은혜에 마음 속으로 '마리아 마마 고맙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카타리나가 자신의 아들을 상기한다.

카타리나 “이번에는 죽을 지경으로 걱정하고 있는

루이스를 안심시켜야지. 시스토 부탁해요. 직장에 가서 루이스에게 알려드려요. 요아킴에게도.”

시스토 “저, 그레. 야에 무언가 알리기 싶은 일은 없는가.”

야에 “아버지, 루이스에게 말해 드려요. 나 마리아 마마를 보았어요. 미소 짓고 수궁해 주고 계셨어요. 그리하여 아기가 태어난 것이예요.” 거기에 있던 모두가 감동의 전율을 느낀다.

시스토 “야에, 정말인가?”

야에 “정말이에요. 정말로 마리아 마마가 와 주셨어요.”

시스토는 야에를 응시한다. 죽을 지경으로 지치고 있었던 야에가 힘을 돌려 오고 있다. 이상하다.

시스토 “야에와 아그네스에게 마리아 마마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얼대며 시스토는 정련 직장을 향한다.

33-87 '불교 신자로 위장, 결심'

그날 밤, 시스토는 로구사예몬과 마그달레나를 청해 저녁 식사를 같이 먹었다. 야에와 갓난아기 아그네스는 자고 있다.

루이스 “로구사예몬, 야에와 아그네스의 목숨을 구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로구사예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린다.

로구사예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에게 아니라 마리아 마마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스토 “그래. 모두 마리아 마마에게도 감사를 드리자. 야에와 아그네스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크게 머리를 수그리고 마리아 관음을 바라본다.

루이스 “아버지, 이 기적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려에 대한 사랑과 꿈의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그네스는 첫 손녀이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불교 신자로 위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마리아 마마의 도움으로 태어난 아그네스를 안았을 때 아무런 주저도 없어진 것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려를 위해 순교하고 우리들은 고려를 위해 당연히 불교 신자로 위장하지요. 마리아 마마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매우 기뻐한다. 루이스가 이 기적을 이렇게 받아들여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아킴 “이 기적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나도 루이스를 뒤따라 결혼하고 고려의 피를 잇는 크리스찬을 남기겠어요.” 쿠라라가 기쁜 듯 얼굴을 붉히며 수긍한다. 모두가 매우 놀란다.

카타리나 “에, 쿠라라는 아직 11살이지. 벌써 결혼 해.”

요아킴 “어머니, 아직은 안해요. 하지만 오늘부터 약혼을 정하기를 원하지요.”

시스토 “요아킴도 쿠라라도 서로 그렇게 원하고 있나.”

요아킴 “응. 죽을 듯 원하고 있지.”

쿠라라 “응. 참을 수 없을 정도 좋아 해.”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얼굴을 마주 본다.

카타리나 “시스토, 시스토는 요아킴 머느리를 에도로부터 데리고 왔네요.”

시스토 “정말 그렇네요. 좋아, 요아킴 쿠라라, 약혼을 정하기로 하자.”

요아킴 “좋다.” 모두가 요아킴과 쿠라라를 축복한다. 축복의 소동이 안정되고 로구사예몬이 말한다.

로구사예몬 “오늘은 아그네스의 생일과 세례의 축하, 더불어 요아킴과 쿠라라의 약혼, 그리고 마리아 마마가 기적을 하사하고 야에와 아그네스의 목숨을 구해 준 일에 대해 축하합니다.”

마리아 “네, 로구사예몬. 왜 그렇게 갓난아기에게 세례를 하사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싶어한다.

로구사예몬 “세례를 받고 죽은 갓난아기는 천국에 곧장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완전한 행복을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갓난아기는 린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연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므로 난산으로 아기가 죽을 것 같을 때에는 아기에게 어떻게든 직접 물을 뿌려 세례를 하사하는 것이야.”

마리아 “린보 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로구사예몬 “그래요. 유산한 갓난 아기는 모두 거기에 가는

것이야.” 모두 처음으로 린보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구사에몬 “만약, 아그네스가 세례 나중엔 죽었다고 하면 곧장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교회의 장례식 미사는 검은 옷이 아니고 흰 옷으로 하는 것이야. 즉 축하를 하는 것이지.”

마리아 “에.”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또 조국이 생각난다.

카타리나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히 되는건가요.”

시스토 “로구사에몬, 고려에는 아직 한사람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로구사에몬 “중국으로나 일본으로나 아직 한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요.”

시스토 “카타리나, 우리들은 정말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네요.”

카타리나 “그래요, 시스토.”

마리아 “나도 고려를 위해 결혼하고 당당하게 불교 신자의 모양을 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좋아. 결혼한다면.”

시스토 “응,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나?” 시스토는 굉장히 기쁜 모양이다.

카타리나 “마리아도 우리의 피를 이은 아이를 남기고 싶은 것이네.”

마리아 “응. 아버지 어머니, 나 뭐나 다 할 수 있지요.”

시스토 “그럼, 크리스찬 마을을 꾸리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밖에 나 돌고 있을테니 모두에게 잘 부탁해.”

모두 즐겁게 웃는다. 시스토 일가 전체가 조국 고려에 대한 사랑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깊게 느껴 본 하루였다.

33-88 “알림... 파도레 안제리스”

1615년8월, 데라자와 촌의 크리스찬 마을은 계획대로 꾸러져 가고 집도 세워져 가고 있었다. 당초 4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5채의 집이 세워지고 있다.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가 결혼하여 살려는 집이 더 가해진 것이다. 후지 효에이는 저택에 더부살이 부부를 고용하여 살기로 했다. 집이 완성되면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는 결혼하고 후지 효에이의 집에서 나와 이쪽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크리스찬 마을을 꾸리는 일을 하기 위한 것과, 세 사람이 같이 전도 여행으로 떠나는 일에 편리한 것, 그리고 또한 겐고로, 시로 효에이, 와타루 사부로, 마고쥬로 등 4명의 젊은이들을 미래의 전도사로 교육하기 위한 편의를 보아 로구사에몬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었다.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시스토가, 림씨가, 오에가의 가까운 곳에 다섯채의 새집이 건축되어 가고 목수들이 바빠 보내며, 새 논밭 개간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다.

오늘 로구사에몬, 마그달레나, 겐고로와 그의 어머니, 시로 효에이, 야사부로, 마고쥬로는 함께 일하고 있었다. 이 때 림씨 두목이 왔다.

림씨 두목 “여러분, 논밭 일을 그만 두고 우리 집에 모여요.”

일곱 사람은 무슨 일인지 하며 농구를 그 자리에 놓고 림씨 두목 집에 갔다. 림씨 부인이 후지 효에이와 로구사에몬을 데리고 왔다. 림씨 두목도 부인도 기쁜 표정을 하고 있으므로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도 와 있다. 오에 부부도 와 있다. 모두 기뻐하고 있었다.

로구사에몬 “야, 모두 모였습니까. 무언가 좋은 일 있습니까?”

일곱 사람을 대표하여 로구사에몬이 묻는다.

림씨 두목 “대단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안제리스 라고 하는 파도레가 유자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쓰오카 가나야마에 온다고 합니다.”

로구사에몬 “에, 파도레 안제리스? 잘 알고 있지요. 나가사키로부터 마카로나 마닐라에 추방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십시오.”

림씨 부인 “우선, 모두 앉으세요 차를 준비할테니.” 야채 절임과 차가

나오니 림씨 두목이 설명하기 시작한다.

림씨 두목 “오로시에 긴잔의 호리고들이 알려 온 소식인데, 안제리스 파도레는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마스다 긴잔에 가고 마쓰오카 가나야마로 온다고 해요. 또한 동숙 3명을 데리고 지금 쓰가루를 향하고 있다고 해. 북쪽을 향하고 있기에 남쪽이 되는 이쪽으로는 안온다고 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만나러 갈까?” 돌연 마고쥬로가 외친다.

손자 10郎 “나, 파도레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요.”

겐고로 “나도 그래.”

야사부로 “나도.”

시로 효에이 “나도.”

겐고로의 어머니 “나도.”

마그달레나 “나, 파도레로에게서 결혼식 해 주셨으면 해.”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의 손을 잡고 눈을 응시한다. 로구사에몬이 놀라며 말한다.

로구사에몬 “그래. 결혼식을 해 받도록 하자. 5명의 세례에 또한 우리의 결혼식이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구나. 이런 좋은 때를 마추어 파도레 안제리스가 와 주다니.” 로구사에몬은 꿈꾸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다.

로구사에몬 “시스토, 카타리나, 우리들의 결혼식 증인으로 서 주지 않겠습니까? 결혼식 때에 증인 2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카타리나 “야, 로구사에몬, 정말. 기쁘네, 해 드리고 말고요.”

시스토 “물론 해 드리지요, 매우 기쁩니다..”

로구사에몬 “기쁩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가 우리들의 결혼 증인이 되어 주신다니.”

시스토 “나는 '적의 무기를 빼앗아 싸워야 한다'고 마그달레나에게 알려 주었을 뿐이지요.”

카타리나 “나는 하나님에게 빌었을 뿐이지요.”

로구사에몬 “그래? 마그달레나.”

마그달레나 “아니요.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나와 함께 로구사에몬과 싸웠지요.”

림씨 두목 “싸워서 하는 결혼이라니 아주 웬만하지 않은 결혼이구나.”

차를 마이고 있던 림씨 부인이 참다 못해 붓 하고 입에 차물을 뱉어낸다. 모두 큰 소리로 웃는다.

카타리나 “로구사에몬, 로구사에몬은 본 일이 없지만 루이스와 야에의 결혼식 때, 나 고려 나들이 옷을 만들어서 시스토와 함께 입었지요. 그 옷을 가져와 입어도 좋을까요. 시스토와 둘이서.”

시스토 “우리들은 일본 나들이 옷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로구사에몬 “고려의 나들이 옷을 갖고 있다면 부디 입으시지요. 나도

일본 나들이 옷은 없지만, 혹시 루이스와 야에가 고려 나들이 옷을 갖고 있지 않는가요.”

카타리나 “예, 그래요. 루이스와 야에도 고려 나들이 옷을 갖고 있지요.”

로구사에몬 “루이스의 고려 나들이 옷을 나에게 빌려 주실수 없을까요.”

마그달레나 “나도 야에의 고려 나들이 옷을 입고 싶어요.”

카타리나 “내가 입혀 드리지요.”

마그달레나 “야, 기뻐. 나 그런 좋은 옷 입어 본 적 없지, 정말 입고 싶어요.”

림씨 두목 “나는 이 다섯명의 세례를 위한 도구를 가지고 가지. 어쨌든 모두 함께 가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림씨 두목 “일주일 후 출발하자. 마쓰오카 금산에서 숙박하는 장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두 내가 잘 마련해 드릴테니.”

33-89 “세레... 크리스찬 마을의 탄생”

데라자와 마을에서 온 15명이 마쓰오카 가나야마에 도착한 이튿날, 의사로 변장한 파도레 안제리스가 3명의 동숙과 함께 마스다 긴잔의 호리고들에게 안내되어 마쓰오카 가나야마에 왔다.

파도레 안제리스는 시칠리아섬 출생의 이탈리아인이며 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쓰오카 가나야마 크리스찬 우두머리의 집을 향하고 있었다. 집 주변에는 많은 크리스찬과 세례를 받아 크리스찬이 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데라사와의 15명도 그중에 끼여 있었다. 원내에서도 와 있다. 산다유 두목 역시 세례를 하사 받으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있다.

파도레는 갓을 벗는다. 눈썹이 깊고 코가 높으며 수염 투성인 얼굴이 나타난다. 크리스찬들은 큰 감격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 파도레는 작은 십자를 그리고 끈임없이 축복을 보내며 걷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데라사와에서 온 15명 사람들의 앞으로 파도레가 지날 때, 로구사에몬은 파도레를 향해 말을 건다.

로구사에몬 “파도레 안제리스, 동숙 루이스입니다.” 파도레가 깜짝 놀라며 멈춰서 로구사에몬을 주시한다. 양손을 크게 펼치고 앞으로 온다.

안제리스 “오, 루이스.”

파도레는 이렇게 외치며 재회를 기뻐하고 힘 있게 핏구 한다. 이 광경에 데라사와에서 온 모두들은 감격하고 마그달레나는 눈물을 흘린다.

안제리스 “루이스,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지금 뭘하고 있는거요, 루이스.” 세 동숙과 핏구하고 로구사에몬이 대답한다.

로구사에몬 “지금 이 부근에 있는 데라자와라고 하는 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파도레, 오늘 마을 사람 5명의 세례와.”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의 손을 잡아 당겨 파도레의 눈앞에 세우고 다른 한 손으로 마그달레나의 머리를 만지며 말한다.

로구사에몬 “나와 이 사람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그달레나라고 합니다.”

마그달레나 “파도레, 나 마그달레나라고 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파도레는 크게 머리를 끄덕이고, 애무에 찬 눈길로 마그달레나를 응시하고 나서 가까이 당겨 핏구한다.

안제리스 “마그달레나, 축하합니다. 결혼식을 한다니 매우 기쁩니다.

저녁에 선선해지면 시작하지요. 루이스와 합의 할 테니까요.” 마그달레나는 대단히 기뻐하며 파도레에 향해 크게 머리를 끄덕인다.

안제리스 “루이스, 무언가 먹고나서 세례를 합시다. 그리고 저녁때까지 죄의 고백을 들겠습니다. 마그달레나와 함께 죄의 고백에 오세요. 먼저 두사람의 죄의 고백을 들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곧 결혼식을 하지요. 그럼 또 다시 뵙시다.”

로구사에몬과 파도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모여온 사람들과 데라자와 촌의 동숙들이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의 결혼식에 대해 모두들에게 전한다.

모두 로구사에몬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가요 가, 보러 가자” 하며 떠들어 댄다. 파도레와 3명의 동숙이 식사를 끝내고 세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림씨 두목이 세례 도구를 파도레에게 건너지면서 설명하고 있다. 파도레가 깜짝 놀라고 있다.

안제리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지하교회를 당신이 이시미로부터 꾸렸습니까?”

림씨 두목 “아닙니다. 오늘 저녁 파도레가 결혼식에 증인을 서기로 되어 있는 고려인 부부가 꾸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 오셨지만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고려 정련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며, 히데오 시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일본으로 연행되어 와 아리마에서 크리스찬으로 된, 시스토와 그의 부인 카

타리나가 이시미의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21년을 걸쳐 꾸려 왔습니다.”

안제리스 “고려 부부가? 아리마에서 크리스찬이 되어....

21년을 걸쳐 꾸렸다구요... 아리마에는 몇년 있었는데.”

림씨 두목 “온지 이듬해 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파도레는 머리를 끄덕이고 입을 다문다. 조금 생각하고 나서

안제리스 “알았습니다. 여기의 세례에는 이 도구를 사용합시다. 끝나면 꼭 되돌려 드릴테니깐. 중요한 물건이지요.”

여기에 삼일간 밖에 머물지 않을 계획인 파도레는 세례식을 최단의 시간내에 끝내려 한다. 제일 첫 날인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남녀 몇십명이나 된다. 박해 시기이므로 신앙을 최후까지 지켜 싸우도록 파도레는 열렬히 격려하고 그로부터 한사람 한사람에게 남자들로부터 세례를 하사하기 시작한다. 다섯 사람 중 겐고로는 마테오, 겐고로의 어머니는 안나, 야사부로는 루이스, 시로 효에이는 파울로스, 마고주로는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았다.

세례식이 끝나고 데라자와촌의 15명이 다시 모였다. 데라자와촌 크리스찬 마을이 탄생 된 후의 최초의 성원들이다. 11개월전 시스토가 시작하였던 크리스찬 마을 계획이 이렇게 빨리 데라자와촌에 실현 되었다. 크게 기뻐하는 15명 중, 시스토와 그리고 그와 함께 전도 여행 다니고 있는 카타리나, 로 구사에몬이 제일 기뻐한다. 진정 데라사와 가나야마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카타리나와 림씨 부인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발전하였으며 다른 광산에서도 그것을 보고 서로 배워 같은 공동체가 그후 약2년간에 뒤에 뒤를 이어 만들어지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주적인 크리스찬 마을이 꾸려졌던 것이었다.

33-90 “맹세... 죽음으로서, 두사람이 갈라질 때까지”

시스토가 장남 루이스와 차남 요아킴과 함께 이 날을 위해 일주일간 걸쳐 만든 물건이 있었다. 한쌍의 기러기 모형이다. 한쌍의 기러기가 물위에 떠 있는 날개를 접은 모형이다. 나무를 깎아 만들고 채색 칠을 하였다. 로구사에몬에게 고려 나들이 옷을 입히고 난 시스토는 어깨 자루에서 그 기러기 모형을 꺼내 구사에몬에게 보인다.

시스토 “로구사에몬, 이건 한쌍의 기러기요.”

로구사에몬은 처음으로 보므로 보고도 잘 모른다.

로구사에몬 “기러기라고, 이건 무슨 의미인데요.”

시스토 “원래 마그달레나의 어머니에게 드리야 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므로 우선 후지 효에이에게 드리고 결혼식 장소에 꾸미게 하지요.”

로구사에몬 “응. 그러나 한쌍의 기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시스토 “이 기러기들은 한번 부부가 되면 일생 상대를 바꾸지 않고 상대가 죽었다 해도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부는 이 기러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구사에몬 “야 그래. 그거 참 좋은 의미인데. 하지만 참 잘 만들었네요, 좋은 장식품인데요.” 로구사에몬은 넋을 잃고 바라본다.

시스토 “예, 그럼 갑시다, 로구사에몬” 고려 나들이 옷 모습을 한 두사람이 후지 효에이의 곳으로 간다. 후지 효에이는 루이스와 야에의 결혼식 때에 기러기 모형을 보았기에 의미를 알고 있다. 시스토로부터 받은 기러기 모형을 로구사에몬이 후지 효에이에게 드리며 결혼식 장소에 갖추어 달라고 부탁하니 후지 효에이는 로구사에몬과 함께 크리스찬 두목의 집에 가 잘 보이는 곳에 꾸며 놓게끔 부탁한다.

후지 효에이가 숙박한 집 안쪽에서는 카타리나가 마그달레나에게 고려 나들이 옷을 입히고 있었다. 카타리나가 문을 작게 열고 얼굴을 보이며 외친다.

카타리나 “모두 준비되었어요.”

이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달려간다. 파도레에게 전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집에 알리러 가는 사람도 있다.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뒷따라 모여들어 마당에 꽉 찬다. 세례식을 하였던 장소에서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크리스찬 우두머리 집의 큰 응접실은 장문을 모두 열고 밖에서도 보일수 있도록 하였다.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이 파도레 앞에 섰다. 파도레는 희고 긴 가는 천을 목에 걸고 있다. 양쪽 끝에는 금실로 십자가가 수 놓아져 있다. 스톨라라고 하는 제복이다. 파도레가 후지 효에이에게 당부한다.

안제리스 “아버님, 당신의 딸을 이분의 곁으로 데려 오십시오.” 후지 효에이가 마그달레나를 마중 간다.

이쪽저쪽에서 “시작되었다, 시작되었다.” 하는 말소리가 들리고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마쓰오카 가나 야마 주민들도 모두 몰려 온다. 일이 끝나고 해가 지기 시작되는 때였다. 후지 효에이가 마그달레나를 부른다.

후지 효에이 “마그달레나, 아버지가 마중하러 왔다. 같이 가자.”

안 쪽에서 대답 소리가 들려온다.

마그달레나 “예, 아버님.”

장문이 크게 열리고 여름 황혼의 연한 광선속에 고려 신부의 옷을 입은 마그달레나가 나온다. 모여선 남녀들이 “야” 하고 환성을 올린다. 마그달레나는 얇은 비단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모두 놀란 것은 원삼이라고 하는 고려 신부의 옷이었다. 반들반들한 가지 각색 천으로 만든 옷이다.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성들은 더 꼭꼭히 보려고 앞으로 닥쳐든다. 옷의 아름다움에 여성들이 더욱 소리치며 떠든다. 마그달레나는 후지 효에이의 팔에 자기 팔을 걸고 천천히 걷는다. 여성들은 모두 나도 저런 옷을 입어 보고 싶었으면 하고 웨친다. 고려 나들이 옷을 입은 카타리나가 일본 나들이 옷을 입은 림씨 부인과 에리자베타 오에 앞을 지나간다. 일행은 크리스찬 두목의 현관에 들어가 드디어 응접실에 올라간다. 파도레가 다시 당부한다.

안제리스 “아버지, 당신의 딸을 이분에게 맞겨 드리세요.”

후지 효에이는 마그달레나를 로구사에몬의 앞에 데려 와 손을 놓고 뒤에 물러선다. 어깨를 가까이 하고 조용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며 파도레가 말한다.

안제리스 “루이스, 십자가에 걸려 있는 이에즈스와 함께 있는 분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 그리고 마그달레나였지요. 당신은 마그달레나라고 하는 이름인 가진 이 여자와 결혼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나는 당신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십자가에 세워진 이에즈스와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고 마리아와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을 수 있게끔 이제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좋겠습니까?”

로구사에몬 “예 파도레, 감사합니다.”

안제리스 “두 사람 같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파도레는 제단 위의 십자가쪽에 뒤 돌아 서서 라틴어로 기원한다. 로구사에몬이 파도레와 교대로 라틴어로 기원하므로 마그달레나는 깜짝 놀란다. 파도레는 두 사람을 향해 말한다,

안제리스 “두 사람 모두 서세요. 요한.”

그리고는 로구사에몬에게 라틴어로 질문한다. 마그달레나를 아내로 하는 것을 원할 것인가고. 로구사에몬은 확실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한다.

로구사에몬 “보로...”

안제리스 “마그달레나,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라틴어로 물을 것이니 '보로' 라고 대답하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 고개를 가로 저으세요.” 로구사에몬이 근심스러운 시선으로 마그달레나를 바라본다. 마그달레나가 로구사에몬에게 묻는다.

마그달레나 “보로라느건 무슨 의미인데?”

로구사에몬 “나는 원합니다 하는 라틴어지요.”

마그달레나가 머리를 끄덕이고 또 파도레를 보고 파도레가 마그달레나에게 라틴어로 요한을 남편으로 하는 것을 원하는가고 질문한다. 마그달레나는 로구사에몬보다 더 큰 소리로 대답한다.

마그달레나 “절대로 보로. 죽어도 보로.”

파도레의 웃음이 오래동안 멈추지 않는다. 이탈리아인 파도레 안제리스는 호쾌하게 크게 웃는다. 마그달레나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다행히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다. 웃음이 멈춰지자 파도레는 힘 있게 마그달레나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로구사에몬의 오른손 위에 놓고 꼭 쥐도록 한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는 스톨라의 한 쪽 끝을 풀어 빙글빙글 세바퀴나 두사람의 손에 감는다. 두사람은 마주 향해 서로 응시한다.

안제리스 “요한, 나의 뒤에 따라 맹세하세요. 나 요한은 마그달레나를 아내로 합니다.” 큰 목소리로 천천히 로구사에몬이 그 말을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오늘부터.” 로구사에몬이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순경에 처해 있을 때나 역경에 처해 있을 때나.”

로구사에몬이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부유한 때나, 가난할 때나.” 로구사에몬이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병 들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로구사에몬이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죽음으로 두사람이 갈라질 때까지.”

로구사에몬이 되풀이한다.

안제리스 “나는 총성을 다할 것을 아내에게 맹세합니다.” 로구사에몬은 베일을 건너 마그달레나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맹세한다. 그 목소리에는 평범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 느껴지고 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감격에 울고 있다. 로구사에몬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 물론 제일 감격되어 있는 것은 마그달레나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자신도 같은 맹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긴장해 진다. 난생 처음 표준어로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였다. 언제보다도 높고 떨리는 목소리가 되어 파도레에 따라 맹세한다.

마그달레나 “나 마그달레나는 요한을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순경에 처해 있을 때나 역경에 처해 있을 때나, 부유한 때나, 가난할 때나, 병 들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으로 두사람이 갈라질 때까지 총성을 다할 것을 남편에게 맹세합니다.” 파도레가 두사람의 서로 잡은 손 위에 십자를 그으며 라틴어로 말한다. “나는 당신들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파도레는 세번이나 돌려 감고 있던 스톨라를 풀고 두사람의 서로 잡은 손에 성수를 뿌린다. 그리고 눈으로 로구사에몬에게 암시하니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의 손을 놓고 양손으로 살그머니 마그달레나의 얼굴 앞에 가리워진 베일을 올려 머리위에 접어 놓는다. 그리고는 마그달레나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마그달레나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붙인다. 로구사에몬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하는 키스이다. 마그달레나 역시 난생 처음이다. 로구사에몬은 마그달레나에게 따스한 애정과 존경에 가득찬 키스를 보낸다. 마그달레나의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이제 금방 가슴속으로부터 뛰어나올 듯 하다. 행복으로 하여 온 몸이 녹아날 것 같다. “결혼하였구나.” 라고, 행복의 실감에 마그달레나는 지금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안제리스 “축복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파도레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올린다. 로구사에몬은 감격에 울고 있다. 파도레가 기도를 끝냈지만, 감격에 울고 있는 로구사에몬과 마그달레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파도레는 뜨거운 미소를 띤 얼굴로 두 사람을 응시한다. 그리고 또 감격에 울고 있는 시스토와 카타리나 두사람에게 천천히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 두분의 고려 부부가 일본중의 광산을 묶어 지하 교회를 만든 것이구나.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아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은 끝났다. 밖에서 한창 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축복하며 떠들어 대고 있다. 그 뒤 땅 한복판에는 여러 남자들이 굴은 땔나무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은 마쓰오카 가나야마의 정련 부문의 장인들이다. 시스토는 여기에서 고려식 화로를 만들어 기술을 전수하고 크리스찬들을 가르쳤던 것이다. 큰 은인인 시스토 선생님을 위해 큰 화톳불을 피워 결혼식에 축하의 꽃을 더 첨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굉장히 많은 나무를 쌓아 올린다. 불이 붙어졌다. 점점 불 기세가 강해진다. 정련 직장에서 불길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불 막기 수건' 을 쓰고 화톳불을 마구 계속 두지어 태운다. 얼굴, 머리, 목, 가슴을 불에 타지 않게끔 가리우고 두 눈 구멍만 남긴 수건이다.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어져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톳불을 둘러싼다.

시스토 “야 고맙네 카타리나. 이렇게 축하해 주어서. 답례로 무언가 해 드리기 싶은데.”

카타리나 “응, 무얼 할 수 있을까.” 이 회화를 들은 에리자베타 오에가 두사람에게 말한다.

에리자베타오에 “이 사람들에게 답례로 크리스찬 춤을 가르칩시다.”

카타리나 “아, 그게 좋아. 여기 모두 모여요.” 데라사와의 15명이

모여 상의한다. 11개월전에 전략회의를 할 때 당당히 불교 신자로 위장하려는 방침에 따라 봉오도리(일종의 일본 지방 춤) 처럼 보이는 춤을 만들어 모두 함께 추자고 에리자베타 오에가 제안하고 모두들, 특히 여성들이 대찬성하여 에리자베타 오에가 동작을 붙여 만들어 진 크리스찬 춤이었다. 에리자베타 오에는 '테 데움'이라고 하는 노래곡을 춤에 맞추었다. 이것은 경사로운 큰 축제 때에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가이다. 노래 내용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축하 노래인데도 멜로디는 단조하다. 몇번 들으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이며, 기억하기도 쉬운 멜로디이다. 데라

사와 가나야마의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콧노래로 부르면서 에리자베타 오에가 춤에 맞추었다. 에도 풍격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이다.

로구사에몬 “파도레 안제리스, 이제부터 '테 데움'에 맞춰 춤을 춥니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안제리스 “에, '테 데움'에 맞추어 춤을 춘다고. 그거 참 좋아. 노래

하기를 좋아하지요.” 이리하여 파도레와 3명의 동숙, 로구사에몬, 그리고 요아킴 오에가 '테 데움'을 라틴어로 부르려고 화톳불 쪽으로 향했다. 후지 효에이와 로구사에몬은 기러기 모형을 화톳불 가까이 가져 왔다. 기러기 모형이 춤추는 화톳불에 빛나고 있다. 데라사와의 나머지 13명이 화톳불을 둘러싼다. 로구사에몬이 큰 소리로 웨친다.

로구사에몬 “여러분, 오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례로 크리스찬

춤을 가르치려고 하니 함께 배워서 추어 봅시다.” 로구사에몬이 하나, 둘, 셋하고 부르고 이어서 노래 춤이 시작된다. '불 막기 수건'을 쓰고 화톳불 가까이 있던 정련 부문 장인들도 시스토 선생님이 권하므로 같이 훑내며 수건을 친 모습 그대로 팔다리를 놀리기 시작한다. 에도 풍격의 세련되고 고상하며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용한 춤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여성들 모두가 부럽게 보는 것이 마그달레나의 원삼 고려옷 춤 모습이다.

큰 화톳불 곁에 있는 한쌍의 기러기, 머리에 수건을 치고 알락달락한 색깔의 아름다운 원삼을 입고 춤추는 마그달레나의 아름다움 춤 모습 '테 데움'의 명절... 마쓰오카 가나야마 사람들은 놀람과 함께 열광적인 환영을 보냈다. 그리고 내일 밤도, 모레 밤도 이춤을 춥니다, 이 춤과 멜로디를 꼭 기억할 때까지 춤을 춥니다 라고 하며 데라사와에서 온 15명 사람들에게 신신 부탁한다. 이렇게 된 바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기러기 모형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한다. 후지 효에이가 씨원히 마리를 꼬덕이고 선물 하기로 대답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모레도 마그달레나와 같은 가지 각색 천으로 만든 원삼을 입고 춤 추어 보겠다고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로구사에몬에게 고려 나들이 옷도 만들어 달라고 하니 그것도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답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33-91 “영웅입니다... 고려인은 신앙에 있어서 일본인보다 훌륭합니다”

다음날, 파도레가 시스토와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을 불렀다. 이탈리아인 안제리스는 급히 본 화제로 들어간다. 파도레는 처음부터 슬픈 표정을 하고 말한다.

안제리스 “요한, 당신의 본가는 아리마령의 미에였다지요. 시스토, 카타리나, 당신들은 일본에 연행된 최초 2년간 아리마의 농가에서 살았다고 하셨지요.” 세 사람은 “예” 하고 대답한다.

안제리스 “작년 11월 말에 1만의 병사가 아리마령으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러 들어갔습니다.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고 크리스찬들은 한 겨울에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순교한 크리스찬들이 또한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카타리나는 새파랗게 질리고 있다. 시스토와 로구사에몬의 얼굴은 인차 고민과 비통의 표정으로 바뀐다. 카타리나는 쇼크에 말도 바로 못하고 시스토가 대신에 말한다.

시스토 “파도레 거기에는 우리 부부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 주었던 두번째로 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고려로부터 연행되어 온 크리스찬 친구들이 몇천명이나 있지요...” 순간 카타리나의 눈으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 시스토는 카타리나를 가까이 끌어당겨 품에 안는다.

안제리스 “당신들의 친구 고려인들은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영웅적이고 용감하며 게다가 신비로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일본인보다도 훌륭합니다. 림씨 두목에게서 광산의 지하교회를 꾸려 온 것이 고려인 부부인 당신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고려인라면 꼭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지하 교회가 없는 다른 지방에서도 고려인들은 일본인들의 본보기가 되고 기둥과 같은 존재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토 “파도레, 우리는 하찌간 호아킨과 오타 주리아의 이야기를 센다이에서 온 프란치스코회의 에도 동숙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안제리스 “하찌간 호아킨과 오타 주리아라고, 하찌간 호아킨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이제 금방 센다이 령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시스토 “어떤 소식입니까?”

안제리스 “나는 시칠리아 섬에서 태어 났는데 거기는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입니다. 그 나라와 더불어 스페인 왕국 포르투갈 왕국,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의 전세계 식민지를 펠리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임금이지요. 센다이의 다테 마사무네라고 하는 영주가 프란치스코회의 루이스 소테라 신부를 그 임금과 로마 교황에게 파견하였는데 재 작년 10월28일에 출항하였다고 합니다. 루이스 소테라 신부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동료, 선교사, 수도사들에게 숙소와 성당을 제공해 준 하찌간 호아킨의 두개골을 최고 선물로써 펠리페 3세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찌간 호아킨은 프란치스코회가 일본에 심었던 첫 씨앗으로 에도 크리스찬 중의 최대 영웅이므로 순교자로서의 성스러운 유물로 숭경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이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 양녀 쿠라라의 순교한 부친과 같이 박해를 받아 함께 순교한 고려인이기에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사실 루이스 소테라 신부는 1616년5월16일에 마드리드에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와 함께 하찌간 호아킨의 두개골을 펠리페 3세에게 보냈다고 한다. 그 편지는 지금도 마드리드의 유명한 여 수도원에 보존되어 있다. 1616년 일찍 한 고려인 순교자가 이럴 정도의 영예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역사 사실' 이라고 볼수 있다. 또한 이 편지의 문두에는 하찌간 호아킨이 고려 왕국의 출생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카타리나 “파도레, 오타 주리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안제리스 “오타 주리아한테서 편지를 받은 일 있습니다.”

카타리나 “예, 파도레는 오타 주리아를 아십니까?”

안제리스 “예, 매우 친한 사이지요. 나는 오타 주리아가 이에야스에게 시종들면서 스푸에 살때 약5년간을 걸쳐 그녀의 신앙을 지도하였습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안제리스 “주리아는 지금 어부들의 집 9채나 10채밖에 없는 무인도와 같은 작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당장 굶어 죽을 지경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이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아무도 없고, 함께 따라간 크리스찬 하녀가 임신해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그 하녀를 돕고 있습니다.”

카타리나 “아니, 갓난아기를 기르고 있는가요.” 세 아이를 낳아 키운 카타리나는 그 고생을 알고 있다.

안제리스 “그래요. 일본의 제일 화려한 궁전에서 일본의 제일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시종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일본의 제일 가난한 곳에서 하녀의 하녀로 일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리아는 그 섬을 이에즈스가 책형 된 카르와리오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어머니는 산에 땔나무를 하러 가고 주리아는 생물을 길러 간답니다. 두사람이 사는 가난한 오두막집은 산에 가기도 땔으로 물길러 가기도 힘든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고상하고 사치하게 보내오던 그 하녀는 밤까지 걸려서 겨우 얼마 안되는 땔나무를 해 온다고 합니다. 주리아는 물을 길올만한 마땅한 도구도 없기에 물을 들고 오두막집까지 돌아 왔을 때에는 물은 절반도 남지 않고 옷만이 흠뻑 젖어 있는다고 합니다.”

카타리나 “그렇게도 참...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음식도 물도 땔나무도 없다니...” 동정심이 깊은 카타리나는 언녕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안제리스 “주리아는 카르와리오 언덕의 십자가 아래의 이에즈스의 발밑에서 일생을 마칠 생각이라고 써 보내 왔습니다.”

카타리나 “그래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안제리스 “내가 나가사키에서 일본을 추방될 날을 기다리던 8개월 사이에 수도의 비구니 베아타 수도회의 14명 베아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박 마리나라고 하는 고려인 베아타가 있었지요. 고려인으로서 맨 처음으로 베아타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마닐라에 있습니다만”

베아타 라는 말을 몰라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로구사에몬을 바라 본다.

로구사에몬 “남자는 수도사, 여자는 베아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스토 “예, 우린 몰랐습니다.”

카타리나 “나도 처음 들었어요.”

안제리스 “박 마리나는 1572년 고려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타리나 “나보다 세살 위인데요.”

안제리스 “일본에 연행되어 1606년 34세에 세례를 받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을 경과한 1612년 40세 때에 수녀로 되었습니다. 작년 1614년 금교령이 내릴 때 그녀의 집은 무너뜨려지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고문한다고 협박되고 교토의 큰 길우에 주머니에 넣은 채로 팽개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후 또 한사람씩 서로 떼어 놓고 신앙을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았으므로 전원이 알몸으로 되어 추운 겨울에 교토의 큰 길에 내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몸으로 매춘소에 끌려 가 능욕하고 정결을 빼앗는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도망쳐 버렸지만 박 마리나와 다른 여섯 사람은 용감하게 그대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9명은 또한 목까지 자루에 넣어 바줄로 단단히 매여 두 자루를 막대기 하나에 매 끌고 다니고 저녁때에는 형장인 추운 강변으로 끌려와 그대로 종일 내 버려 두었다 합니다. 그 후 교토의 큰 길에 다시 끌려 돌아 왔는데 그 때 박 마리나는 서투른 일본어로 이렇게 워쳤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즈스의 신앙을 그냥 굳게 지켰다.'라고”. 시스토와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은 이 이야

기에 매우 감동되었다.

시스토 “파도레, 고려인은 신비로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란...”

안제리스 “그렇습니다. 재 작년 9월경이었지요. 마시마라고 하는

고려인 여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많은 고상한 부인들이 주는 음식물로 12일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팔팔하고 힘차게 살아 남은 것이지요. 최초의 9일 동안은 기동에 얽매어 있었는데도.”

시스토 “예. 좀 더 상세히 들려 주십시오.”

안제리스 “좋아요. 마시마는 소녀 때에 일본에 연행되어 아리마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리마 성에서 시녀로 있었습니다. 도구가와 이에야스의 증손인 제2부인은 크리스찬을 그만 둔 성주 동 미카엘과 함께 시녀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녀들 중 제일 열심히 하고 용감한 크리스찬 마시마는 손에 염주를 강박으로 쥐어주면 그것을 땅에 던지고, 또한 다시 주어 불상의 얼굴에 내던졌다고 합니다. 제2부인은 마시마를 성중 탑 아래 지하층 기동에 움직일 수 없게끔 묶어 놓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죽을 것이냐, 크리스찬을 그만 둘 것이냐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9일후 바줄을 풀어 놓았을 때 너무도 목이 말라 돌연 쏟아져 오는 비물을 조개 껍질로 떠 마시니 이상하게 매우 쓰고 이에즈스가 십자가 위에서 마신 식초와 담즙과 같은 맛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신 뒤에는 다시 굶주림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꿈속에서 무수한 고상한 여성들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어 그것으로 마시마는 목숨을 이어냈다고 합니다. 마시마 자신에게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후 성주의 명령으로 한 부교에게 맡겨져 그 집에서 감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험한 옷을 입고.” 시스토와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은 입을 다문 채 하늘을 보며 마시마의 모습을 그려본다.

안제리스 “사실 나는 11월8일 마카오로 가는 배에 태워져 바다로 향했는데 얼마 안 되어 비밀리에 마중 온 작은 배를 갈아타고 나가사키에 되돌아 왔지요. 아리마령에서의 대 박해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11월1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약 일주일 후인 11월22일에 아리마령 구치노쓰에서 고려인 징크로 페토로와 미카엘이 순교하였습니다. 징크로 페토로는 순교 전야에 함께 기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성모가 나타나 크게 위로를 받았소. 그러니 순교할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성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카엘은 그전부터 환시자였습니다. 구치노쓰에 살면서 자주 파도레가 있는 가즈사에 밤길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별이 보이고 있어 그 별이 길을 밝게 비추어 주어, 캄캄한 밤에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별의 환시는 미카엘이 구치노쓰에서 결혼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하며 결혼 후에는 별의 환시가 없어지고 그 대신 자주 고상한 부인이나 천사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순교 하기 이틀전에 자신의 자매와 아내와 가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아름답고 고상한 부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박해하러 병사들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순교자로 되므로 준비 하세요' 라고.”

미카엘은 고려인으로서 최초의 환시자라고 합니다. 그 전날 미카엘은 밭에서 소량의 밀 종자를 뿌렸습니다. 아내가 먹을 것이 거의 없어지므로 그만두라고 하니 미카엘은 미래를 예언하여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미카엘은 예언의 하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뒤 50일이 경과된 12월28일, 이 밀은 밤새 성장해 이삭이 나온 것이지요. 다른 밭의 보리는 아직 작은 싹이 나올 정도인데 1월6일에는 이삭이 익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보리알을 신기롭게 생각하여 모두 그 이삭을 따 가니, 두번째 이삭이 또 나오고 그것도 모두 따 가니 또 세번째 이삭이 나왔다고 합니다. 전대 미문의 사건이기에 파도레 스피노라와 파도레 모레훈이 조사해 보았다고 하는데 이 일은 확실히 사실였다고 합니다.”

시스토 “파도레, 두 사람은 어떻게 순교하였던가요?”

안제리스 “두 사람은 크리스찬 묘지의 땅에 넘어 쓰러져 몽둥이로 때려 맞아 눈과 코 귀로부터 피가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후 벌거숭이로 되고 양손을 뒤에 붙혀 매고 흉투성 짚위에 머리와 얼굴을 마구 짓밟히고 숨도 쉴수 없을 정도로 양손, 양팔, 목을 꽁꽁 묶여 굵은 막대기를 발과 다리 가랑이에 끼워 7~8명이 그 위에 올라 타 뼈가 부서질 듯이 눌리웠다고 합니다. 그후 발가락 손가락을 몽땅 잘라버리고, 네 손가락 넓이가 되는 십자가의 인두질 소인을 눌리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쇠망치로 입을 맞아 입이 다 깨졌다고 합니다. 징크로 페토로는 그 때 옆드린 채로 신장 위에 큰 돌이 놓아졌지만 이에즈스와 마리아의 이름을 되풀이 하며 “돌아서지 않는다” 라고 대담히 말했기에 입술을 때려 맞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칼로 어깨를 잘리우니 “목을 자르고 몸을 칼탕 맞아도 돌아 서지 않는다” 라고 말 했으므로 목을 잘리워 버렸답니다. 미카엘은 “나는 고려인 미카엘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끈임없이 계속 말했으므로 입술을 때려 맞고 묘지의 입구 계단 밑에 끌려가 목을 잘리우고 몸을 칼탕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22명이 같이 순교했는데 그 장소에는 자주 하늘에서부터 빛 덩어리가 내려와, 그것이 또한 작은 22개의 빛 덩어리로 나뉘어지고 하늘에 다시 올라 가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시스토 “파도레,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려인들에게 그런 굉장한 박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안제리스 “내가 알기에는 고려인은 일본인보다 더욱 열렬히 사람을 믿고 남에게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일본인보다 실제적으로 봉사하여 사람들에게 선의를 행합니다. 꼭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고려인이 일본인보다 더욱 열렬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 드리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본인에게 고려인의 뛰어난 신앙을 보여 주고 싶었으며 그 표징으로 될수 있는 많은 사건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스토와 카타리나는 입을 다문채 들고 있고 로구사에몬은 몇번이나 크게 머리를 끄덕인다. 그런 로구사에몬을 보며 파도레가 말을 건다.

안제리스 “요한, 어제 원내 긴잔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때에 이시미의 산다유 두목에게서 페토로 히토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내 긴잔의 부교로 된후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사하였다는 사실어요. 기실 그에게 세례를 하사한 사람은 나왔습니다. 후시미 교회에서 하사 하였지요.”

로구사에몬 “예 파도레, 그한테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화제는 페토로 히토미에게로 돌아 갔다.

33-92 “성모 마리아의 밤샘... 오도의 크리스찬 춤”

밤이 왔다. 광장에 또 어제와 같이 성대한 화톳불이 태워지고 사람들이 모여 왔다. 마그달레나가 원삼을 입고 오고, 시스토와 카타리나와 로구사에몬이 고려 나들이 옷을 입고 왔으며, 그외의 데라사와 사람들도 모두 다 왔다. 안제리스 신부와 동행한 3명의 동숙도 ‘테 데움’을 부르러 또 왔다. 카타리나가 눈을 크게 뜨며 외친다.

카타리나 “야 시스토, 저걸 보아요, 저건 뭔데요!”

카타리나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일본 와후쿠 (일본의 여복) 를 입은 여성들이다. 원삼과 모양이 비슷한 점이 있다. 카타리나와 시스토가 그 쪽에 가므로 데라사와 사람들도 모두 따라간다. 시스토나와 카타리나, 로구사에몬이 아는 사람도 몇이 있다. 오도의 마을 사람들이다. 오도는 봉오도리로 유명한 니시모나이의 마쓰오카 가나야마 곁에 있는 마을이다. 마쓰오카 가나야마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크리스찬이 많으므로 시스토는 몇번이나 오도에 가 본 일이 있었다. 이 오도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춤에 적극적으로 끌려 든 것이다. 오도의 남자들 몇 명이 횡적까지 준비해 왔기에 데라사와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큰 화톳불 옆에는 기러기 모형이 또 갖추어져 있고 ‘테 데움’을 노래 부르려는 파도레와 동숙들, 그리고 로구사에몬과 요아킴 오에가 모여 있고, 횡적을 가진 남자들이 바로 그 옆에 서서 파도레를 응시하며 피리를 입에 대고 준비하고 있다. 아름다운 색깔의 일본 옷을 단 하루에 만들어 낸 오도의 여자들은 에리자베타 오에를 응시하며 준비하고 있다. 여하간 오도의 남녀들의 크리스찬 춤에 대한 열심은 범상치 않다. 파도레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6명의 남자가 힘차게 목소리를 합쳐 부른다. 춤도 동시에 시작된다. 이어 따라 파도레를 놀라게 한 것은 노래에 맞추어 1,2초의 간격을 두고 횡적을 부는 소리가 정확히 들려온다. 그들은 어제 들은 멜로디를 이미 기억한 것이다. 파도레는 매우 감격한다.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시칠리아인의 피가 끓어 올라왔다. 노래 한곡 마치자 파도레는 저도 몰래 큰 소리로 외친다.

안제리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춤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젯밤 오늘밤, 그리고 내일밤도 춘다고 하지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사실 크리스찬 달력으로 하면 이 3일간은 8월12일, 13일, 14일이며 성모 마리아의 3일간 밤샘에 겹치고 있는 것입니다. 8월12일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8월15일에 승천되었으니, 12일, 13일, 14일 밤에 밤샘을 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축하하여 매년 마쓰오카 가나야마에서 올해와 같이 3일간 크리스찬 춤을 추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파도레의 이 제안에 마쓰오카 가나야마의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며 떠든다. 모두 데라사와 사람들에게 매년 와서 같이 춤추자고 청한다. 파도레는 옆에 서있는 로구사에몬에게 묻는다.

안제리스 “요한, 매년 크리스찬 달력을 조사해서 이 3일간은 여기에서 춤을 추자요. 당신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데라사와 다섯 사람의 세례 기념일도 되구요. 4일째에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마쓰오카 가나야마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축하하면 어떨겠습니까?” 거기에 또 림씨 두목이 다가 든다.

림씨 두목 “로구사에몬, 여기의 크리스찬 두목이 우리를 매년 와

주었으면 해. 숙박하는 장소는 맡겨 달라고 하지요. 모두 기뻐서 청하고 있지요. 어때요.” 라고.

로구사에몬이 저쪽을 보니 데라사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다. 무엇이가 카타리나와 마그달레나가 퐁퐁 뛰며 손뼉 치고 림씨 부인과 에리자베타 오에도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뻐하며 말한다. 함께 ‘테 데움’을 부르고 있던 요아킴 오에는 그것을 보고

요아킴오에 “저런 정녕 떠들어 대는구나.” 나이가 든 아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떠들어 대는것이 매우 신기롭게 생각된다. 시스토가 정련 부문의 장인 전원에게 둘러싸인다.

시스토 “이제부터 매년 3일간 오늘과 같이 화톳불을 피우기에

데라사와 사람들도 매년 와 주는게 어때.” 일은 이렇게 결정되고 마쓰오카 가나야마에서 제일 이름이 알려져 있는 시스토가 대표로 말한다.

시스토 “마쓰오카 가나야마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매년

성모 마리아의 밤샘을 여기에서 지내며 우리 데라사와 사람들도 와서 춤을 추기로 합니다. 파도레 안 제리스, 아주 훌륭한 제안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크게 오른다. 그리고 또 춤이 시작된다.

그날 밤 카타리나는 잠자리 속에서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시스토가 알아 차리고 상냥하게 부둥켜 안는다. 카타리나는 울면서 말한다.

카타리나 “박해 받은 아리마령 사람들이 불쌍해... 나 마음이 찢린 것 처럼 괴로와. 파도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하루 종일 그래요. 로구사예문과 마그달레나의 결혼이나 데라사와 사람들의 세레나 크리스찬 춤이나 기뻐 할일도 많지만. 파도레가 마리아 마마의 밤샘에 대해 말했지요. 밤샘이라는 말이 그냥 잊어지지 않아요. 나, 그냥 순교한 사람들을 애도하며 춤을 추었어요...”

시스토 “나도 매우 가슴이 쓰라려.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려로부터 연행되고 그것이 7년간이나 계속 되었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려인들이 일본에 왔을까. 특히 아리마령이나 아마쿠사령은 영국민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일 것이야. 영주나 가신도 모두 크리스찬이지. 고려인도 모두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 우리들 손자가 태어난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미 손자가 태어날 때가 되었을 것이지. 고려의 피를 이은 크리스찬 수는 아리마나 아마쿠사만이 라도 몇 천명이 될거야. 그들에게 이후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가... 나의 마음은 절반은 기쁨이지만, 절반은 슬픔과 근심에 차 있어.” 여기까지 말하고 두사람은 입을 다물어 버리고 드디어 잠들어 버린다.

마쓰오카 가나야마의 크리스찬 춤의 마지막 날, 드디어 오도의 여성들은 모두 일본 와후쿠를 입고 왔다. 굉장한 정열이다. 이 3일간은 한결같이 와후쿠를 만드는 일과 춤추는 일로 보낸 것 같다. 춤이 끝나고 아직 붉게 타고 있는 큰 화톳불 앞에서 오도의 사람들이 데라사와 사람들을 불러 함께 둘러싼다. 오도의 오하쿠쇼가 오도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한다. 그는 내일 가족과 더불어 몇십명의 오도 사람들과 함께 파도레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오도의 오하쿠쇼 “시스토 선생님, 데라사와의 여러분, 또 25일간 더 지나면 오도의 봉오도리가 사라집니다. 봉오도리의 5일간 데라사와의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 크리스찬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부터 매년 와 주십시오. 숙박하는 곳은 꼭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크리스찬 춤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도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스토 일행은 매우 기뻐하며 동의한다

33-93 “기쁨의 귀로... 그리고 순교하는 날까지 9년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9년간, 시스토와 데라사와 사람들은 마쓰오카 가나야마에 3일간 머물며 성모 마리아의 밤샘을 춤추고, 그 다음으로 또 오도에서 5일간 머물며 봉오도리를 추었다. 이 9년간 사이에 데라사와는 마을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오도도 마을 전체가 크리스찬이 된다. 어디에서나 시스토의 전략대로 당당하게 불교 신자로 위장하고 절에 다니는 체 하지만 사실 마을 사람 모두가 세례를 받아 크리스찬이 되고 있었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대관으로부터 촌장에 이르기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크리스찬 춤은 이 지방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계속 되어갔다. 약 260년 후 금교령이 철폐될 때까지 이 지방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게 기원하면서 춤을 추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다음날, 파도레 안제리스와 3명의 동숙들은 마쓰오카 가나야마를 출발하여 우선 오도에 가 마을 사람들의 집단 세례를 치렀다. 데라사와의 15명도 함께 오도에 가 오도의 오하쿠쇼와 그 일가, 그리고 몇 십명의 마을 사람들의 세례식에 참가하여 기쁨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모두와 같이 축하했다. 이 모든 일을 끝 마치고 로구사에몬과 데라사와 후지 효에이, 데라사와 타로 우에몬 세 사람은 파도레 일행을 도와 구보타 성하까지 가기 위해 여러분과 헤어져 파도레 일행과 함께 떠났다. 남은 12명의 데라사와 사람들은 함께 데라사와에 돌아 왔다.

이로부터 예수회의 파도레와 동숙들은 여관 주인으로, 또한 순회의 안내자로 된 데라사와 후지 효에이와 데라사와 타로 우에몬의 도움을 항상 받게 된다. 그리고 물론 로구사에몬의 도움도 컸다. 순교의 날까지 9년이 남아 있는 때였다.